제주학연구센터 제4회 정책학술회의

무형유산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일 시 : 2019년 11월 15일(금) 오후 1시 ~ 11월 16일(토)

▌장 소 : 아스타호텔

▌주 관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한국민속학회

JRI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 프로그램

일 정	내 용
1일 차	개회식(13:00~13:10) 사 회 : **김 미 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개회사 : **강 정 원** (한국민속학회 회장) 환영사 : **김 동 전** (제주연구원 원장)
	제1부 : 무형유산 아카이빙의 사례 검토 (13:15~14:40) 좌장 : **강 정 원**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1 : 이치피디아와 민속의 지속가능한 발전** (13:15~13:55) 발표 : **박 순 철**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 **윤 동 환** (전북대학교 교수) **발표 2 :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전망** (14:00~14:40) 발표 : **김 종 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장) 토론 : **유 형 동** (한신대학교 교수)
	제2부 :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 (14:50~18:00) 좌장 : **최 원 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발표 3 : 제주학아카이브와 무형문화유산 구축** (14:55~15:35) 발표 : **좌 혜 경**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직무대리) 토론 : **양 영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발표 4 : 물질의 고고학** (15:40~16:20) 발표 : **심 승 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토론 : **허 남 춘**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5 : 문화유산으로서 제주 본풀이의 이해와 활용** (16:25~17:05) 발표 : **이 소 윤** (서울대학교 박사 수료) 토론 : **윤 준 섭** (서울대학교 박사) **발표 6 :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제안** (17:10~17:50) 발표 : **허 용 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토론 : **김 형 근** (동아대학교 교수)
2일 차	제주도 본향당 답사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한국민속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학술회의를 위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각 지역과 특히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자원을 아카이빙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민속학자들도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료를 기록하고, 아카이빙하여 학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자원화하여 응용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중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이론과 실용이라는 두 날개를 잘 활용해야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학이 무형문화유산을 연구만 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연구할 동력을 얻을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주도는 한국 민속학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민속학자들이 장기지속하고 있는 민속문화를 대상으로 천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변화무쌍하게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민속문화가 민속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속학자들이 자랑하는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민속문화도 아직은 각각 떨어진 채 빛을 발하고 있는 보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석을 꿰어 줄 비단실이 오늘 제주학연구센터 제3회 정책학술회의에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책학술회의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제주연구원의 김동전 원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학술회의의 실질적인 준비를 도맡아 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 특히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좌혜경 센터장님과 함께 학술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한국민속학회 허용호 연구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학술회의가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유익한 정책적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한국민속학회장
서울대학교 **강 정 원** 교수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한라산에는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감귤 밭에는 노란색의 과실이 풍요를 자랑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한국민속학회가 공동으로 “제주무형유산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예부터 민요와 신화, 전설 그리고 무속의례와 곳곳에 있는 당 문화 등이 잘 남아 있는데, 이들은 무형문화의 보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유산들입니다.

지금 제주사람들의 무형문화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이하고 환송하는 무속의례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계장치 없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고 작업하는 여성공동체 문화인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지속보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의 무속신화는 학술적인 면에서 글로벌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형유산들은 온전한 보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제주연구원 부설로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연구와 자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연구물 DB, 고문헌, 사진, 동영상, 구술 자료 등 제주학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아카이브화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의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의 학술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풍부한 정책제안으로 제주의 무형 유산에 대한 글로벌화와 지속보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목 차

◈ 개회사 **강 정 원** 한국민속학회장 ····· 2
◈ 환영사 **김 동 전** 제주연구원 원장 ····· 4

▣ 제1부 : 무형유산 아카이빙의 사례 검토

• **발표 1 : 이치피디아와 민속의 지속가능한 발전** ····· 9
발표 : **박순철**(전북대 교수) / 토론 : **윤동환**(전북대 교수)

• **발표 2 :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전망** ····· 37
발표 : **김종태**(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장) / 토론 : **유형동**(한신대 교수)

▣ 제2부 :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

• **발표 3 : 제주학아카이브와 무형문화유산 구축** ····· 69
발표 : **좌혜경**(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직무대리)
토론 : **양영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 **발표 4 : 물질의 고고학** ····· 89
발표 :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토론 : **허남춘**(제주대 교수)

• **발표 5 :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이해와 활용** ··· 105
발표 : **이소윤**(서울대학교 박사 수료) / 토론 : **윤준섭**(서울대 박사)

• **발표 6 :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제안** ·· 127
발표 : **허용호**(한예종 교수) / 토론 : **김형근**(동아대 교수)

▣ 부 록 제주도 본향당 답사 ····· 147

주제발표 1

이치피디아와 민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박 순 철

(전북대 교수)

이치피디아와 민속의 지속가능한 발전

- ichpedia.org -

Nov. 15 , 2019

CICS 박 순 철



ICH platform

1. 무형유산 자료와 정보가 있는 곳
2. 무형문화의 행사가 있는 곳
3. 무형유산의 digital curation이 행해지는 곳: 데이터와 데이터가 상호 연결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가치있는 곳
4. 무형문화의 변화와 도전을 알 수 있는 곳
5. 무형유산 전문가, 장인, 연구자,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함께 하는 곳
6. 무형유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곳
7. 무형유산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있는 곳

배경: 자료 · 인터넷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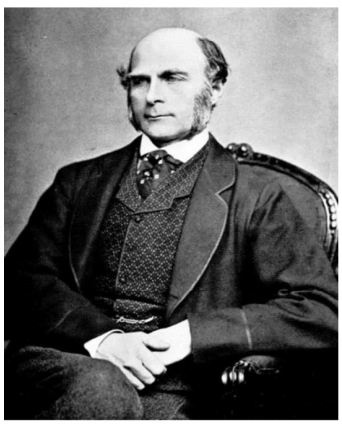
What is the weight of an ox?



800kg
700kg
500kg
400kg
300kg

(800kg
+700kg
+500kg
+400kg
+300kg)/5
=540kg

Real story



In 1907, Sir Francis Galton asked 787 villagers to guess the weight of an ox. None of them got the right answer, but when Galton averaged their guesses, he arrived at a near perfect estimate (1,197pound, Real one is 1,198 pound (543kg)). This is a classic demonstration of the "wisdom of the crowds", where groups of people pool their abilities to show collective intelligence. Galton's story has been told and re-told, with endless variations on the theme. If you don't have an ox handy, you can try it yourself with beans in a jar.

http://phenomena.nationalgeographic.com/2013/01/31/the-real-wisdom-of-the-crowds/



실험



21세기의 자원, 데이터

IBM의 지니 로메티 회장은 올 초 "데이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천연자원"이라고 강조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18세기의 증기 기관, 19세기의 전기, 20세기의 석유와 마찬가지로 21세기는 데이터가 혁신을 주도할 주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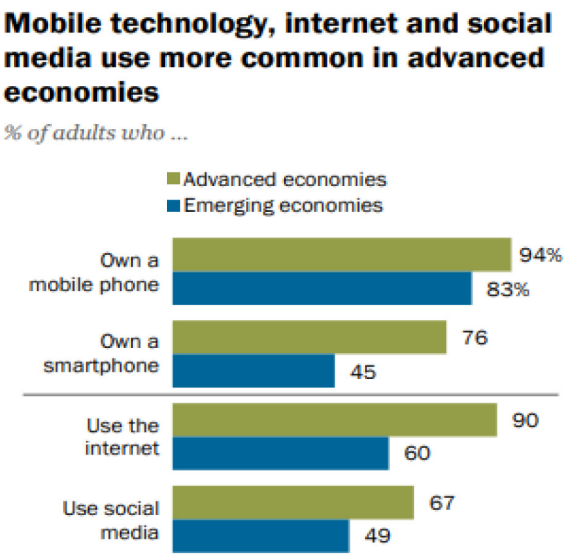
[출처: 중앙일보] [경제 view &] 빅데이터는 21세기 신종 천연자원이다 입력 2014.08.22 00:59 수정 2014.08.22 00:59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016년

Rate of Smartphone Distribution



https://venturebeat.com/2019/02/05/pew-south-korea-has-the-worlds-highest-smartphone-ownership-rate/ by Pew Research Center

인터넷과 정보회사

1. **Naver**
   a. Navigation + er
   b. 1997년 3월 3일 삼성SDS의 사내 벤처 '웹글라이더'
   c. 1998년 1월 : 네이버 정식 서비스 시작
   d. 1999년 6월 : 네이버컴(주) 설립, '네이버' 정식 서비스 시작

2. **Google**
   a. 구글의 이름은 10^{100}을 뜻하는 구골에서 따옴
   b. 1998년 'BackRub'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c. 2013년 매출액 US$ 598.2억 (66조)

3. **Amazon.com**
   a. 1994년 7월에 제프 베조스가 설립
   b. 2003년 설립이래 처음으로 연간 이익
   c. 2014년 종업원 132,600명
   d. 2017년 세계최고부자 3위: 제프 베조스 (아마존, 미국) – 약 81.5조 원

한글Wiki 제공

문화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포스터

문화데이터의 필요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포스터

ICHpedia.org

ICHPEDIA platform을 통한 우리나라 및 협력 국가의 SDGs 추구

세계 무형유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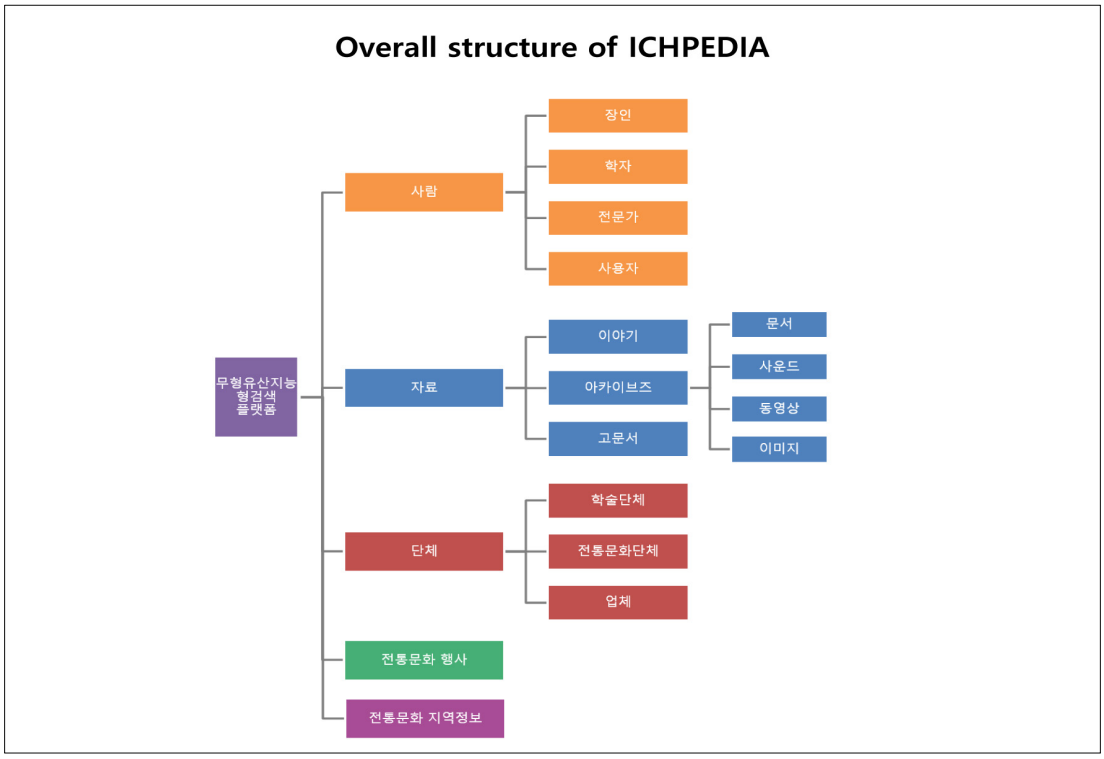
- 1997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
-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협약: 무형유산을 통한 세계 발전 방향 모색
- 2016년 유네스코 SDGs 설정: 2016-2030 무형유산을 통한 세계의 교육, 빈곤퇴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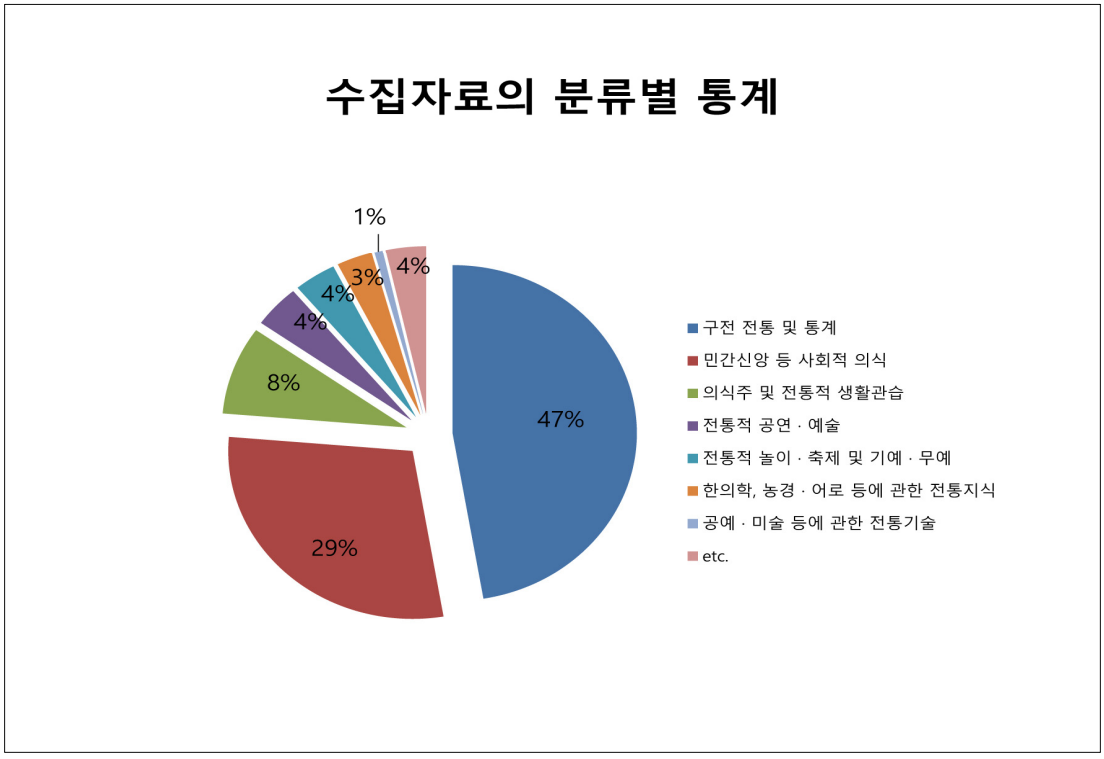
우리나라 ICT 기술 현황

- 인터넷 속도 순위 (2009) 1위, (www.worldrank.co.kr)
- 네트워크 준비 지수 (2010-2011) 10위, (www.worldrank.co.kr)
- 전자 정부 서비스 지수 (2012) 1위, (www.weforum.org)
- 스마트폰 보급율 (2019) 1위 , (Pew Research Center)

C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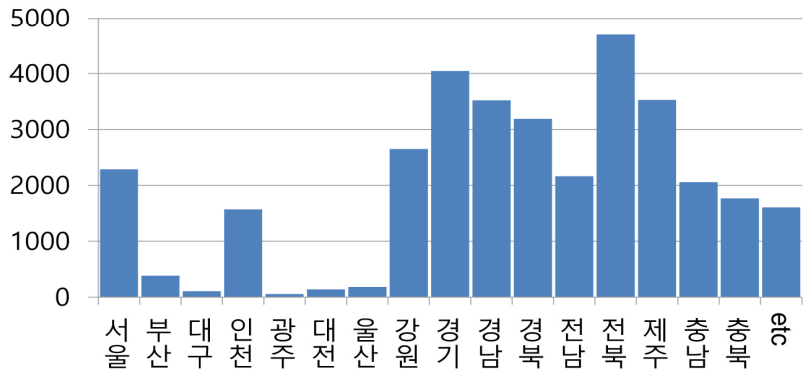
- 2002년 ~ 현재까지 무형유산 교육사업, 연구 및 자료 수집 활동 지속 (약 7만건)
- 2013년 ~ 2016년, 2017년 ~ 현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
- 2015년 11월 유네스코 무형유산 분야 인가 NGO 결정(2016년 승인)
- 2015년 무형유산정보학과 협동과정 신설
- 2017년, 2018년 세계무형문화포럼 운영, 2019년 전주세계무형유산 대상 운영


Overall structure of ICHPEDIA
무형유산지능형검색플랫폼
사람
장인
학자
전문가
사용자
자료
이야기
아카이브즈
문서
사운드
동영상
이미지
고문서
단체
학술단체
전통문화단체
업체
전통문화 행사
전통문화 지역정보


수집자료의 분류별 통계
47%
29%
8%
4%
4%
3%
1%
4%
구전 전통 및 통계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관습
전통적 공연 · 예술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
한의학, 농경 ·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공예 ·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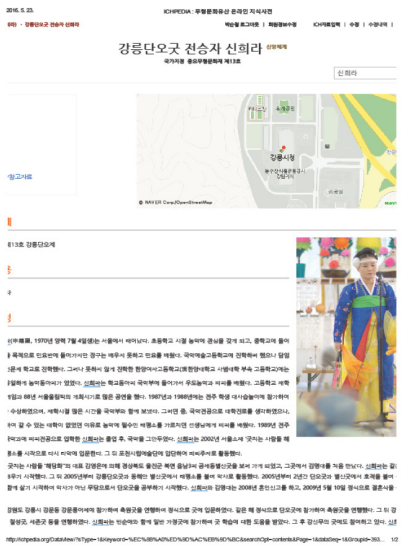
수집자료의 지역별 통계

2016 July 15 : 33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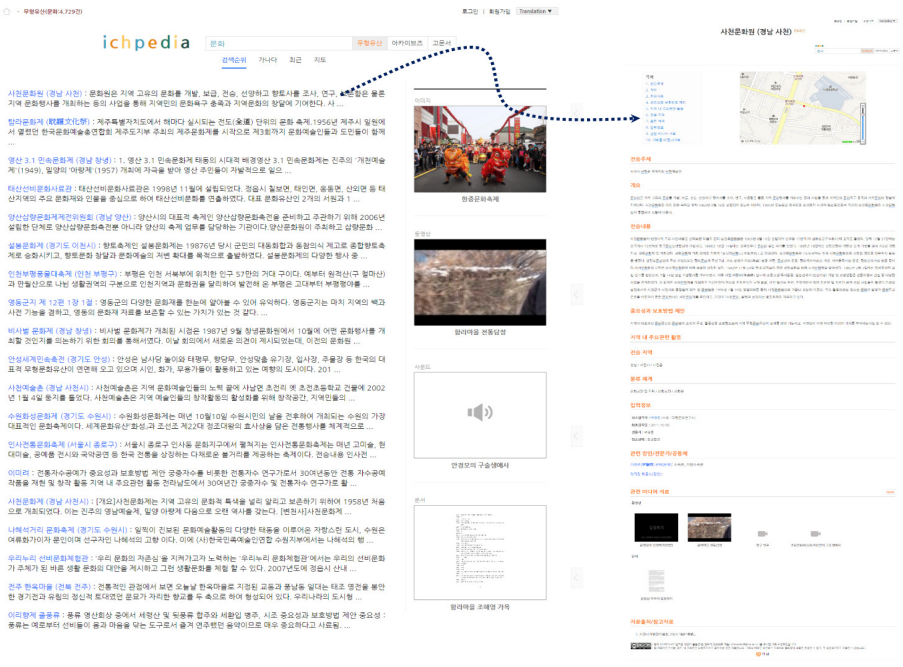
http://www.ich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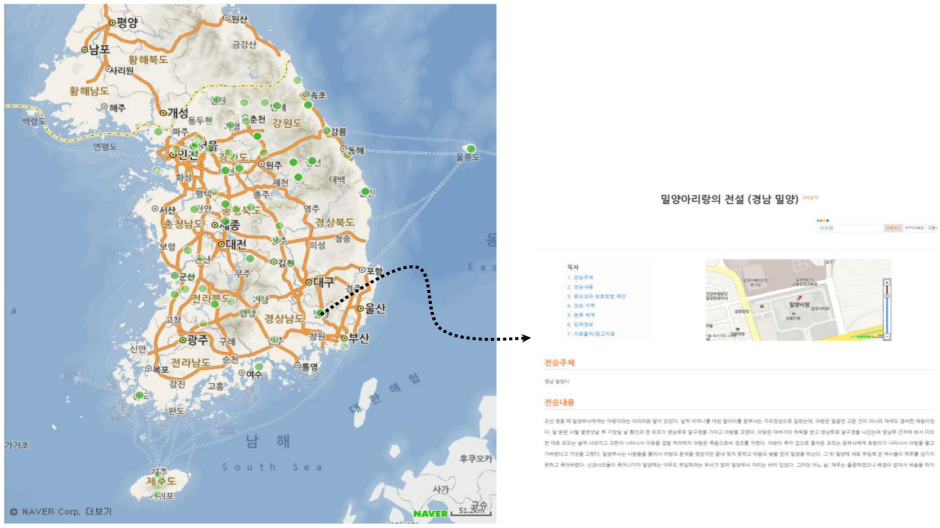


강릉단오굿 전승자 신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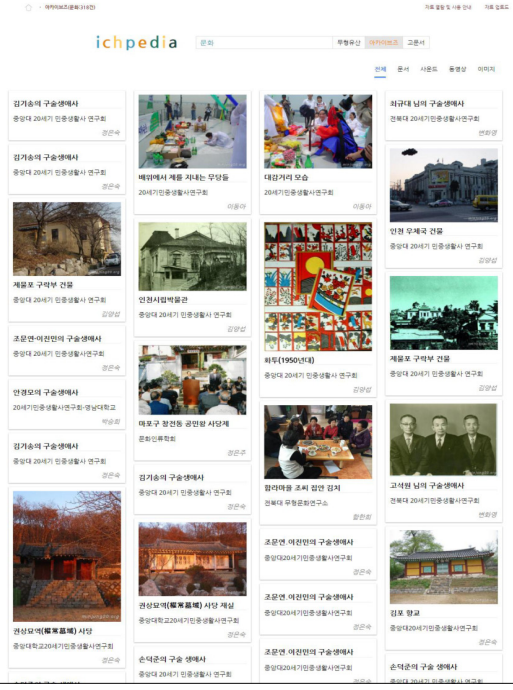
ichpedia 검색 결과



지도 검색



ichpedia 아카이브즈



아카이브즈 표준 메타데이터



고문서 검색



고문서 정보



본문내용

을축년 9월에 文化柳氏大譜所에서 보낸 敬告文이다. 문화유씨 대동보 2책 52권의 간행이 끝되어 가고 있는데 출판의 성급 때문에 일이 더디니 의연금을 조속히 수합하여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현소장처

원광대학교박물관

원소장처

광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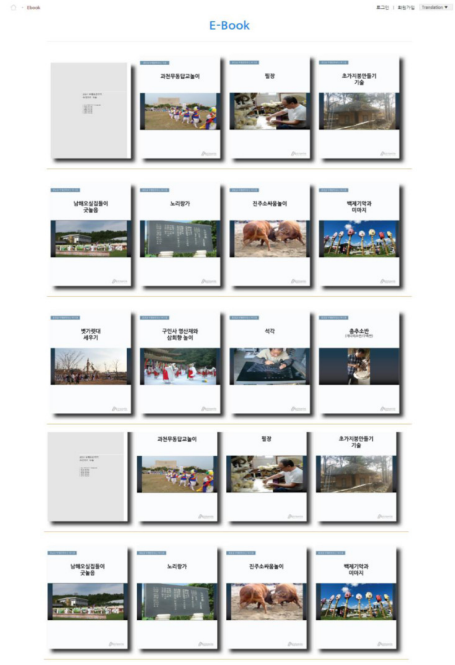
디지털자료관리

무형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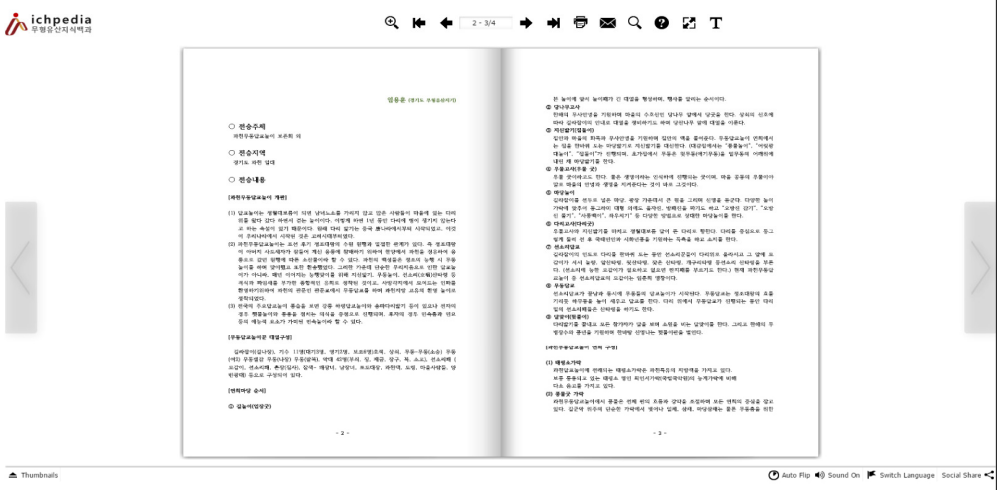
작성일

2006-11-30

이치피디아 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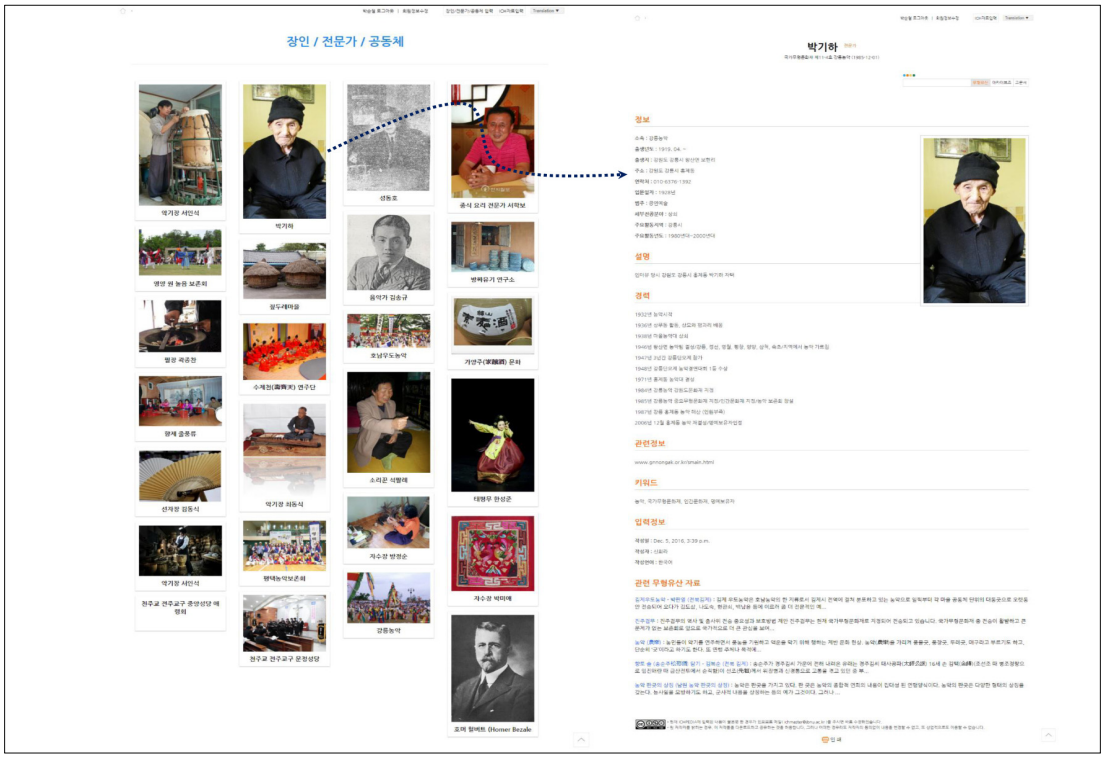


E-BOOK


ichpedia
무형유산지식백과
2 - 3/4
Thumbnails
Auto Flip
Sound On
Switch Language
Social Share

공동체


영양 원 놀음 보존회
관련 미디어 자료
관련 무형유산 자료
관련 블로그 자료


장인 / 전문가 / 공동체
박기하
정보
설명
경력
관련정보
키워드
입력정보
관련 무형유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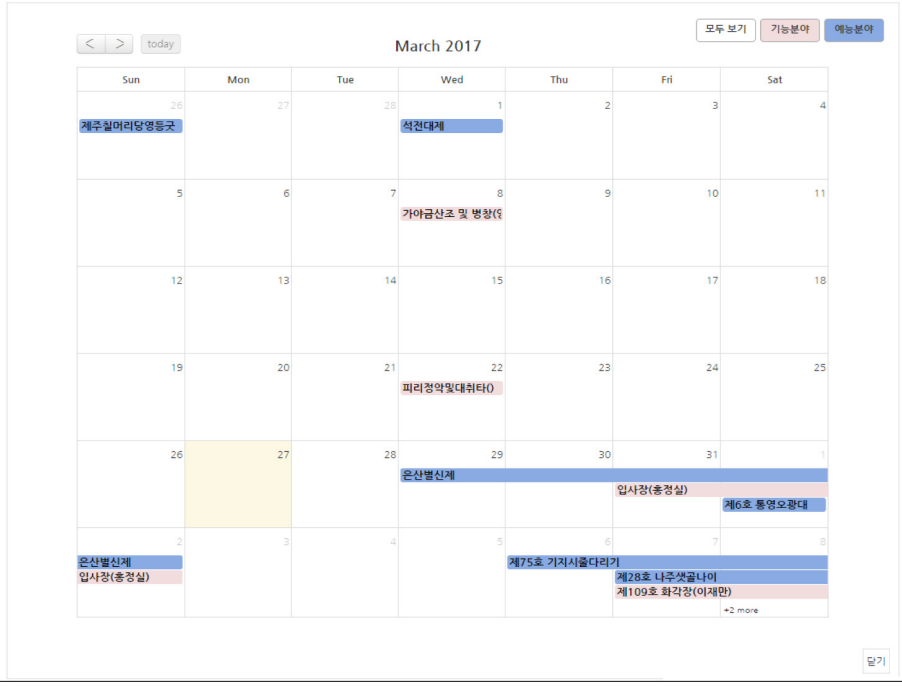
이치피디아 뉴스레터


Newsletter · 제46호
발행일 : 2019년 7월 25일
무형문화연구원 뉴스레터 통권 46호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Studies (CICS)
뉴스레터 항목
연구소 활동
■ 무형유산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 개최

ichpedia 블로그



ich 일정



Ichpedia에 대한 관심

MEMORIAMEDIA Revie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VIEW | ABOUT | SUBMISSION | OPEN ACCESS

EN
PT

The Republic of Korea *ICHpedia* wiki and the creation of a new web-based community of practice through online participatory methodologies

Download PDF EN Go to website

Jessica Rossi
Ca' Foscari University
MEMORIAMEDIA Review 3. Art.2. 2018

photo: ichpedia.org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the classification established by Korea's ICHpedia for users involved in the inventory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use of Web 2.0 instruments. The analysis moves from the definition of community developed since the adoption of the UNESCO 2003 Convention, and traces the recent shift from object-oriented to person-oriented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understand what changes from the cyberspace are taking place and influencing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The new concept of "heritage of all" is closely connected with collective intelligence theories from the Nineties'. Moving from this theoretical background I try to postulate the necessity of a new shift in the definition of community, which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which provides the cultural heritage sector with new networks of people involved in the identification of ICH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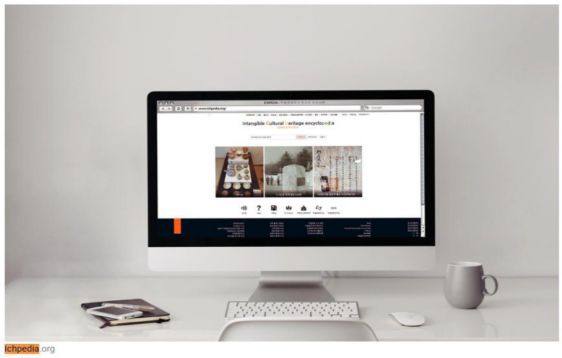
Keywords: community of practice, wiki,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 TO
MEMORIAMEDIA e-Museum
MEMORIAMEDIA e-books
IELT/FCSH-NOVA
UNESCO ICH

2018 N°3

Editor's note
The collaborative indigenous cinema
The Republic of Korea ICHpedia
Experimenting with participation in dialogue
Serious Games and heritage mediation
Cultural Mapping: a Sustainable Methodology
Sustainable Safeguarding
Who ow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mory from the Avenues
The Participation in the Safeguarding of the ICH

ICH Courier onl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rier of Asia and the Pacific



ichpedia.org

ENCOURAGING ICH SAFEGUARDING THROUGH AN ONLINE SYSTEM: ICHPEDIA PROJECT

VOLUME 23 | EXPERT REMARKS

HanHee Hahm | Professor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ICHpedia wiki and the creation of a new web-based community of practice through online participatory methodologies

Jessica Rossi
Ca' Foscari University

Site: http://www.ichpedia.org/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the classification established by Korea's ICHpedia for users involved in the inventory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use of Web 2.0 instruments. The analysis moves from the definition of community developed since the adoption of the UNESCO 2003 Convention, and traces the recent shift from object-oriented to person-oriented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understand what changes from the cyberspace are taking place and influencing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The new concept of "heritage of all" is closely connected with collective intelligence theories from the Nineties'. Moving from this theoretical background I try to postulate the necessity of a new shift in the definition of community, which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which provides the cultural heritage sector with new networks of people involved in the identification of ICH elements.

Keywords: community of practice, wiki,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CH and its educational treatment. Multiple publications have resulted from this project, including the study by Ott, Dagnino and Pozzi (2014) on the design of innovative educational interventions in the area of ICH.

There are likewise co-operative networks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like the one developed in Finland, the main goals of which are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the Finnish population and their own cultural heritage and to reinforce the latter's role in education. The *Oak of Finland* is remarkable for involving co-operation acros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where schools, museums, NGO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s work together in order to further heritage education. Within the European sphere, mention must be made of the *HEREDUC Project*, since it is the first co-operative project involving several countries in Europe. With participation by Germany, Belgium, France, the Netherlands and Italy, its main aim is to develop guides in order to help teachers integrate heritage education in their class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models of transferable action.

Outside Europe, Brazil is host to the project *Mais Educação*, which conducts an educational inventory of cultural heritage to be used by schools and institutions that work on heritage-related education in that country. With a different approach, yet similar tools, Korea's *ICHPEDIA* project aims to produce an inventory that in turn generates two databases operating as a mutually complementary platform. The first one has been designed so as to gather multimedia data, while the second one is meant to be particularly user-friendly. By creating this inventory, networks and active co-operative relationships are generated between the administrations and the citizenry (Cheol, 2014). Both projects share similar traits with our own *Spanish Heritage Education Observatory (SHEO)* in terms of the tools used in compiling the inventory and the database.

This overview of international research work and benchmark projects, now lets us focus on the observation and analysis of heritage education in Spain. The subject has been addressed not only by a number of scholars, but also by numerous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s like the Organic Law for Quality Enhancement in Education (2013), the *Spanish Historic Heritage Act* (1985), the National Pla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1), and the National Plan for Heritage and Education (Domingo, Fontal and Ballesteros, 2013). Given the need to closely observe educational actions implemented in the sphere of cultural heritage, an R&D&I project named the *Spanish Heritage Education Observatory* (EDU2009-09479) was started in 2010. Initially meant to span a 3-year period (between January 2010 and December 2012), the project was then extended over a second phase between January 2013 and December 2015 (EDU2012-37213) and is currently in a third phase (EDU2015-65716-C2-2-R). Its goals were set up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concerning heritage and education, and for over five years now it has been dedicated to tracing, inventorying and analysing heritage education program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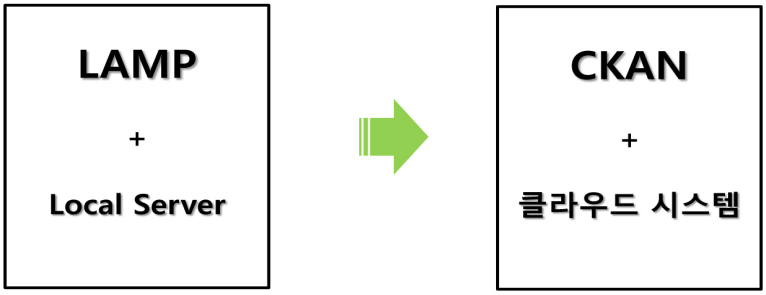
The present piece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SHEO*. The research problem arose from early analyses (Fontal and Martínez, 2017) claiming that intangible heritage is not prioritised content in educational programmes (only 14% from among 18 heritage typologies specifically include this category), even though there are very interesting proposals in this regard which possess a high educational value. Moreover, among proposals implemented in non-formal settings there is a large variability (and a fair amount of dispersal too), which points to the need to order and classify them appropriately.

The situation described above, on the other hand, takes place in a country that can boast no fewer than 44 properties includ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as well as 11 elements that enjoy the status of intangible heritage inscrib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pain thus ranks as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by the number of items inscribed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and the third country in Europe by the number of assets qualifying as intangible heritage. Additionally, and according to Spain's Cultural Heritage Institute (IPCE), the country's autonomous regions have thus far ensured protection for 60 cultural manifestations by declaring them "Assets of Cultural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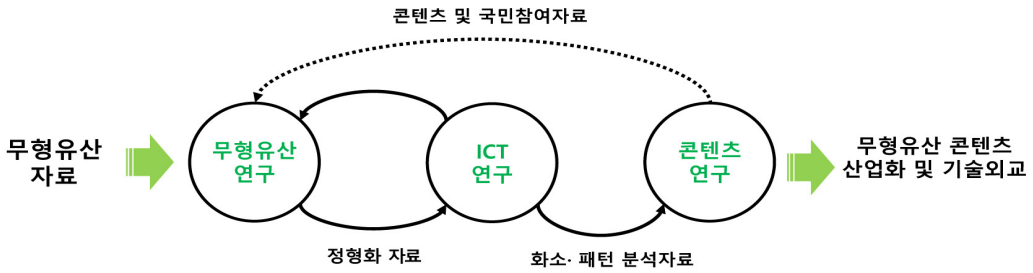
All of this justifies the need to thoroughly scrutinise educational actions put into practice in Spain over the last few decades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is the inspiration for our research, the goal of which is to appraise and shed light on the available education opportunitie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pain. In order to achieve this end, the present study

도전과제

시스템 upgrade



데이터 수집에서 콘텐츠개발까지 협력체계 구축



- 무형유산 메타자료 표준화
- 무형유산 자료 입력관리
- 무형유산 화소 인문적 분석

무형유산 목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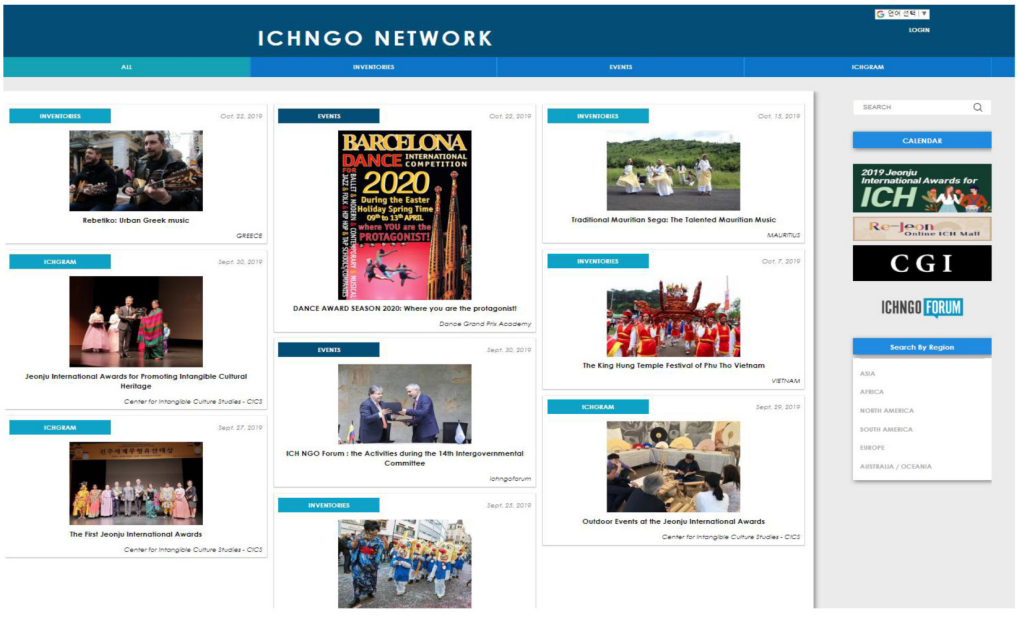
- 무형유산 플랫폼 기술지원 및 관리
- 무형유산 멀티미디어 자료 다차원 분석

무형유산 자료 분석 및 화소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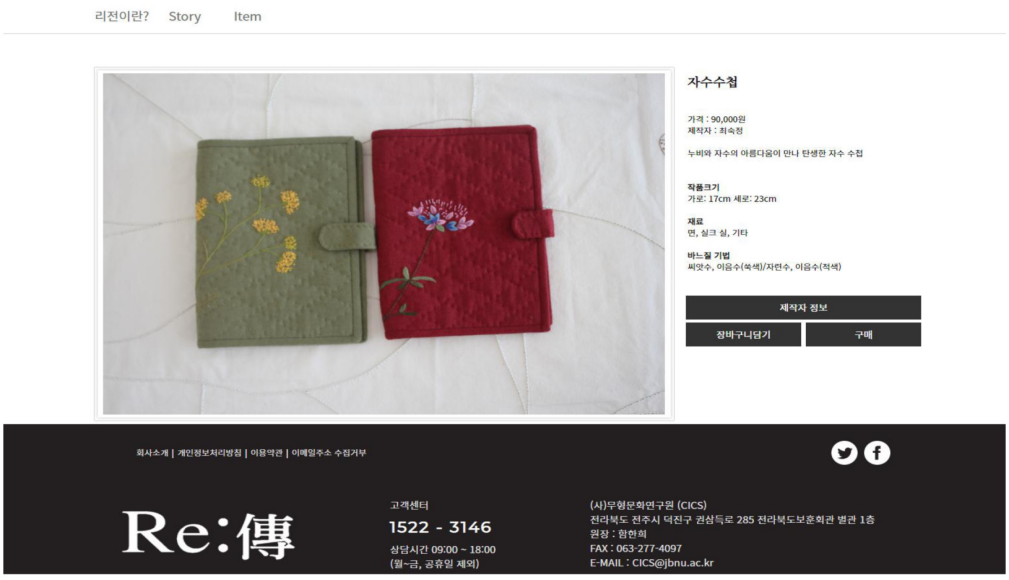
- 마인드마이닝 자료수집
- 이야기 Lab:상품화
- 교육:무형유산 전승자 유지
- 무형유산 디지털큐레이션
- 국민참여 공연/전시/판매

무형유산 콘텐츠 생산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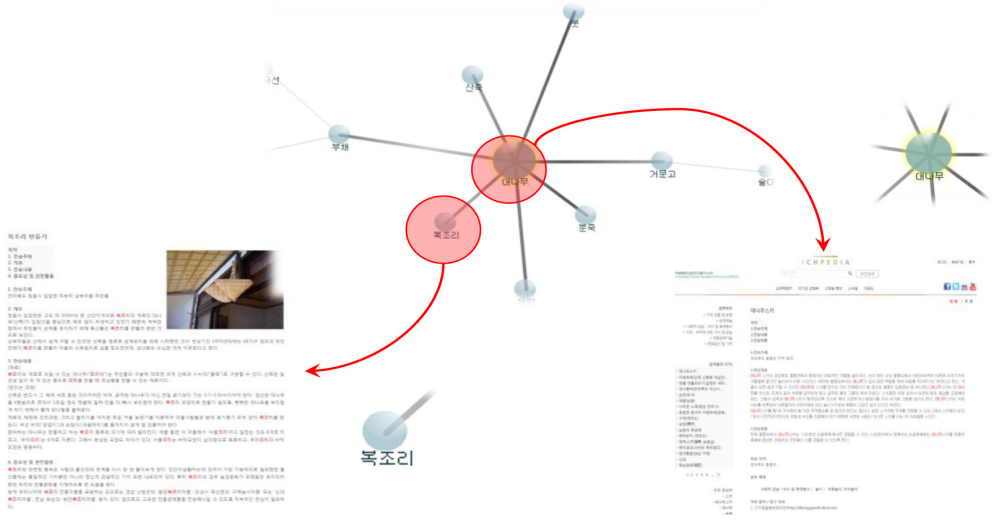
UNESCO ICH NGO의 공식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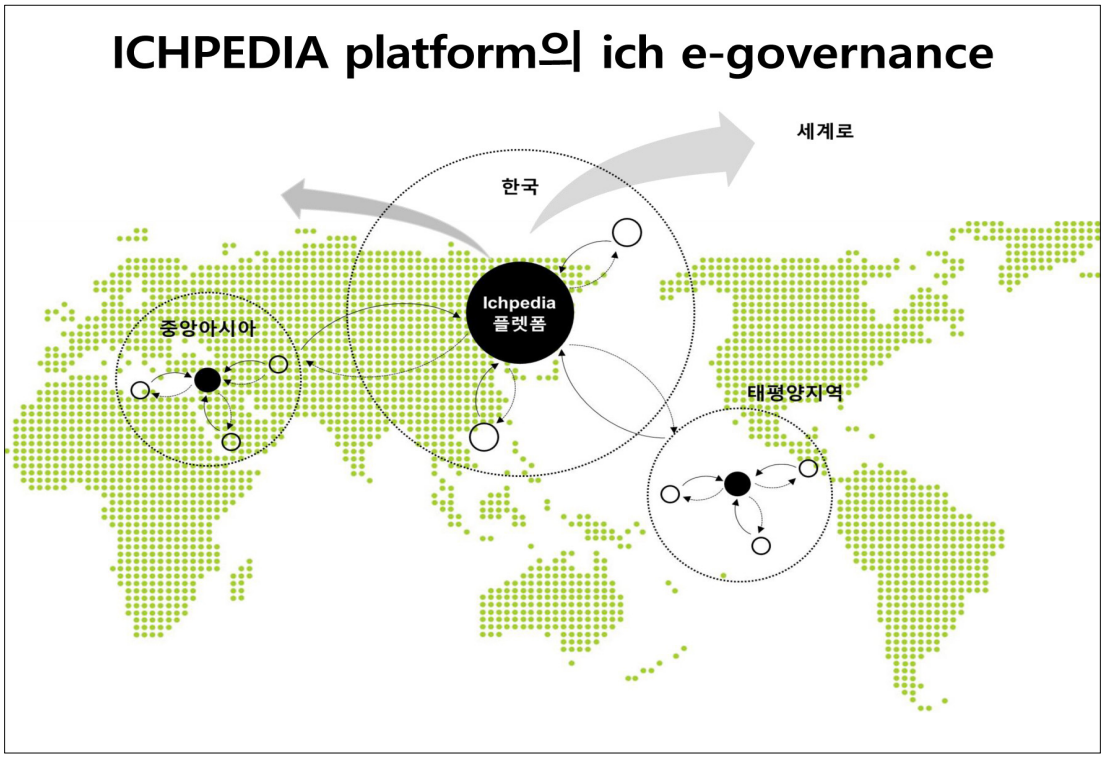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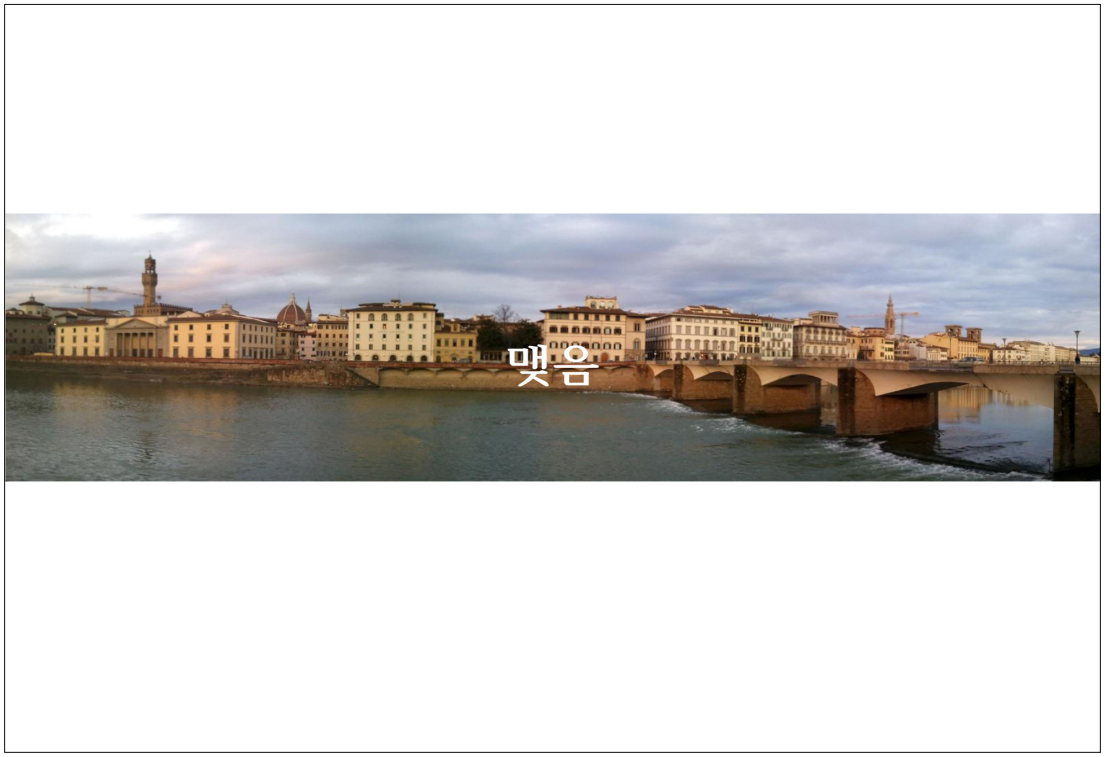
장인들의 쇼핑몰: Rejeon



무형문화 온톨로지




ICHPEDIA platform의 ich e-governance
세계로
한국
Ichpedia
플랫폼
중앙아시아
태평양지역


맺음

1. 민속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2. 민속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치피디아와 민속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토론문

윤 동 환 (전북대학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구술 전승 관련 무형유산의 자료적 가치를 제고하고, 축적된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보전을 위한 자료수집과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박순철선생님의 발표는 시의적절합니다.

박순철선생님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시고, 인문학과 IT를 융합한 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제공하였습니다. 2002년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을 통한 한국 근현대사의 재구성' 사업을 시작으로, 무형유산지식백과의 성격을 가진 ICHpedia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무형유산지식백과 운영뿐만 아니라 국제적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유네스코에서 공식인정한 ICHNGO.NET의 설계 · 운영, 미얀마 문화유산 자료구축을 위한 ODA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박순철선생님의 진지한 고민에 미치지 못하는 IT분야의 문외한이기는 하나, 어깨너머로 접한 경험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관이나 단체에서 '무형유산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을 강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국가 또는 지자체, 전문기관의 경우 아카이브 토대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관·단체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정작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래된 창고에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몇몇 아카이브스(Archives)를 제외하고 정체되어있거나 폐쇄 직전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자료 구축에만 신경을 썼지, 이후 활용에 대한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까지 경험하신 바를 바탕으로 아카이브의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에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2015년 UN의 SDGs에 발맞춰 한국형 SDGs(K-SDGs)의 구축과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나 NGO, 시민사회(지방의제21,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는 SDGs 네트워크(SDGs 시민넷)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SDG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 민간기업 · 지자체 · 정부 · 국회의 협력체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과 SDGs를 연계할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속 ·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이며,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때문이다."라는 선생님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토론자가 우둔하여 오독한 점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며, 토론자의 우문에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발표 2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전망

김 종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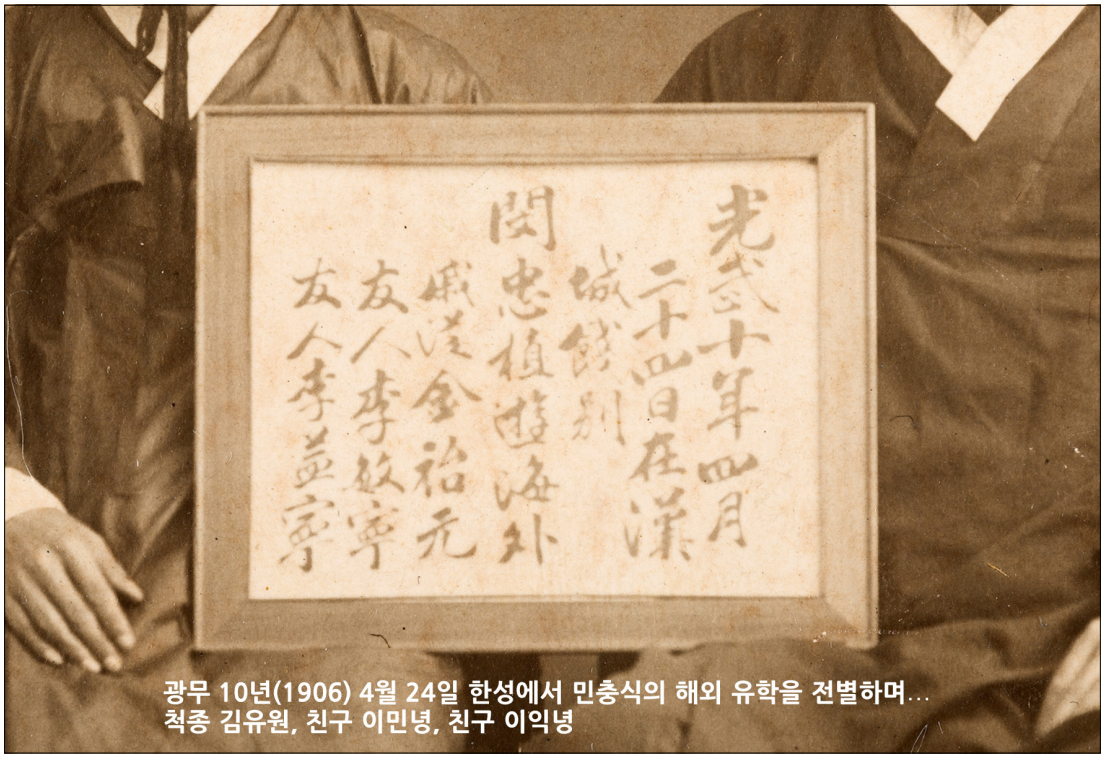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장)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전망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국립민속박물관 김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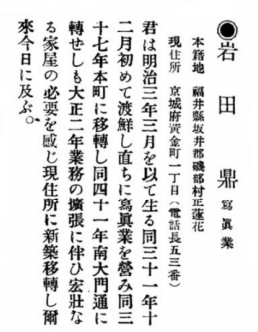
2019.11.15(금)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한성에서 민충식의 해외 유학을 전별하며…
척종 김유원, 친구 이민녕, 친구 이익녕





◉岩 田 鼎 寫眞業

本籍地 福井縣坂井郡磯部村正蓮花
現住所 京城府黃金町一丁目（電話長五三番）

君は明治三年三月を以て生る同三十一年十二月初めて渡鮮し直ちに寫眞業を營み同三十七年本町に移轉し同四十一年南大門通に轉せしも大正二年業務の擴張に伴ひ宏壯なる家屋の必要を感じ現住所に新築移轉し爾來今日に及ぶ。

조선중앙경제회, 1922,『경성시민명감』



謹賀新年
生影館寫眞師岩田鼎
生影館寫眞鏡告

太館技師ヲ東京寫眞師丸木利陽氏ニ聘シ其術ヲ傳習セシメ且ツ其術ヲ以テ有ラユル勤務ヲ盡スノ外寫眞機ハ獨逸ノ新型寫眞機ヲ購入シ其他諸般ノ設備ヲ新ニシ特ニ美術的寫眞ヲ撮影スルノ目的ヲ以テ

○引延寫眞 ○着色寫眞 ○玉板寫眞 ○白金紙寫眞 其他諸般ノ寫眞ニ有ラユル新型ヲ應用シ

生影館寫眞師岩田鼎謹告

황성신문 1902.01.07

岩田鼎 Iwata Kanae, 1870生

1898 한국에 들어와 생영관 사진사로 활동
1904 本町 충무로
1906 37세, 민충식 전별 기념 사진촬영
1908 南大門通 남대문로
1913 黃金町一丁目 을지로 1가



소장 유물 소개



기념사진 1906년 4월 24일, 세로 9.6, 가로 13.4cm, 민속 29016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찍는 사진을 기념사진이라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백 번째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백일기념사진, 학창시절에 소풍을 가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담은 소풍기념사진, 부모님의 회갑을 맞이하여 가족 모두가 모여 장수의 기원을 담은 회갑기념사진 등이 있다. 우리는 촬영한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이 담긴 여러 종류의 기념사진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거나, 자신이 촬영 대상이 된 경험을 한두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사진은 1906년 4월 24일 민충식(閔忠植)이라는 사람이 해외 유학을 떠나기 전에 친구들과 기념으로 충무로에 위치한 이와타 사진관에서 촬영한 것이다. 두터운 매트지(세로 12.5 가로 18.2㎝) 가운데에 사진을 붙였으며, 사진 주변으로 두 줄의 테두리 선을 넣어 윈도우 매트처럼 액자 속에 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대부분의 기념사진들은 인화할 때 관련된 문구를 사진의 상단이나 하단에 새겨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진에서는 가운데 두 사람이 무릎 위에 "광무 10년(1906년) 4월 24일 한성에서 민충식의 해외 유학을 떠나 보내며... 척종 김유원, 친구 이민녕, 친구 이익녕[光武 十年 四月 二十四日 在漢城 餞別閔忠植遊海外 戚從金裕元 友人李敏寧 友人李益寧]"라는 기념 문구를 써넣은 액자를 들고 촬영한 것이 이색적이다. 사진에서 오른쪽 끝에 안경을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세 사람과 달리 서양식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민충식, 그 옆으로 김유원, 이민녕, 이익녕이 차례로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의 오른쪽에는 "韓國京城 岩田鼎"이라는 글자와 이를 영문으로 표기한 "K. Iwata SEOUL COREA"가 적혀있는데, 이와타 카나에[岩田鼎, Iwata Kanae]는 이 사진을 촬영한 사진사이며, 같은 지역을 두고 한성(漢城), 경성(京城), SEOUL로 달리 부르고 있는 시대적 특징도 엿볼 수 있다. 조선중앙경제회에서 1922년에 발간한 『경성시민명감(京城市民名鑑)』에 의하면, 그는 1898년 12월에 한국으로 건너와 사진업에 종사하다가, 1904년에 본정(本町, 현재 충무로)으로 옮기고, 1908년에 다시 남대문통(南大門通)으로 옮겼으며, 1913년에는 황금정(黃金町, 현재 을지로)에 사진관 건물을 새롭게 짓고 이전하였다. 그런데 『황성신문』 1902년 1월 7일자를 시작으로 1903년 12월 25일자까지 실린 신문광고에 의하면, 그는 무라카치 코지로[村上幸次郎]가 운영하던 생영관(生營館)의 사진사로 소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와타 카나에는 자신의 사진관을 경영하면서, 1902~1903년 전후시기에는 생영관의 사진사로도 고용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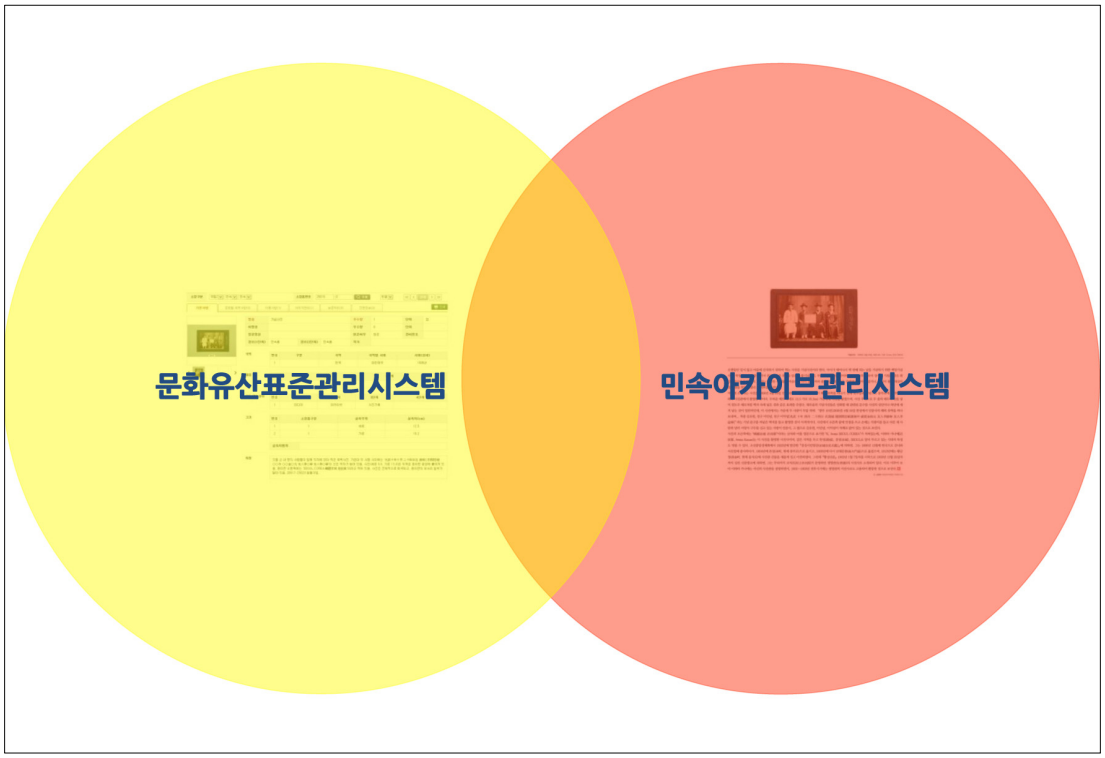
글. 김종태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방망이 깍는 노인(석남987), 1930년대



젓가락 만드는 데서부터 옷 다듬이 방망이까지(사진첩, 민속29265), 1906-190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2007.05.08

2000.05	원로 민속학자·문화재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속기록보존소” 건립 건의
2000.08.23	“민속기록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발표회 개최
2001-2004	민속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2005	민속아카이브 구축 예산(2006-2010, 25억) 및 인력 확보
2006	민속아카이브실과 수장고 마련
2006-2007	외부 전문가 초청 민속아카이브 구축 포럼 개최(6차)
2007.05.0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개소
2008 ·2010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시스템 개발 및 개선(CS 기반)
2015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시스템 재개발(웹 기반)
2016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시스템 외부 기간 배포용 개발 및 매뉴얼 발간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소장현황

2018.12.31 생산 510,996 기증 448,257 구입 593, 서비스 106,820점_등록 수량(346,299점)의 31%

자료유형	등록	미등록	계(점)
사진	342,706	585,655	928,361
음성	1,398	5,730	7,128
동영상	1,360	8,688	10,048
기타	835	13,474	14,309
계	**346,299**	613,547	**959,846**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운영규정

수집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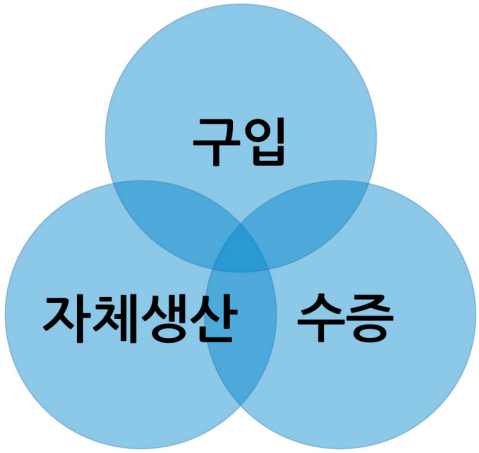
What?

"아카이브자료"는 **국내외 생활문화** 등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업무 및 직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여, 열람, 복제 등 대국민서비스 강화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운영규정

수집방법



관내 사업 결과물 → 아카이브 이관

자체생산

유물과학과	기획·기증 전시	• 도록 수록 사진, 전시장·개막식·행사 사진 • 전시 활용 영상 및 음원, 전시장 영상 • 도록, 리플릿, 초청장,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배너, 차량 래핑 등 인쇄물 • 전시그래픽 • 기획안 등
	자료집	• 자료집 수록 사진
	영상채널	• 영상채널 수록 영상
	보존	• 보존 업무 관련 사진 및 영상
어린이박물관과	상설·특별·솜씨 전시	• 도록 수록 사진, 전시장·개막식·행사 사진 • 전시 활용 영상 및 음원, 전시장 영상 • 도록, 리플릿, 초청장,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배너, 차량 래핑 등 인쇄물 • 전시그래픽 • 기획안 등
	교육	• 교육 현장 사진 및 영상 • 동화, 교재, 활동지, 스티커, 카드 등 교육 활동자료 (사진, 음원, 영상, 문서류 포함)

섭외교육과	교육	• 교육 현장 사진 및 영상
	행사	• 행사 현장 사진 및 영상
	업무협약	• 업무협약서 및 관련 서류, 사진 등
전시운영과	기획·기증·순회 전시	• 도록 수록 사진, 전시장·개막식·행사 사진 • 전시 활용 영상 및 음원, 전시장 영상 • 도록, 리플릿, 초청장,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배너, 차량 래핑 등 인쇄물 • 전시그래픽 • 기획안 등
민속연구과	조사 사업	• 조사 현장 사진, 영상, 음원 (직원 촬영 자료, 작가 촬영 자료, 외부 제공 자료 등으로 구분)
	사전 사업	• 사전 수록 사진, 영상, 음원 (관내 소장 자료, 필자 제공 및 구입 자료, 작가 촬영 자료, 타기관 복제 자료 등으로 구분)

하피첩,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

자체생산

余在耽[1]津謫中, 病妻寄敝裙五幅, 蓋其嫁時之緗裳。
紅已淀面黃亦淡, 政中書本。遂剪裁爲小帖,
隨手作戒語, 以遺二子。
庶幾異日覽書興懷, 挹二親之芳澤, 不能不油然感發也。
名之曰霞帔帖, 是乃紅裙之轉語也。



① 耽: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하피첩(題霞帔帖)」에는 '湛'으로 되어 있다.
② 霞披: "여유당전서」, "제하피첩」에는 두 자가 없다.

서사

내가 탐진(耽津)에 유배 중인데, 병든 아내가 남은 치마 다섯 폭을 부쳤다. 시집을 때 입었던 훈염(纁衽, 검은에복)이다. 홍색은 바래고 황색도 엷어져서, 서첩으로 만들기에 꼭 맞다. 이에 재단하여 작은 첩을 만들어, 경계하는 말을 붓 가는 대로 써서 두 아들에게 물려준다. 앞날에 이 글을 보고 감회가 일어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을 접하면, 무럭무럭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름을 '하피첩(霞帔帖)'이라고 한 것은 '붉은 치마'라는 말을 숨기고 바꾼 것이다.

가경(嘉慶) 경오년(1810) 7월[首秋] 다산(茶山)의 동암(東菴)에서 쓰다. 탁용(籜翁).[3]



③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詩文集) 제14권에 "제하피첩」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첩 머리에 "하피첩」의 사연을 선명으로 썼다. "붉은 치마(紅裙)"라는 말을 차마 제목으로 쓸 수 없어 "하피첩(霞帔帖)"이라는 말로 바꾸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피霞帔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복식으로 여자들이 어깨에 걸치는 숄 비슷한 천이다.

삶의 또 다른 모습, 인형

자체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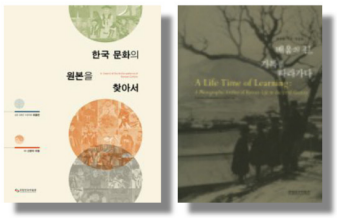


청바지



기증 의뢰 → 수집위원회 → 수증

수증



대학교수
김태곤, 강신표
장주근, 임동권, 정상박, 김영진, 최래옥, 김인회



사진작가
김수남, 후지모토 다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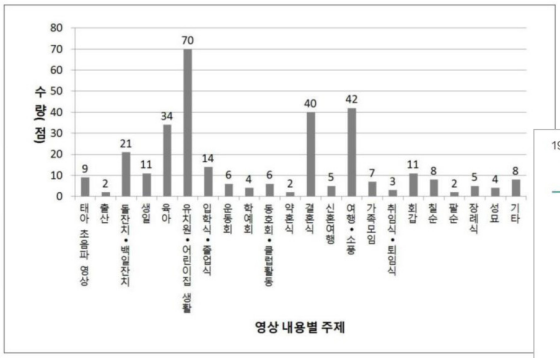
일반인
김언석, 찰스 버스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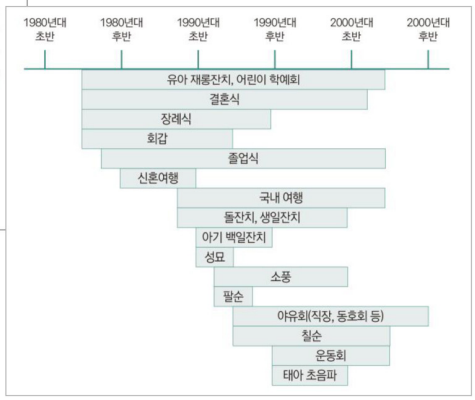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 2017-2018 홈 비디오 공개 수집

2017년 314점, 2018년 19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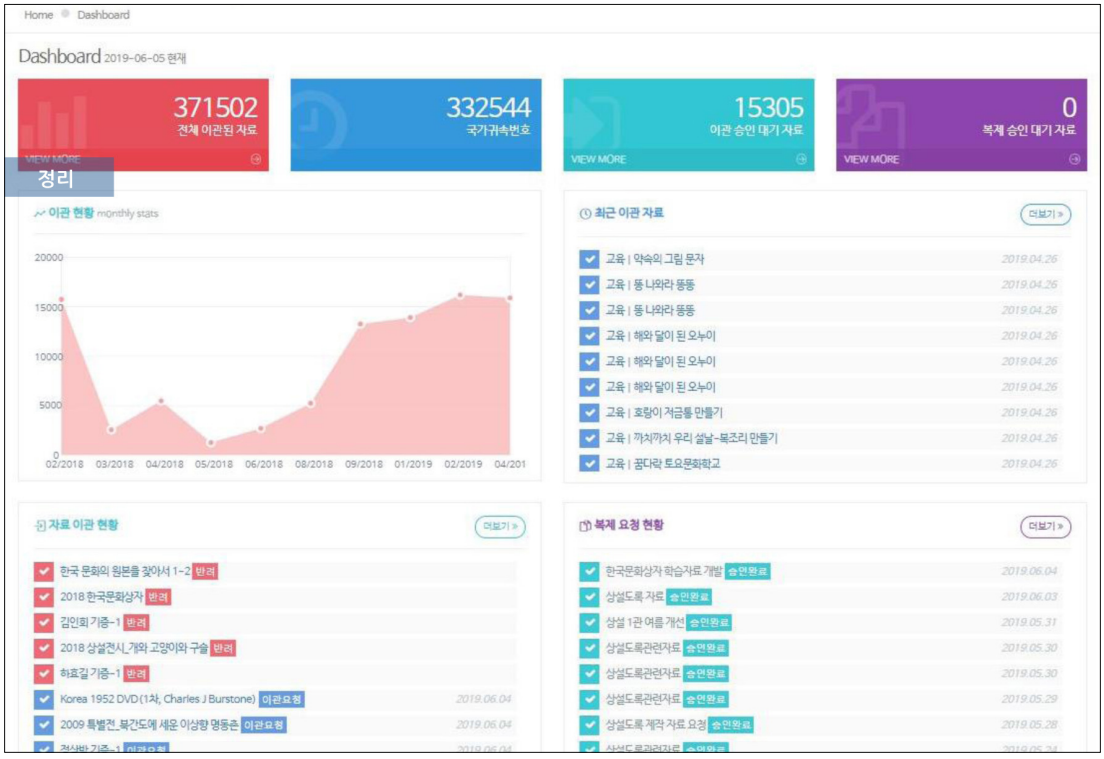
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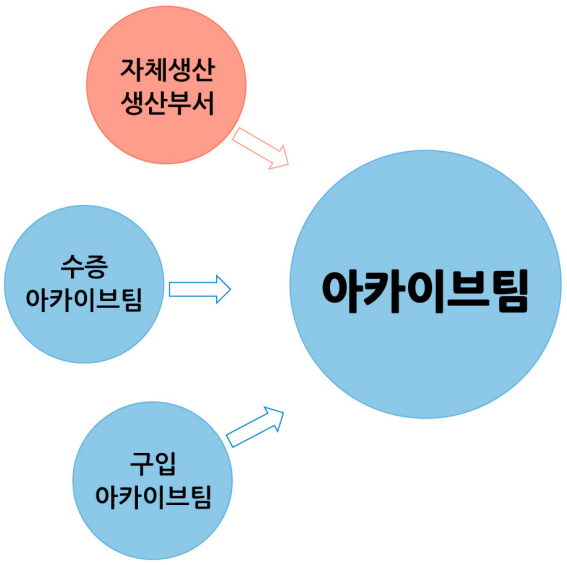
최승빈·황기준, 2017, 「1980~2000년대 홈 비디오를 통해 본 현대인의 영상기록」, 『생활문물연구』 33

정리



아카이브자료 정리 절차

정리



아카이브자료 가등록 필수 항목

정리

기술영역		정의 및 범위	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코드	자료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코드	아카이브번호
			가등록번호
	명칭	자료의 정체성·내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여하는 제목	명칭
			이명칭
			외국어명칭
			한자명칭
			원어명칭
	기술계층	자료 분류에 따른 기술 단위 정보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연도
	자료의 규모와 매체	자료의 유형·원본 형태·수량·크기에 관한 정보	자료유형
			수량
			원본형태
			원본크기
배경영역	일자	자료가 생산되거나 축적된 시점	일자
			일자유형
	생산자	촬영자·제작자·창작자·발행자 등 자료를 생산·축적·유지하는데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	생산자
			주소
	생산지	자료가 생산된 지역·장소와 관련된 정보	국적
			위도·경도
	수집 출처	자료의 수집방법·일자·수집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수 정보	입수구분
			입수일자
			입수금액
			입수처
			입수전화번호
			입수주소

기술영역		정의 및 범위	기술요소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자료의 내용·주제·유형 등에 대한 정보	설명
			웹설명
			용도기능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열람 조건	자료 접근에 대한 제한이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정보	저작권 정보
	재생산 조건	출판·전시 등 자료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웹서비스 공개여부
연관자료 영역	관련 기술단위	해당 자료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연관 정보	소장품 번호
기술통제 영역	아키비스트 주기	자료의 가등록·정리 등을 담당한 인물 정보	작성자
			정리자
			최종수정자
	기술일자	자료를 등록·기술·수정한 시점	작성일
			이관신청일
			이관완료일
	기술상태	자료의 기술 상태 및 보관처 정보	자료상태
			국가귀속 여부
			국가귀속일
			원본보관처

아카이브자료 가등록 예시

정리

		자료 영역	기술통제 영역	
식별정보	가등록번호 아카이브번호	2015-151-00000001	자료상태 국가귀속 여부 국가귀속일 원본보관처	전체공개 NO
	명칭 이명칭 외국어명칭 한자명칭 원어명칭	<한국의 굿> 황해도 내림굿-산맞이굿	작성자 정리자 최종수정자	김소희
	자료유형 원본형태 수량 크기	사진 인화 1 가로 3.8 cm 세로 3.5 cm	작성일 이관신청일 이관완료일	2016.05.24.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연도	수집 김상훈 기증(김수남 촬영) 2015		
배경정보	일자 일자유형	1981.06.23. 연도일치		
	생산자	김수남		
	주소 국적 위도, 경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대한민국		
	입수구분 입수일자 입수금액 입수처 입수전화번호 입수주소	기증 2013.10.05. 0원 김상훈		
내용과 구조	설명 웹서비스 설명	채희아가 내림굿을 받기위해 정성을 올리는 모습. "81.6.23 서울 이문동 김금화씨댁과 정능 청수장 영산 선바위 萬神 탄생, 신어머니 김금화 신딸 채희아 산신맞이 신청올림"으로 기록됨. <국립민속박물관 스캔본(우), 서헌강보정본(가운데), 네이버 스캔본(좌)>. (『황해도 내림굿』, 1983, 18쪽)에 수록. 35mm 흑백필름.		
	용도기능	종교신앙-민간신앙-무속신앙		
열람정보	저작권 정보	YES		
	웹서비스 공개여부	YES		
연관자료	소장품 번호			

		자료 영역	기술통제 영역	
식별정보	가등록번호 아카이브번호	2013-851-00000247	자료상태 국가귀속 여부 국가귀속일 원본보관처	전체공개 NO
	명칭 이명칭 외국어명칭 한자명칭 원어명칭	오방신장무신도(五方神將巫神圖) Shamanic Painting of Guardian Spirits of the All Directions 五方神將巫神圖	작성자 정리자 최종수정자	최효경
	자료유형 원본형태 수량 크기	사진 디지털 1 가로 3356 pixels 세로 5265 pixels	작성일 이관신청일 이관완료일	2016.06.23.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연도	전시 (경남민속문화의 해) 끈질긴 삶과 신명, 경상남도 2012		
배경정보	일자 일자유형	2013.03.29. 연도일치		
	생산자	최호식(사진작가)		
	주소 국적 위도, 경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길 37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입수구분 입수일자 입수금액 입수처 입수전화번호 입수주소	자체생산 2013.05.31. 0원 전시운영과		
내용과 구조	설명 웹서비스 설명	《끈질긴 삶과 신명, 경상남도》, 국립민속박물관, 2013, 171쪽)에 수록.		
	용도기능	종교신앙-민간신앙-무속신앙		
열람정보	저작권 정보	YES		
	웹서비스 공개여부	YES		
연관자료	소장품 번호	45463		

아카이브자료 가등록 예시

정리

이관요청자료 목록

자료 검색 | 검색 | 선택삭제 | 일괄수정 | 전체선택

번호	등록번호	명칭	대표이미지	수량	자료유형	원본형태	생산일	생산일자구분	주소-특별시/도	주소-시/군/구	주소-상세주소	생산자	전체
1	2013-105-00000001	통영 삼덕리제당 목마		1	사진	필름	19580100	연도일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정상박	
2	2013-105-00000002	통영 삼덕리제당 목마		1	사진	필름	19580100	연도일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정상박	
3	2013-105-00000003	통영 삼덕리제당 목마		1	사진	필름	19580100	연도일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정상박	
4	2013-105-00000004	정상박 선생 결혼식		1	사진	필름	19671000	연도일치	부산시	중구	남포동 서울예식장	정상박	
5	2013-105-00000005	정상박 선생 결혼식		1	사진	필름	19671000	연도일치	부산시	중구	남포동 서울예식장	정상박	
6	2013-105-00000006	정상박 선생 결혼식		1	사진	필름	19671000	연도일치	부산시	중구	남포동 서울예식장	정상박	
7	2013-105-00000007	정상박 선생 결혼식		1	사진	필름	19671000	연도일치	부산시	중구	남포동 서울예식장	정상박	
8	2013-105-00000008	정상박 선생 결혼식		1	사진	필름	19671000	연도일치	부산시	중구	남포동 서울예식장	정상박	
9	2013-105-00000009	정상박 선생 결혼식		1	사진	필름	19671000	연도일치	부산시	중구	남포동 서울예식장	정상박	
10	2013-105-00000010	정상박 선생 결혼식		1	사진	필름	19671000	연도일치	부산시	중구	남포동 서울예식장	정상박	

아카이브자료 웹서비스 항목

정리

기술영역		정의 및 범위	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코드	자료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코드	아카이브번호
			가등록번호
	명칭	자료의 정체성·내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여하는 제목	명칭
			이명칭
			외국어명칭
			한자명칭
			원어명칭
	기술계층	자료 분류에 따른 기술 단위 정보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연도
	자료의 규모와 매체	자료의 유형·원본 형태·수량·크기에 관한 정보	자료유형
			수량
			원본형태
			원본크기
배경영역	일자	자료가 생산되거나 축적된 시점	일자
			일자유형
	생산자	촬영자·제작자·창작자·발행자 등 자료를 생산·축적·유지하는데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	생산자
	생산지	자료가 생산된 지역·장소와 관련된 정보	주소
			국적
			위도·경도
	수집 출처	자료의 수집방법·일자·수집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수 정보	입수구분
			입수일자
			입수금액
			입수처
			입수전화번호
			입수주소

기술영역		정의 및 범위	기술요소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자료의 내용·주제·유형 등에 대한 정보	설명
			템설명
			용도기능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열람 조건	자료 접근에 대한 제한이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정보	저작권 정보
	재생산 조건	출판·전시 등 자료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웹서비스 공개여부
연관자료 영역	관련 기술단위	해당 자료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연관 정보	소장품 번호
기술통제 영역	아키비스트 주기	자료의 가등록·정리 등을 담당한 인물 정보	작성자
			정리자
			최종수정자
	기술일자	자료를 등록·기술·수정한 시점	작성일
			이관신청일
			이관완료일
	기술상태	자료의 기술 상태 및 보관처 정보	자료상태
			국가귀속 여부
			국가귀속일
			원본보관처

사용자 영역 - 항목 추가

아카이브자료 분류 항목 _ 용도기능

정리

용도기능

대	중	소
의생활	관모	관
		립
		건
		모
		관식
		입식
		서양모
		쓰개
		관모기타
	의류	궁중복
		백관복
		평상복
		종교복
		의례복
		서양복
		본
		내의
		악무복
		부분품
		의류기타
	대,구	대
		구
		대,구기타
	신발	화
		혜,리
		서양화
		신발기타
	장신구	신체장식
		의복장식
		장신구기타
	관,복합	관,복합
		관,복합기타
	의생활관련도서	문서
		의생활관련도서기타
	의생활기타	의생활분류기타

대	중	소
식생활	음식기	음식
		반상
		저장운반
		음식기기타
	취사	취사
		취사기타
	가공	가공
		가공기타
	식생활관련도서	조리서
		주서
		식생활관련도서기타
	식생활기타	설거지
		급수
		건조,보관
		식생활분류기타
주생활	건축물	공원건축
		관아건축
		사원건축
		서원건축
		일반건축
		마을제당
		향교건축
		정자건축
		교량
		건축물기타
	건축부재	지붕재
		공조부재
		벽,바닥재
		장식부재
		기초부재
		배관설비
		건축부재기타
	생활용품	가구
		침구

아카이브자료 분류 항목 _ 사업유형

정리

▶ 사업유형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요소로서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한다.

소장품 / 전시 / 조사 / 학술회의 / 교육 / 행사 / 수집 / 보존 / 아카이브 / 기타

예시_사업유형별 사업명

- 소장품
  - 복식
  - 발전
  - 공주 이응배 소장유물
  - 구례 운조루 유물소장
- 전시
  - 우리의 오랜 친구, 개
  - 한국의 문화이미지
  - 생활 속에 담긴 우리 옷의 발자취
  - 수복, 장수를 바라는 마음
- 조사
  - 청양 정산동헤재 조사
  - 경주 감포 내림굿 조사
  - 까자흐스딴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이천시 장례 조사
  - 파주 파평윤씨 한식시제 조사
- 학술회의
  - 국립민속박물관의 역사와 과제
  - 학술세미나 및 한국의 농경세시 기록영화 시사회
- 교육
  - 전문인력 양성교육
- 행사
  - 전남우도 농악놀이
  - 쌀과 김치 그 어울림의 한마당
  - 삼짇날 맞이 전통음식 큰잔치 행사
- 수집
  - 평산 소놀음굿(정수미 구입)
  - 단오행사(최호식 구입)
  - 김대벽 구입(세시, 놀이, 신앙)
- 보존
  - 마주보는 공간 경상과 서안
- 기타
  - 경기도 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 매듭장(국립문화재연구소)
  - 문방사우 학술조사(벼루제작과정)

아카이브자료 분류 항목 _ 자료유형, 원본형태, 사업명, 생산자

정리

▶ 자료유형

√자료의 유형을 구분하는 요소로서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한다.

사진 / 영상 / 음원 / 기타

▶ 원본형태

√원본 자료의 형태를 구분하는 요소로 아래 열거된 용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한다.

필름 / 인화 / 테이프 / 디지털 / 레코드 / 종이 / 기타

▶ 사업명

√수증자료의 경우, 기증자명에 따라 작성한다.

예시
- 하효길 기증

√단, 기증자와 수집자가 다른 경우, 기증자의 이름을 기술하고 이어서 수집자명을 기술한다.

예시
- 손장연 기증(김태곤 수집)

√자체생산자료의 경우, 전시명·조사명·학술회의명·교육명·행사명 등 사업의 명칭을 기술한다.

예시
- 길에서 길을 만나다(2012)
- 연기 학봉마을, 세거리마을 기고사 및 정월대보름 풍속 조사
- 세시행사 설, 추석, 거북놀이(1999-2000)
- 학술세미나 및 한국의 농경세시 기록영화 시사회(2001-2002)
- 예천통명농요(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문인력 양성교육(2000-2002)

▶ 생산자

자체생산자료의 입수처

√아래 열거된 부서(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한다.

민속기획과 / 섭외교육과 / 전시운영과 / 민속연구과 / 어린이박물관과 / 유물과학과

아카이브자료 일자 항목 _ 일자, 일자유형

정리

| 일자

자료가 생산되거나 축적된 시점이다.
자료가 생산된 일자 또는 기록보존 행위의 일자와 유형을 기술한다.
일자의 기술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일자 / 일자유형

▶ 일자

√ 자료가 생산되거나 축적된 시점이다.
√ 일자에는 자료가 생산된 일자 또는 기록보존 행위의 일자를 기술한다.
√ 자료에 음력일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양력으로 환산한 일자를 일자에 기술하고 음력 일자는 설명에 기술한다.
√ 자료의 생산일자가 단일 연도로 나타날 경우, 연도·월·일자 등을 기술한다.

예시
- 1990.
- 2015.03.
- 2010.03.07.

√ 자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일자에 특정 일자(조사 시작일 등)를 기술하고, 설명에 포괄 일자(자료의 가장 초기 및 마지막 생산일자 등)를 기술한다.

예시
- 일자 : 1982.08.14.
- 설명 : 1982.08.14.~1982.08.15.

▶ 일자유형

√ 일자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연도일치 / 연대추정(10년 단위) / 세기추정(100년 단위) / 알 수 없음

민속 아카이브

정리



1940년대

동만노회 주최로 열린 규암 서거 1주년 추모 예배

촬영지역 중국
촬영일시 1943년 09월 10일

1940년대 더 보기



아카이브자료 생산지 항목 _ 주소

정리

| 생산지

자료가 생산된 지역,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기술한다.
생산지의 기술 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주소 / 국적 / 위도·경도

▶ 주소

√ 자료가 생산된 주소를 기술한다. 주소는 "특별·광역시·도 - 시군구 - 상세주소"의 3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한다. 최대한 알 수 있는 자연마을 단위까지 기술한다. 행정구역 개편, 주소체계 전환(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등의 이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자료가 생산된 시점의 주소를 기술한다.

예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길 37 국립민속박물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 한국족보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연관정보 항목 _ 소장품 번호

정리

▶ 소장품 번호

√ 자료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이 담겨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장품번호를 기술한다.
하나의 자료(사진)에 2점 이상의 소장품이 담겨 있는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민속자료인 경우, 번호만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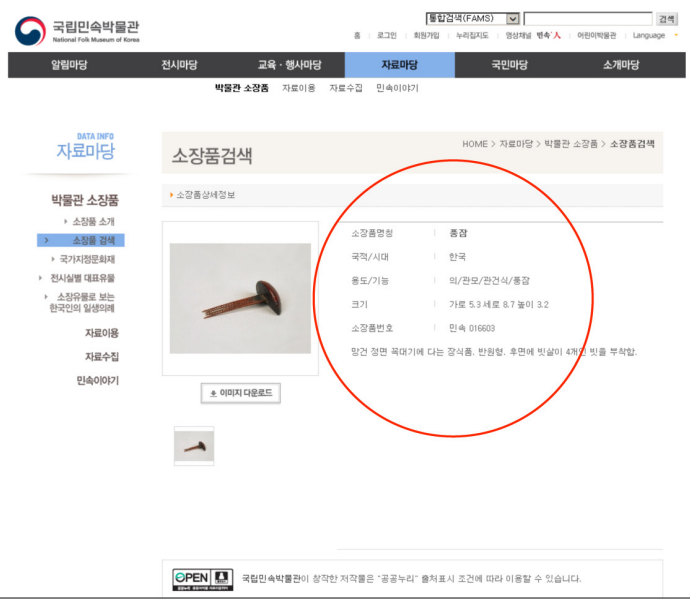
예시
- 30301

√ 민속 외 자료인 경우, 구분 값과 번호를 함께 기술한다.

예시
- 참고자료1234
- 석남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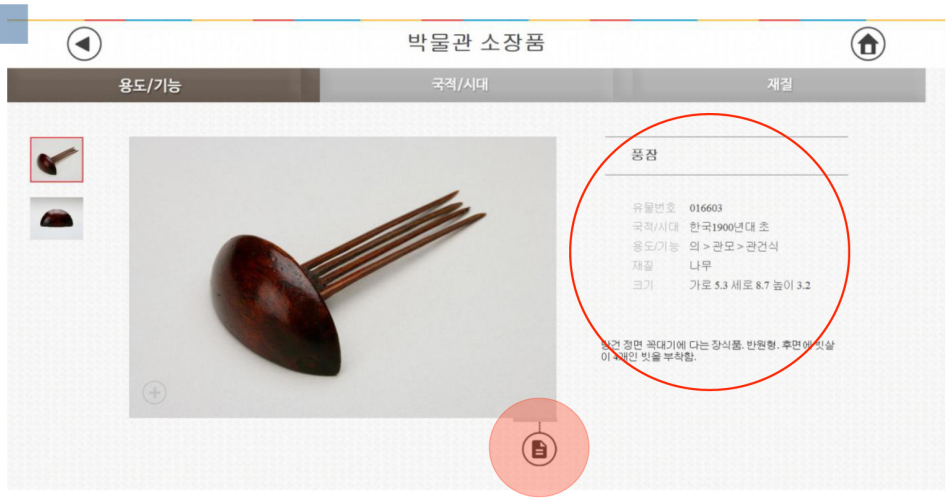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검색

정리



소장품과 민속아카이브자료의 연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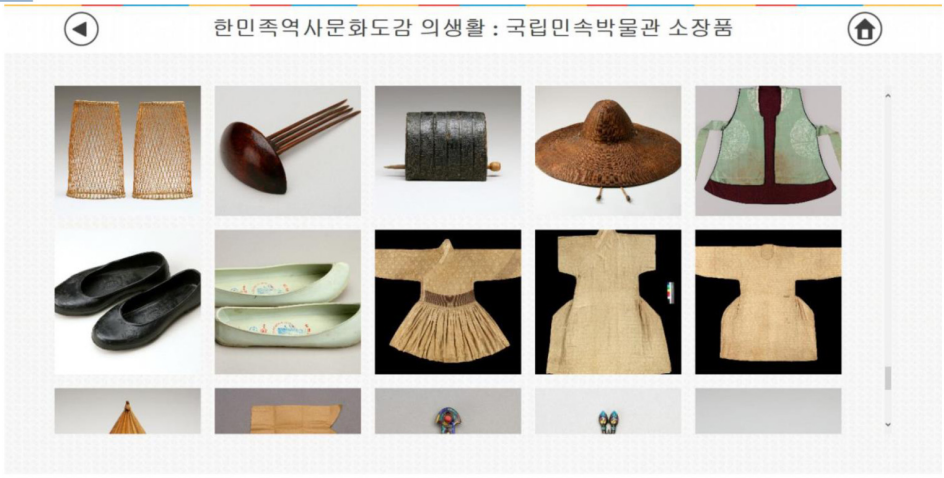
발간물과 민속아카이브자료의 연계

정리



발간물과 민속아카이브자료의 연계

정리



후지모토 다쿠미 _ 합천, 1970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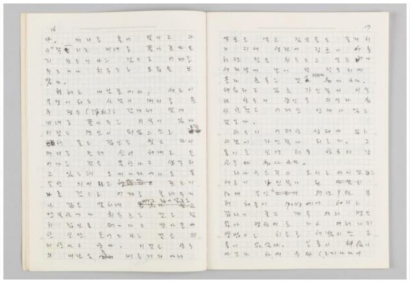
정리



김수남 사진자료 _ 발간물, 원고, 조사 노트 등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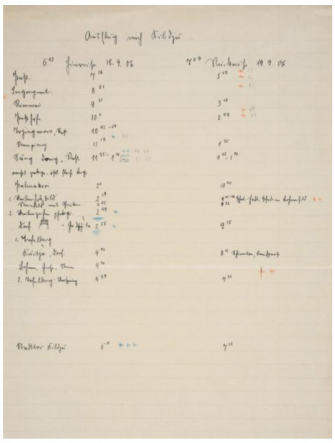




헤르만산더 사진자료 _ 1906.09.18 14시 50분 촬영, 길주 여정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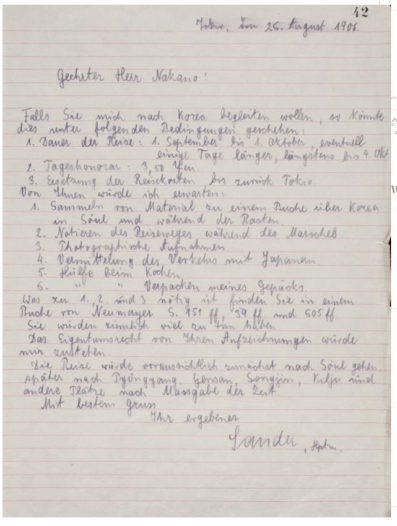
정리





저작권, 초상권, 사용권 등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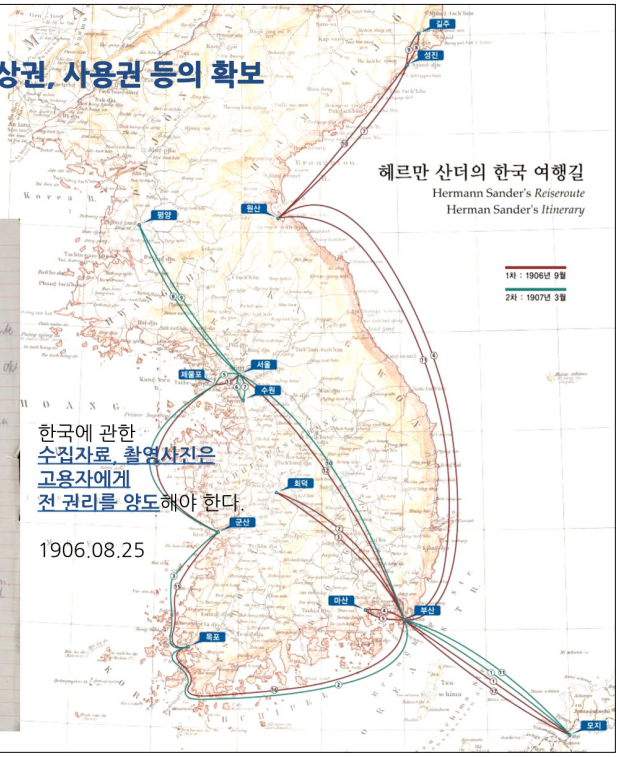
정리



Tokio, den 25. August 1906

Geehrter Herr Nakano!

Falls Sie mich nach Korea begleiten wollen, so könnte dies unter folgenden Bedingungen geschehen:
1. Dauer der Reise: 1. September bis 1. Oktober, eventuell einige Tage länger, längstens bis 9. Okt.
2. Tagehonorar: 9,50 Yen
3. Erstattung der Reisekosten bis zurück Tokio.
Von Ihnen würde ich erwarten:
1. Sammeln von Material zu einem Buche über Korea in Söul und während der Reise.
2. Notizen des Reiseweges während des Marsches.
3. Photographische Aufnahmen.
4. Vermittelung des Verkehrs mit Japanern.
5. Hülfe beim Kochen.
6. " " Verpacken meines Gepäcks.
Was zu 1., 2. und 3. nötig ist, finden Sie in meinem Buche von Neumayer S. 951 ff., 959 ff. und 605 ff.
Sie würden ziemlich viel zu tun haben.
Das Eigentumsrecht von Ihren Aufzeichnungen würde man erstatten.
Die Reise würde voraussichtlich zunächst nach Söul gehen, später nach Pjöngyang, Gensan, Songjin, Kulpo und andere Plätze nach Maßgabe der Zeit.
Mit besten Grüßen
Ihr ergebener
Sander, Hptm.



한국에 관한
수집자료, 촬영사진은
고용자에게
전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1906.08.25

저작권 정보 기술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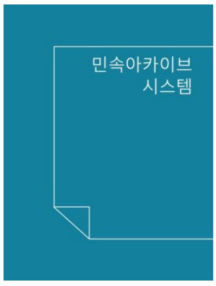
정리

구분		촬영자	저작권 귀속 내용	비고
소장품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소장품 자체의 저작권 보호기간(저자사후 70년)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관내사용 가능, 외부사용 불가		
		관내직원	저작권 귀속	
		외부작가	저작권 양도계약서 있을 경우, 저작권 귀속	
	타 박물관 소장	관내직원	저작권 귀속되지 않음	
		외부작가		
인물사진		관내직원	정보공개동의서(초상권자)를 받았을 경우, 저작권 귀속	초상권 :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된 사진
		외부작가	정보공개동의서(초상권자)를 받고 저작권 양도계약서 있을 경우, 저작권 귀속	
풍경사진		관내직원	저작권 귀속	
		외부작가	저작권 양도계약서 있을 경우, 저작권 귀속	
구입사진		저작권 양도계약서 있을 경우, 저작권 귀속		

※ 외부필진, 외부작가, 구입 등의 경우 모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한한다.
※ 사진 자료의 경우, 피사체 자체(유물, 건축물 등)의 저작권 보호기간(저자사후 70년)이 완료된 자료에 한한다.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

정리지침







문화 > 문화일반

박물관들이여, 나를 따르라…'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

신동립 기자 | reap@newsis.com

등록 2017-02-16 10:49:41

[서울=뉴시스]신동립 기자 =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이 나왔다.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표준화를 위한 것이다. 민속아카이브 자료 수집에서부터 정리, 활용, 보존에 이르는 자료 관리의 전 과정을 담았다.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민속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구조를 아카이브 국제 표준인 ISAD에 준용해 개조했다. 용부한 예시를 실어 메타데이터를 기술(記述)했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민속학 분야의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007년 5월 개소했다. 당시 20만점이던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연구 활동의 결과물과 민속학자들의 자료 기증을 통해 80만여점으로 늘었다. 이들 자료는 국내외 민속학 연구에 활용돼 한국의 민속과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전시, 저술, 영상물 등으로 재생산됐다.

민속아카이브시스템은 2009년 개발됐다. 고도화 작업을 거쳐 지난해 새로운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사진, 영상, 음원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민속 문화를 다루는 다른 박물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을 통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아카이브 자료관리 시스템 배포 및 교육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박물관에서 일상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민속생활사 아카이브로 모으는 것이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관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아카이브를 처음 시작하는 박물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물관계 아카이브에 범용적 메타데이터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공유 요구에 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ap@newsi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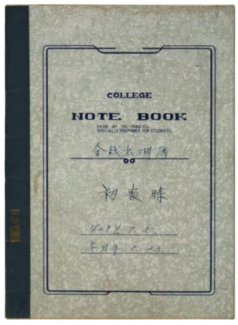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 따뜻한 이별의 기억 _ 전시 / 자료집

활용



김흥태(1885-1961) - 박광숙(1887-1969)







박물관 업무 및 직원들의 역량제고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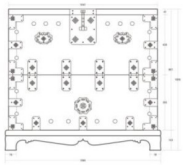


박물관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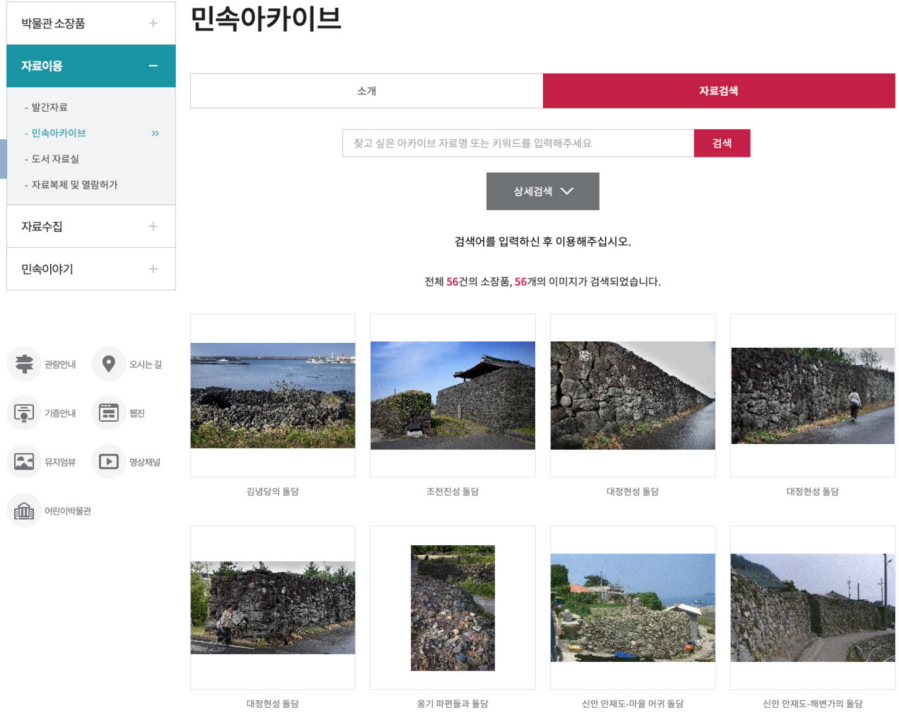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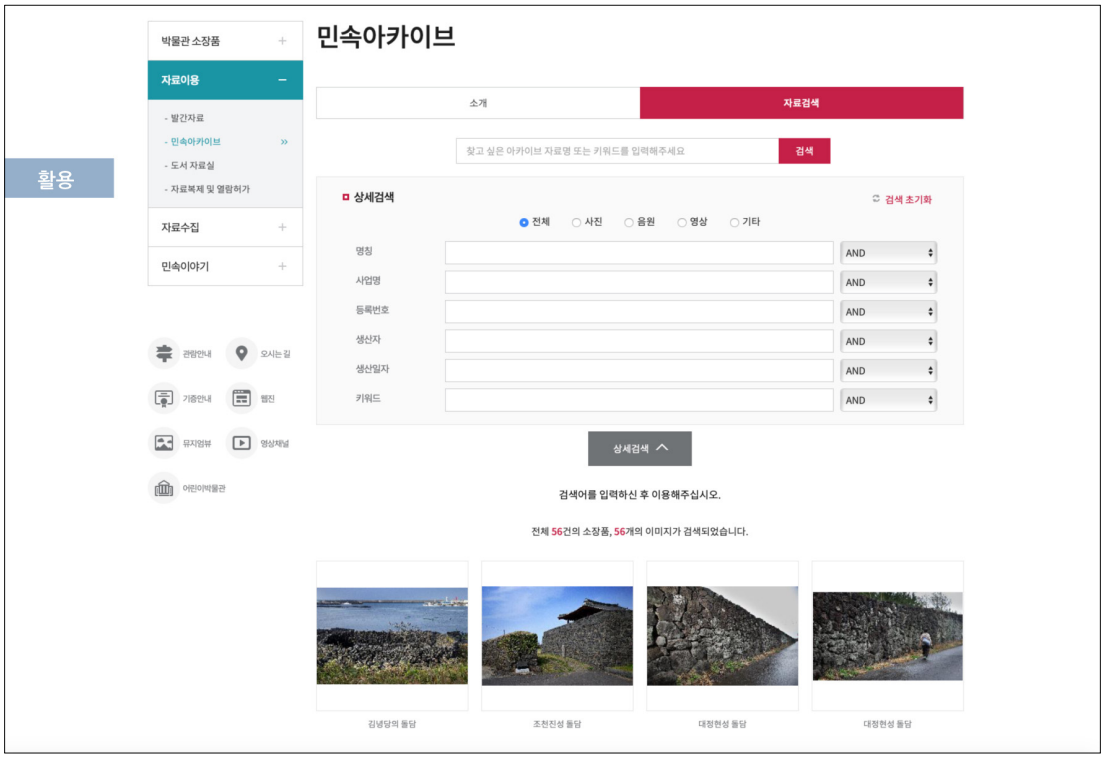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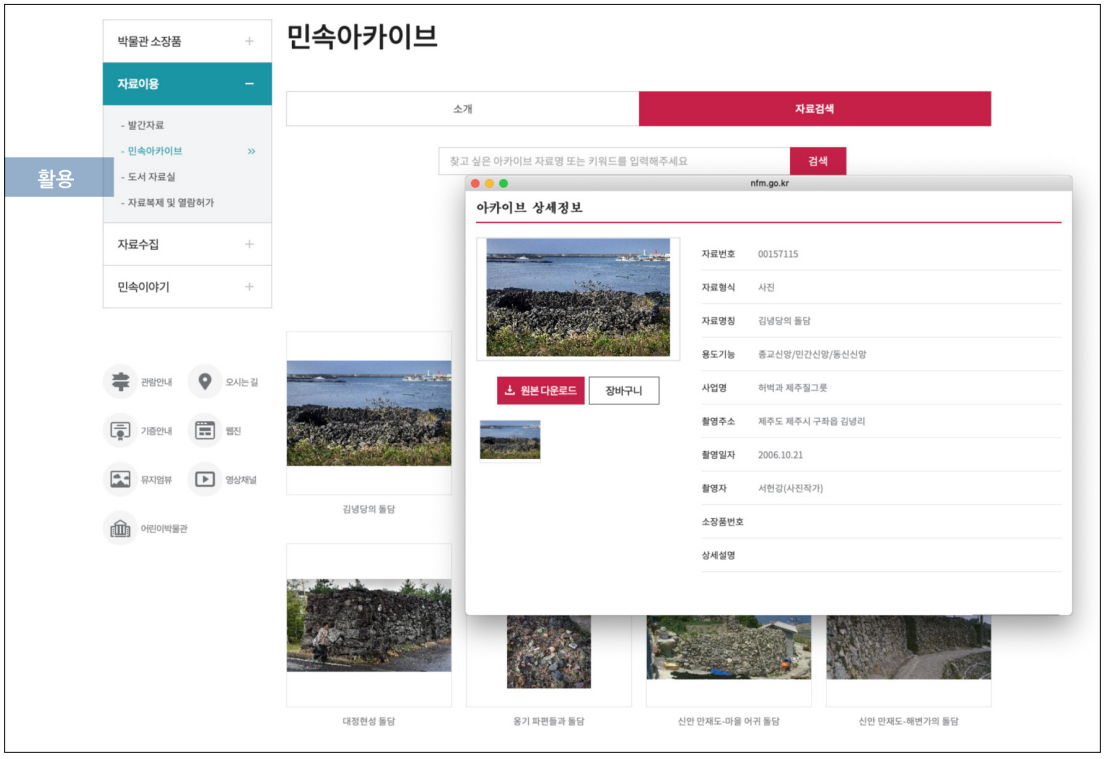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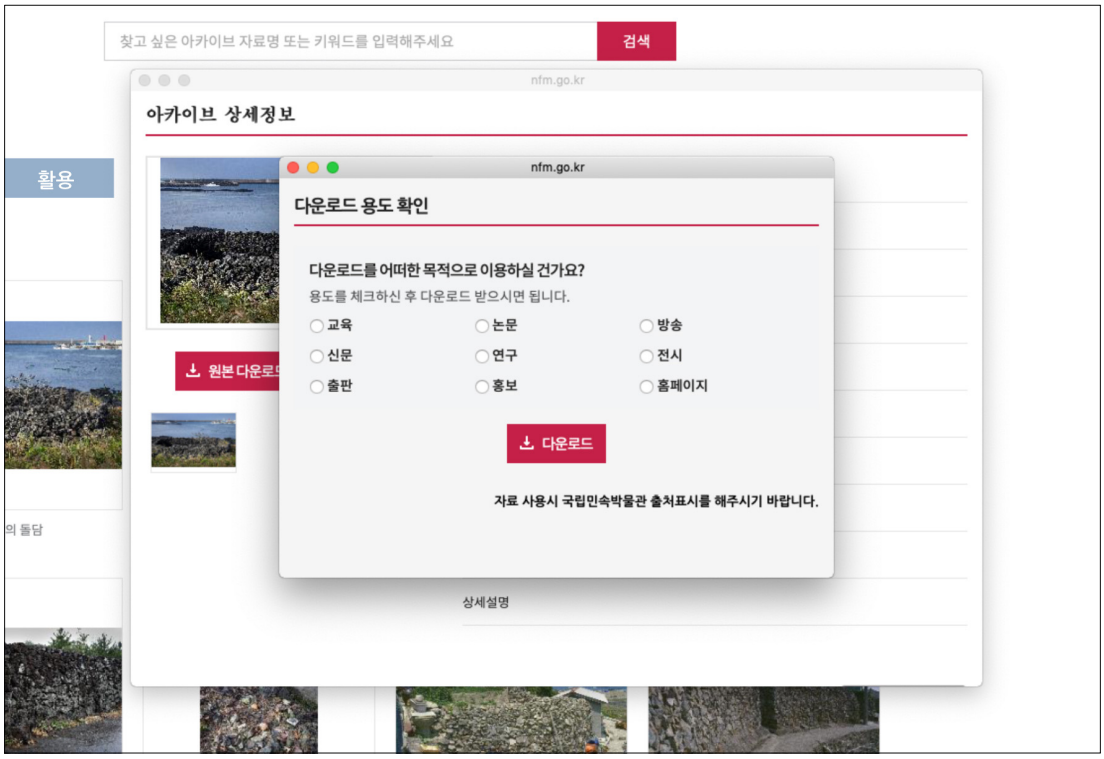


활용




활용
박물관 소장품
자료이용
- 발간자료
- 민속아카이브
- 도서 자료실
- 자료복제 및 열람허가
자료수집
민속이야기
민속아카이브
소개
자료검색
찾고 싶은 아카이브 자료명 또는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상세검색
검색 초기화
전체 사진 음원 영상 기타
명칭
사업명
등록번호
생산자
생산일자
키워드
AND
상세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이용해주십시오.
전체 56건의 소장품, 56개의 이미지가 검색되었습니다.
김녕당의 돌담
조천진성 돌담
대정현성 돌담
대정현성 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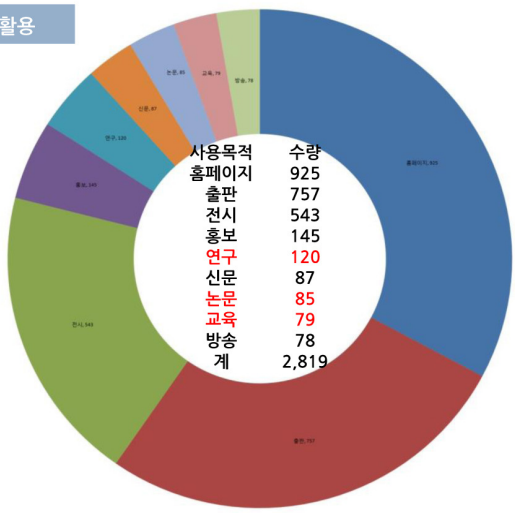

활용
박물관 소장품
자료이용
- 발간자료
- 민속아카이브
- 도서 자료실
- 자료복제 및 열람허가
자료수집
민속이야기
민속아카이브
소개
자료검색
찾고 싶은 아카이브 자료명 또는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nfm.go.kr
아카이브 상세정보
자료번호 00157115
자료형식 사진
자료명칭 김녕당의 돌담
용도기능 종교신앙/민간신앙/동신신앙
사업명 허벅과 제주질그릇
촬영주소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촬영일자 2006.10.21
촬영자 서현강(사진작가)
소장품번호
상세설명
원본다운로드
장바구니
김녕당의 돌담
대정현성 돌담
옹기 파편들과 돌담
신안 만재도-마을 어귀 돌담
신안 만재도-해변가의 돌담


찾고 싶은 아카이브 자료명 또는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nfm.go.kr
아카이브 상세정보
활용
nfm.go.kr
다운로드 용도 확인
다운로드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실 건가요?
용도를 체크하신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논문
방송
신문
연구
전시
출판
홍보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료 사용시 국립민속박물관 출처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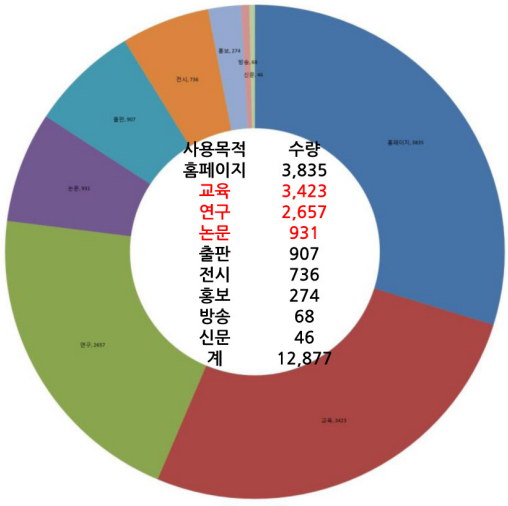
활용

2015년 복제요청



사용목적	수량
홈페이지	925
출판	757
전시	543
홍보	145
연구	120
신문	87
논문	85
교육	79
방송	78
계	2,819

2018년 다운로드



사용목적	수량
홈페이지	3,835
교육	3,423
연구	2,657
논문	931
출판	907
전시	736
홍보	274
방송	68
신문	46
계	12,877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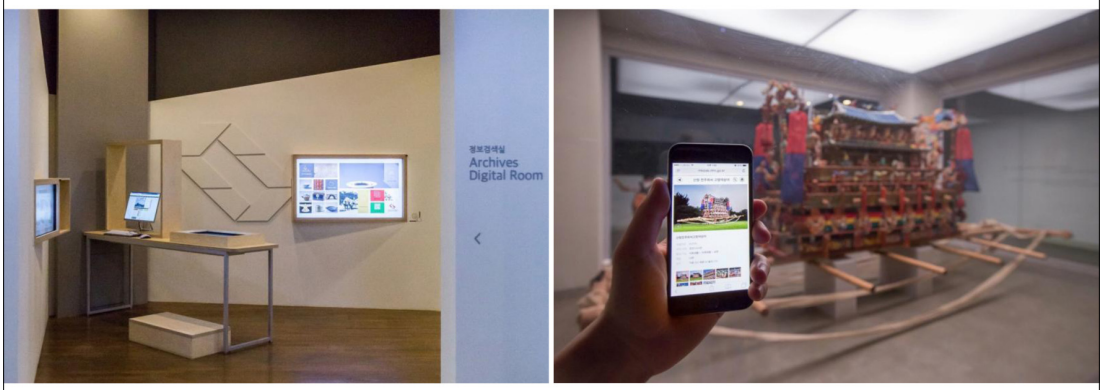
최근 5년간 복제요청 상위 5개 _ 2013-2017

자료명칭	복제요청수
헤르만산더 사진첩	261
찰스버스턴	60
엘리자베스키스	29
하피첩(보물1683-2호)	10
경진년대통력(보물1319호)	8



민속아카이브 정보검색실

공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빅데이타

공유



^^ 감사합니다 ^^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유 형 동 (한신대)

0. 김종태 선생님의 발표는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여러 사례를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 주제의 특성상 논쟁적인 토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발표를 들으며 생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무형유산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매우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무형유산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부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질문은 더 명확하게는 무형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타 카나에’의 사례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계신데, ‘민충식의 유학 전별 기념 사진’ 자료도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현황은 어떠한가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을 다양한 사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구축된 자료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

니다. 2000년대 초반 문제제기로 출발하여 본격적인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로 이어지고 있는 아카이브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3. 아카이브 간 연계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가

아카이브 구축의 지향점은 자료의 수집 보존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활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도 박물관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대중에게 가까운 자료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각각 구축된 아카이브가 서로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선생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카이브의 접근성은 어떠한가

아카이브 활용의 또 다른 키워드는 접근성이라고 활용합니다. 잘 축적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에 다가갈 수 없다면, 그 자료는 없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아카이브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고 계신다면 보충 설명해 주시면 발표 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의 논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발표 3

제주학아카이브와 무형문화유산 구축

좌 혜 경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직무대리)

제주학아카이브와 무형문화유산 구축

제주학연구센터
좌혜경

목차

Ⅰ 제주학아카이브 소개

Ⅱ 무형문화유산 – 해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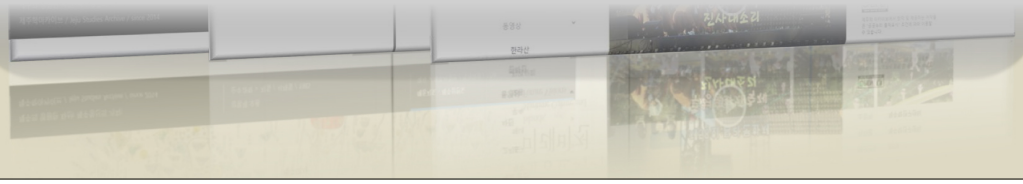
Ⅲ 무형문화유산 – 민요

Ⅳ 무형문화유산 – 신화

Ⅰ 제주학아카이브 소개

제주학아카이브(The Archives of Jeju Studies)

-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제주학 관련 자료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DB화하고 아카이브 시스템을 제작하여 원본의 저장, 보존 관리 뿐 만 아니라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주학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
- 민속학,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물, 고도서, 고문서 등의 문헌 자료, 녹취물이나 영상자료, 사진 등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구축
- 제주학아카이브 구축결과 : 제주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자료 구축과 제주학 기초자료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컨텐츠 활용



제주학아카이브

2012. 8**월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2014. 4**월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http://www.jst.re.kr)

2014 ~ 2019**년 현재** 50,000**여건의 문헌,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구축 및 서비스

제주학 아카이브 무형문화유산 수집 건수

			총 건
해녀	2489	연구물 DB	251
		동영상	133
		사진	1962
		구술자료	143
민요	1376	연구물 DB	117
		동영상	159
		사진	40
		구술자료	1060
신화	3591	연구물 DB	302
		동영상	489
		사진	2750
		구술자료	50
목축·밭담	563	연구물 DB	189
		동영상	17
		사진	345
		구술자료	12

II 무형문화유산 – 해녀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본 제주해녀

- 해양채집으로 경제활동을 해 온 여성공동체의 문화로 자연생태에 적응해서 민속지식 창안과 잠수기술을 축적
- 제한된 공간에서 생산, 판매, 분배(해조류채취, 양식장 운영)를 통해 생활문화를 형성
- 민속지식을 지닌 전통기술보유자인 제주해녀들이 만들어 놓은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
- '물질'이라는 생업에서 파생된 민속현상들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니고 지속보전의 가능성이 있음
- 2016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제주해녀문화'라는 명칭으로 등재되고, 2017년에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해녀'가 등록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2009, 11, 4, 548호)'
– 해녀문화는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 민속, 지식, 신앙, 민요, 작업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
–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의 '무형문화유산' 정의항의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 문화유산의 관습, 재현, 표현, 지식, 기술 뿐 만 아니라 도구, 사물 공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 해녀문화의 범주
–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에 따른 몸 기술, 조수의 이용, 채취물의 종류, 채취시기,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규약과 관습 등
– 언어표현 영역은 해녀노래(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와 해녀에 관한 전설에 대한 구비전승 등
– 문화공간으로서 바다작업장, 불턱, 그리고 물질 할 때 입는 물옷과 물질도구(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10호)의 창안과 활용 등
• '전통 기술 보유자'라는 점에서 물질기술과 민속지식은 해녀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물때를 이용하거나 바람을 활용하고 어장에 대한 지식, 해산물에 대한 생태지식을 알고서 가장 친환경적인 어법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음

• 해녀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안정되게 일하기 위해서 무속의례를 치름
– 영등굿, 잠수굿, 풍어굿이 있으며 의례의 장소는 당(堂)임
– 마을생업 공동체가 벌이는 굿과 수산업협동조합이 벌이는 풍어굿, 김녕잠수굿 등

• 해녀노래는 해녀문화의 브랜드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으며, 배에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로, 원시어업 노동요적인 성격이 강함

• 해녀공동체의 단위인 어촌계 (102개)
– 생산,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집단경제 체제 내에서 그 역할을 하고, 해산물의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금채기를 설정하고 자원을 관리
– 상호부조와 지역사회 재투자(학교바당. 이장바당, 마을도로포장, 전기가설) 등으로 긍정적인 상호배려의 공동체
– 해녀공동체를 운영하는 규약이나 관습은 해산물의 해금(解禁), 입어자격, 어장이용 등에 대해 규정
• '불턱'은 몸을 데우고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나 정보전달, 의사소통, 인간적인 질서를 배우며, 의사결정을 위한 원시회의 문화 공간이기도 함
• 바다자원의 공유를 바탕으로 서로가 나누는 호혜의 문화를 기본으로 선후배간, 상중하의 계급 간에 상호 배려의 미덕을 간직하고 있음

연구물

(논문, 단행본 등 251 건)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전승 :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관련한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 조소현, 2019 (국내학위 논문)

- 『제주해녀 이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8 (단행본)
http://jst.re.kr/digitalArchiveDetail.do?cid=303000&mid=RC00088201&nameChk=check

- 『제주해녀의 얼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7 (단행본)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 해녀공동체 102개 어촌계 해녀들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여 제주해녀들의 정체성 획득 및 자존감 함양
- 현재 해녀의 얼굴을 후세대에 전승하고 문화콘텐츠의 기초자료로 삼음
- 현재의 제주해녀의 얼굴과 문화 아카이브를 통해 영구보전 및 후세 지속 보전

- 『제주 해녀 JEJU HAENYEO』 사진 데이비드 앨런 하비 | 글 현길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5 (단행본)

사진

(사진 1,962건)

- 『 제주해녀의 얼굴』 - 108건.
- 단행본『제주해녀의 얼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7)에 실린 사진을 마을별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별 등록
- 각 마을 별 해녀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화
- 강만보, 김기삼, 서재철, 이성은 작가 참여

- 출향 제주 해녀· 출향 물질 : 강만보 기증 사진 – 518 건
-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남해안 서해안 등 제주 출향해녀의 모습이 흑백으로 담겨있음

- 해녀 음식 – 639건
- 제주 해녀 음식의 조리 과정과 완성된 음식을 촬영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Copyright © 김미남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김미남 All rights reserved.



동영상

(동영상 133건)

•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21건,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2019
– 각 마을 해녀들과의 물질기술과 지식에 관한 인터뷰

• "제주해녀의 사계" JIBS, 제주특별자치도, 2019

• "다큐멘터리 해녀海女" 5부, ㈜제주문화방송, 2008

구술자료

(구술 143건)

• "제주해녀음식 이야기" –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2017 24건
- 제주해녀음식에 관한 해녀들의 구술자료

Ⅲ 무형문화유산 – 제주민요

- 제주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희요 보다 노동요가 많음
  – 제주도는 유희의 문화가 아닌 노동 생산의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임
- 노동요는 남녀 구분이 없지만 상당부분이 여성노동요
  – 여성들의 정서가 섬세하게 표출
  – 특히 맷돌작업이나 방아작업과 함께 부르던 노래 다수
- 지역 특성상 논농사요보다 밭농사요가 대부분이며 특히 여성들이 물질 할 때 부르는 '해녀노래'(노젓는 소리) 유명
- 제주에는 서사민요가 드물고 서정요가 많음
  – 서사 무가(巫歌)가 있어서 서사 장르에 대한 충족이 이뤄졌기때문인 것으로 보임
- 조선조의 목사 파견과 왜구의 침략에 의한 지배와 저항에 관한 노래
  – 노래가사에 담겨있는 이미지가 대체로 어둡고, 변방이라고 인식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현실을 부정
  – 서울을 지향하며 또한 양반을 동경하는 가사가 나타남

Ⅲ 무형문화유산 – 제주민요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95호로 '제주민요' 지정
  –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외 (맷돌노래)
  – 표선면 성읍마을 중심의 창민요 세 곡이 조선조 500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 소속 관기들에 의해 전해지다 민간에 전파
- 제주도 무형문화재
  – 197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해녀노래'는 바다에서 물질 작업을 행하던 '해녀'들에 의해 불려지던 원시 어업노동요임.
  –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6호는 '제주농요'로 '밭 밟는 노래'와 김매는 노래의 대표격인 '사대소리', 도리깨로 곡식을 타작하면서 부르는 '타작소리' 세 유형이 포함
  –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9호 <방앗돌 굴리는 노래>, 제10호 <멸치 후리는 노래> 등

Ⅲ무형문화유산 – 제주민요

•제주민요의 분류

씨를 뿌려서 밭을 밟고, 김매고 타작하는 일련의 밭일과 함께 하는	**농업노동요**
배의 노를 젓거나 멸치그물을 후리면서 또는 어부들이 배를 저어갈 때 부르는 바다일과 함께 불리어진	**어업노동요**
집을 짓거나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산에서 벌채를 한 후 마을로 끌어와 목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르는	**임업노동요**
보리나 메밀을 방아에서 빻고 가루를 내기 위해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제분노동요**
여성들이 말총을 이용하여 탕건이나 망건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에서 부르던	**관망노동요**

Ⅲ무형문화유산 – 제주민요

주로 관청에 종사하던 기생들에 의해서 전승되다가 민간에 불리게 된 유희적 성격이 강한 노래	**창민요(유희요)**
장례 의식요인 "제주도 영장소리"는 제주도내에서 장례 절차에 따라 행상소리, 꽃염불소리, 진토굿파는 소리, 달구소리로 유형화 됨 죽음을 다루는 것이지만 소리의 기능성과 가창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제주인의 다양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음	**의식요**

연구물

(단행본, 논문 등 117건)

- 『제주민요해설』 홍정표 1963 (단행본)
  http://jst.re.kr/jejustudiesDetail.do?cid=090100&mid=RC00075792
- 『제주민요사전』 좌혜경 2015 (단행본)
  http://jst.re.kr/jejustudiesDetail.do?cid=010100&mid=RC00010718
-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 연구" 서영숙, 한국민요학회, 2013 (논문)
  http://jst.re.kr/digitalArchiveDetail.do?cid=302000&mid=RC00039909&nameChk=check

동영상

(동영상 159건)

- KCTV제주방송 기증 민요 자료 71건
- 혼소리예술단 민요 14건 - 자체수집

구술자료

(구술 1060건)

-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1-10』앨범 MBC방송 기증 1991 - 169건



밭 매는 노래 중간사데

- 『이소라 기증 제주민요』 - 241건

– 나요당 이소라 기증 『제주민요자료집』 발간 및 민요 탑재



해녀노래

-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북제주군 전래민요』 CD 30건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 87건

Ⅳ무형문화유산 – 신화

● 제주도 '큰굿' 일반신본풀이
큰굿의 일반신본풀이에는 모든 굿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무조신에 대한 의의와 신들의 삶을 통한 인간의 욕망과 기원, 가치관, 신관, 자연관, 세계관이 반영되고 있음.

• 우주적 질서 조판과 창세
– 의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한데 굿을 거행하는 곳은 신이 하강하거나 인간들이 사는 공간으로써 신성한 세계의 탄생을 상징화 함.
– <천지왕본풀이>는 영신의례 초감제에서 천지개벽을 상징하는 창세신에 대한 내용
– <할망본풀이>는 천지 조판과 우주적 질서의 회복으로 세계를 탄생하고, 그 속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인간 창생을 다룸.
– <초공본풀이>는 무속의 세계를 창안하고 무법과 굿의 원리, 무구 , 악기 등의 무의식 창조 원리를 설정함.
– <이공본풀이>는 꽃감관인 이공신에 대한 것으로, 여러 종種의 주화呪化를 관리하는 '서천꽃밭'이라는 상상 공간에 있는 신으로 믿어지며, 꽃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과 사, 환생의 원리를 담고 있음.

Ⅳ무형문화유산 – 신화

• 인세와 관련한 인간 삶의 원리
– <삼공본풀이>는 인간의 운명은 사람들의 삶이 노력만이 아닌 자신이 태어날 때 지닌 운명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줌.
– <세경본풀이>에서 사람들은 밭을 경작하거나 바다를 경작하는데, 경작을 통해서 얻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생산신인 여신 '자청비'를 주인공으로 제시함.
– <시왕맞이제>에서 불리는 <차사본풀이>는 저승의 시왕 및 저승차사에 대한 의례로, 사후 세계인 저승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승 세계에 대한 원리가 잘 나타남.
– <문전본풀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거공간인 '집'에 대한 공간적 의미나 가치를 제시함.
– <칠성본풀이>는 부를 상징하는 칠성신(뱀의 형상)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음.

• 화해의 문화
– 굿문화 전반에는 '화해'의 문화가 깔려있는데 조현설 "제주여신 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2011,제주도연구 제36집)에서 일반신본풀이의 여신 관련 스토리의 변형체계 근간에는 화해의 문화가 있다고 봄.
– 남녀가 대립할 경우 화해는 여성에 의해 힘을 통한 제압의 방식이 아닌 양보와 포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대립에서 딸에 의해서, 여성과 여성이 대립할 경우 힘이 있는 쪽의 양보(증여)에 의해 이루어짐.
– 굿은 그 자체가 인간과 신, 신과 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추구하는 종교의례이며 그 화해는 여신으로부터 촉발되고 창조신화를 통해 제시되는 세계의 질서는 천지왕과 소별왕, 대별왕과 같은 남성 신들에 의해서 구축됨.
–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의 화해는 이승과 저승의 삶과 죽음, 땅과 바다, 승리와 패배, 번영과 쇄멸의 이항대립을 넘어서서 화해를 지향하고 있음.
– 자청비는 남성과의 대응에서 목축과 농경의 갈등, 남성 우위의 가족제도나 가문의 법도를 넘어서서 화해로 이끌면서 오곡의 종자를 받아 세경땅에 좌정하게 됨.

• 고난 받는 문화여성 영웅들의 삶
– 자신의 삶을 신화에 투영하여 신화적인 삶을 수용함으로써 대리적응을 하고 있음.
– 여성들의 강인함은 스스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길찾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잘 나타남.
– 여성의 탄생은 재물 한 근이 모자람이 원인이 되어 '부족함'의 모티프에서 시작되고, 여성들은 수난을 극복하여야만 하는 운명이 전제되고 있음
– 여신들은 천상적인 지존한 존재에 의해 수태가 되지만 가장 여성적 일인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성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줌.
– 문화영웅적인 면모는 자식들이 지니는 신적 직능에서 찾을 수 있어서 <초공본풀이>의 '자지명왕아기씨'는 무조신이 된 아들을 낳았으며, <이공본풀이>의 '원강암이'는 꽃감관인 '한락궁이'를 낳아서 부친을 찾아가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됨.

Ⅳ무형문화유산 – 신화

- 한국인의 저승, 저승신 관觀
  – 본풀이에 생자와 망자를 위한 이중적인 사고가 잘 드러남.
  – 이승에서의 어려움을 저승신의 위력을 빌어 해결하려는 사고가 잘 드러남
  – 신이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 중심의 논리가 반영되고, 신의 위력 여하에 따라 신에 대한 공경이 달라질 수 있음.
  – 저승은 질서가 잡힌 곳이고 이승은 혼란스러운 곳이라는 사고가 나타나고 있음.

Ⅳ무형문화유산 – 신화

연구물

(논문, 단행본 등 302건)

-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2018 (단행본)
  http://jst.re.kr/jejustudiesDetail.do?cid=090100&mid=RC00088219
  –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각 유형별 자료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함.
  – 제주신화의 연구 및 정책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콘텍스트적 측면에서 문화사적 가치를 위한 예들을 제시함.
  – '이야기유산' 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일반신본풀이의 보전과 자원화 방안을 모색함.

- <제주의 이야기유산> 제주학연구센터 2018 (단행본)
  http://jst.re.kr/digitalArchiveDetail.do?cid=303000&mid=RC00085652&nameChk=check
  – 2015~2017년까지 제주학연구센터 정책연구인 제주의 전설이나 신화가 살아 숨쉬는 현장을 조사하여, 이야기 중심으로 지속보전과 자원화를 위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조사된 자료
  – 제주의 이야기 유산은 문화 콘텐츠 또는 교육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음

Ⅳ무형문화유산 - 신화

동영상

(동영상 489건)

- 2004 이중춘 대역례 굿 제주특별자치도 82건
- 2018 김녕잠수굿 제주학연구센터 14건
- 2018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학연구센터 19건
- 2018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1건
- 2018 와흘리 각시당제 1건
- 제주 일반신본풀이 이용옥 본 12편
- 제주 일반신본풀이 김돌산 본 12편
- 김윤수 영상 기증 자료 탑재(CD, VHS, 테입) 88편

사진

(사진 2,750건)

- 2019 마을 여신당 제주학연구센터174건
- 2019 송당본향당 마불림제 제주학연구센터 187건
- 2019 김녕리 잠수굿, 2019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송별대제 제주학연구센터 등

2019 마을 여신당




감사합니다

좌혜경의 「제주학아카이브와 무형유산 구축」 토론문

양 영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 제주학아카이브의 쟁점
-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2019년 현재 50,000건 구축)
-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컨텐츠 활용

■ 제주학관련 자료 인터넷 제공, 연구물, 문헌자료, 영상자료 등 디지털 온라인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1. 해녀 무형유산
-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영등굿, 풍어굿, 잠수굿의 자료 확보
- 불턱, 바당밭의 이용 등에 대한 구술자료 확보 및 구축
-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을 구술하는 자료 구축
- 바다 생태계에 대한 구술녹화 자료 구축(물질기술과 민속지식류)

2. 민요 무형유산
- 고령의 전통민요 보유자 구술자료 확보 구축
- 무형문화재민요 기록화 사업 및 자료 구축

3. 신화 무형유산
- 심방별 본풀이 확보 및 구축(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간행 등)

■ 제언

1. 무형유산 자료의 확충 및 현대적 계승자료 확보·구축

·무형유산 자료의 확보
-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 등 각 기관 발행 자료집 디지털화
- 교육청 및 각 학교 발간 향토지 중에서 무형유산 관련 자료 디지털화

·현대적 계승 자료의 확보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인협회, 민예총 등 발간 예술교육자료집 디지털화
- 문화유산을 현대작품으로 재창조한 미술, 음악, 오페라, 사진, 공예 등 아카이브 구축

2. 영상자료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과 기록자료 구축의 조화(균형)

3. 기 구축된 자료의 오류 또는 불완전성 검토

주제발표 4

물질의 고고학

- 제주 해녀 물질의 기원을 찾아서 -

심 승 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물질’의 고고학

- 제주 해녀 물질의 기원을 찾아서 -

심 승 구*

바다가 부르는 이유

바다에서는 즐거움이 손짓을 한다. 누구나 풍덩 뛰어들고 싶은 충동은 초록 바다의 품에 안기려는 원초적 그리움이다. 우리의 옛 속담에 “물 보기 전에 바지부터 벗는다.”는 말은 그 뜻과 관계없이, 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잘 대변한다. 땅 위의 중력에서 벗어나 물이 떠받치는 부유(浮游)의 체험은 일상이 주는 불안에서 벗어나 뭐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편안함을 준다. 바다의 속삭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왜 헤엄을 치는 걸까? 헤엄의 욕망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헤엄치던 태아 시절의 반추인가? 바닷가에 살던 원시 인류의 유전자 탓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중 생물체가 보내는 텔레파시인가? 끝도 없는 상상의 나래가 꼬리를 문다.

이쯤 되면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구스타프 칼 융(Carl Gustav Jung)이 말하는 ‘선천적인 무의식’의 끝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진다. 무의식의 심층 한계가 어디든 간에 헤엄은 가장 원시적 몸짓이요, 육지 이전 바다 속 진화의 신비를 이어온 생명의 몸짓이다.

무수한 시간들은 바다의 파고와 조류 속에서 심해 아래 침전되거나 바위, 빙하, 지질 등으로 압축되어 굳어졌다. 이미 오래 전에 지워지고 잊혀 진 바다는 낡고 조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학부 한국사 교수. skshim@knsu.ac.kr.

각난 텍스트다. 그 희미한 절편들 위에서 기억과 망각이 교차된다. 인간의 기억마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입력되고 삭제되는 세상에서 굳이 지워지고 잊혀 진 몸짓의 기억을 들춰내야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몸짓 속에도 인류의 오래된 무의식이 깔려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헤엄과 무자맥질은 가장 원초적 몸짓이자 바다의 인류를 기억시키는 매체다. 유적과 유물의 고고학(Archeology)에서 지식의 고고학(Archeology of Knowledge)을 넘어 '물질(잠업)'을 비롯한 '몸짓의 고고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1)]

헤엄이 주는 상상

인간은 대지 표면의 존재로 살아 왔다. 그런데 어쩌면 바다에서 육지로 도망친 피난민일지도 모른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더구나 갓 태어난 아기는 물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숨을 멈추고 팔과 다리로 휘젓는 동작을 한다. 물속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헤엄치는 모습은 완벽하게 편안해 보인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능력은 생후 몇 달 내에 사라지고 만다. 나중에 아이가 다시 잠수 상태에서 헤엄을 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한다.

수중분만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택된 아기들은 수중분만을 실시했으며,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다. 크레타 섬의 미노아인들도 바닷물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바다물이 얕게 고인 곳이나 낮은 강물에서 출산하였다.[2)] 또한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에는 바다에서 출산을 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다.[3)] 신생아의 목 닫힘 반사작용은 익사를 막아주고 아기는 물에서 나온 후에 첫 숨을 쉰다. 수중 출산(water birth)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자연분만법의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중 출산은 19세기 선교사들에 의해 금지되었다. 수중 감염에 대한

1) 이 글은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렸던 전국해양학자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졸고, 〈물질의 고고학〉〈〈제10회 전국해양학자대회발표집〉〉, 제주대학교, 2019. 7. 5).

2) Barbara Harper 저, 송미라 역, 〈〈행복한 엄마와 아기를 만드는 부드러운 출산〉〉, 태명, 2000, 249쪽. 『한국일보』, 2010. 2.18. 지평선, '수중분만'.

3) Eric Chaline 저, 김지원 옮김, 〈〈처음읽는 수영세계사〉〉, 이케이북, 2018. 38~39쪽.

현대의학의 우려 때문이었다. 그 뒤 수중출산은 선진국의 욕조로 옮겨져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경과학자 폴 맥린(Paul Maclean)의 '삼위일체 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진화 단계별로 3층의 구조로 형성된다.[4] 1층이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파충류의 뇌(뇌간), 2층이 감정 작용을 하는 포유류의 뇌(대뇌변연계), 3층이 이성과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영장류의 뇌(대뇌피질)이다. 뇌 가운데 가장 먼저 발달한 파충류의 뇌(Reptilian Complex)에서는 생존의 행동과 생각이 나온다. 이 영역은 수억 년 전 인간이 아직 파충류였던 시기에 생긴 뇌라는 것이다. 인간의 두개골 내부 깊숙한 곳에는 아직 악어의 뇌가 잔존해 있는 셈이다.

원시 인류의 퇴화된 몸짓의 기억은 어머니 자궁 속의 몸짓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몸짓의 무의식은 태아 시절로 끝나지 않는 것 같다. 바다에서 헤엄과 자맥질하는 해녀의 물질 속에서 되살아나는 지도 모른다. 제주의 바다에서 원시 인류의 몸짓을 상상하는 이유다.

물질의 기원을 찾아

물질은 제주를 떠올리는 표상이다.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오른 것은 그 같은 의미를 더해준다. "물질보단 밧일이 쉽수다게."라는 어느 해녀의 말 같이, 제주에선 바다의 물질이 육지의 밭일 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 실제로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해녀들의 속담처럼, 바다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거친 파도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은 헤엄과 무자맥질을 수반한다.[5] 헤엄이 바다에서의 이동 방법이라면, 자맥질을 통한 물질은 깊

4) Eric Hoffmann 저, 장현갑 옮김, 〈〈이타적 인간의 뇌〉〉, 불광출판사, 2012, 50~68쪽.

5) 원래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짓을 무자맥질, 자맥질, 숨박질이라고 하였다. 므ᄌᆞ미〈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믈+좀-+-이(표준국어사전) '무자맥질'의 의미로 '무자막질, 무자멱질, 자무락짐'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무자맥질'만 표준어로 삼는다. 무자맥질을 숨박딜이라고도 하였다. '무자맥질'의 관련 어휘로 '므ᄌᆞ미, 무ᄌᆞ미'가 있다. '므ᄌᆞ미'는 16세기부터 보이며 17세기에도 '므ᄌᆞ미ᄒᆞ다'의 형태가 목격된다. '무자맥질'은 20세기에 가까워서야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潛 숨박딜 〈〈물명고〉〉(1800년) 5:11).

은 물속에서의 노동이다. 물질은 바다 속에 들어가 우미(우뭇가사리),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조류나 어패류를 채취하는 수중 조업을 뜻하는 제주 말이다. 물질에서는 소살(작살)로 물고기를 잡거나 간혹 진주를 얻기도 하였다.

인간이 언제부터 물질을 시작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해양동물학자 앨리스터 하디(Alister Hardy)의 '수생유인원이론'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은 물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6] 즉 숲을 떠나 지상으로 내려온 최초의 원숭이가 사냥하는 원숭이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물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는 먹이를 찾아 열대 해안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조개를 비롯한 해안 생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널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안에는 탁 트인 들판보다 맛있는 먹이가 더 많았다. 처음에는 바위틈의 웅덩이나 얕은 물속에서 손으로 잡아먹었겠지만, 나중에는 헤엄을 쳐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나간 다음 먹이를 찾아 무자맥질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바다로 돌아간 다른 포유류들처럼 털 없는 원숭이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수생이론은 간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으나, 확고한 뒷받침이 부족하여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7] 그럼에도 해안 지역에 살던 초기 인류가 물질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상상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바다에서의 채집과 물질이 바다의 각종 어패류와 해조류, 어류 등을 식량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출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문득 해안가에 발달한 조개무지가 떠오른다. 선사유적지 가운데 조개더미인 패총(貝塚)은 조개, 소라, 전복 등의 조개류를 먹고 버린 해안가의 생활유적이다. 그렇다면 패총의 흔적은 바로 물질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패총이 단순히 해안가의 채집을 넘어 물질을 담보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6) Elaine Morgan 저, 김웅서 · 정현 역, 〈〈호모 아쿠아티쿠스, 인류의 조상 수생유인원〉〉, 씨아이알, 2013, !~224쪽.

7) Desmond John Morris저, 김석희 옮김, 〈〈털 없는 원숭이〉〉, 영언문화사, 2001. 59~61쪽.

패총이 간직한 기억들

인류가 식량자원으로 조개류를 채집하기 시작한 것은 30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조개무지가 출현한 것은 20만 년 전까지로 소급된다.[8] 우리나라에서 조개더미가 출현하는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전국적으로 중복된 시기를 제외하면 597개소의 패총이 확인된다.

시대별로는 수렵·채집 단계인 신석기시대 322개소(46.1%), 청동기시대 76개소(10.9%), 삼한·삼국시대 233개소(33.42%)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남해안 211개소(35.2%), 서해안 340개소(56.8%), 동해안 30개소(5.0%), 제주도 20개소(3.3%)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에 조개더미가 다수 분포하는 것은 조개류 채집에 용이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9]

제주도는 연중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 외양(外洋)에 위치하며 사면이 암초를 이룬다. 따라서 대부분의 패총에서 각종 고둥류와 소라, 전복 등의 암초성 패류가 주를 이룬다. 제주도의 패총을 시기별로 보면, 신석기시대 4개소(전국 322개소의 1.2%), 청동기시대 2개소(전국 76개소의 2.6%), 원삼국·삼국시대 15개소(233개소의 6.4%)로 나타난다.[10]

조개껍질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굴이다. 하지만 피조개, 투박조개, 소라. 전복은 5~20m 정도의 깊은 바다 속에서 잠수업으로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이다. 그

8) "Shell middens as archives of past environments, human dispersal and specialized resource management"(Alvarez, M., I. B. Godino, A. Balbo and M. Madella, Quaternary International, Vol. 239, 2010) 20만 년 전의 패총은 핀나클 포인트(Pinnacle Point)유적을 비롯한 남아프리카 남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중기 구석기시대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유적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9) 동해안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작은 암초성(巖礁性) 해안이 발달되어 조개류 서식과 채집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함경도를 제외한 동해안지역에서는 조개더미가 드물다. 이에 비하여 남해안과 서해안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발달되어 조개의 서식과 채집에 적합한 환경을 이루고 있어 조개더미가 밀집·형성되어 있다.

10) 신석기시대 조개더미는 현재까지 남해안지역 110개소(34.1%), 서해안지역 185개소(57.4%), 동해안지역 23개소(7.1%), 제주지역 4개소(1.2%) 등 모두 322개소가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 조개더미는 남해안지역 15개소(19.7%), 서해안지역 57개소(75%), 동해안지역 2개소(2.6%), 제주도 2개소(2.6%) 등 총 76개소가 알려졌다. 원삼국·삼국시대 조개더미는 남해안지역 86개소(36.9%), 서해안지역 124개소(53.2%), 동해안지역 8개소(3.4%), 제주도 15개소(6.4%) 등 모두 233개소가 알려졌는데 대부분 원삼국시대의 조개더미이다(〈〈한국의 조개더미(패총)유적〉〉 1-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0).

러므로 패총에서 출토된 소라나 전복은 물질의 최초 흔적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연안의 암초에서 채취했다가, 점차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갓물질'을 거쳐 배 타고 나가는 '뱃물질'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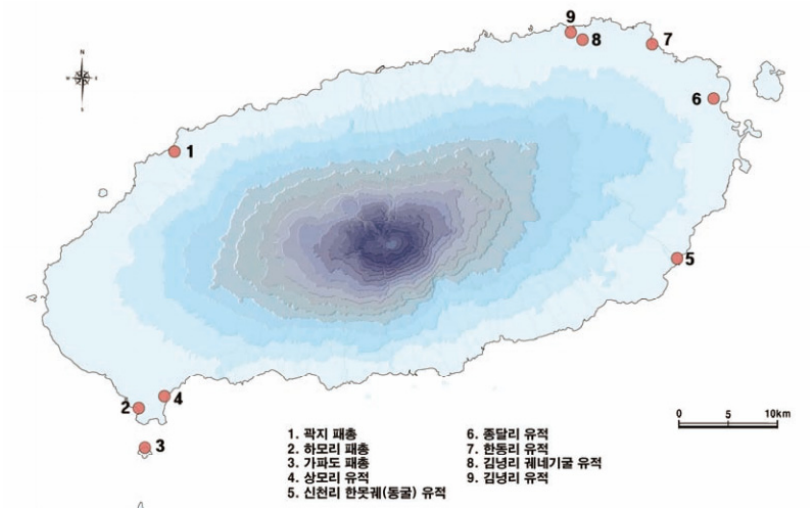


그림 154 제주도 패총유적 분포도(양나래 강창화 자료 재인용)

패총에서는 물질할 때 쓰는 도구인 빗창도 발견되었다. 빗창은 제주에서 해녀들이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11] 사슴 뼈로 만든 빗창은 신석기 후기(BC 2700~2000)에 속하는 제주 서귀포 하모리 패총에서 출토된 뒤 청동기시대(조촌읍 북촌리유적, 상모리패총, 곽지패총)에 이어 철기시대까지 나타난다.[12] 특히 하모리, 북촌리, 상모리, 곽지 유적에서는 소라와 전복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채취 도구인 빗창의 출토는 제주의 물질이 약 4700~4000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물이다.

11) 빗창은 바다 속 바위에 붙어있는 전복을 따는 데 쓰는 도구고서, 길이는 약 30센티미터 정도이다. 자루의 끝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말총으로 만든 끈을 달아 전복을 채취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하며 허리춤에 차고 들어간다. 빗창이라는 명칭도 여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12) 양나래, 강창화, 〈제주도 패총 출토 어래류와 어로구 소고〉〈〈2016년 해녀문화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2016. 239~261쪽.

고대 근동신화 속의 물질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는 인류 최초의 신화로 일컬어지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전해진다. 약 4800년 전 기록인 이 신화에는 물질과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다.[13] 우르크의 왕이자 반인반수의 영웅이던 길가메시는 폭정을 일삼는다. 그러나 친구 엔키두가 죽자,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길가메시는 친구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생의 풀을 찾아 나선다. 온갖 모험과 죽음의 바다를 건너 우트나피쉬팀(현자)을 만나 영생의 풀을 구할 수 있는 비밀을 묻는다. 우트나피쉬팀은 길가메시에게 죽음이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일부임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영생을 얻는 바다 풀 이야기를 해준다.[14]

이 풀을 구하기 위해 길가메시는 깊은 바다 속에서 바닥에 빨리 닿도록 다리에 돌을 묶고 잠수해서 풀을 찾는데 성공한다. 손이 찔렸지만 풀을 움켜잡은 그는 다리에 묶은 돌을 잘라내고 수면으로 다시 올라온다. 하지만 길가메시가 풀을 구해 고향으로 향하는 도중, 뱀이 풀을 훔쳐 먹어버린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죽음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고투와 권력의 정점에 도달해 신을 따라가려고 했던 자들의 자만심을 극화한 것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고대 수메르인들이 인근 바다에서 물질하는 방식을 매우 사실적으로 생생히 묘사한다.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기 위해 돌을 다리에 묶고 잠수하는 내용은 지금의 허리에 무게 돌을 차는 방식과 유사하다. 수메르인이 물질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방식이 매우 전문화되어 있음을 엿 볼 수 있다.[15]

약 4800년을 전후로 한 수메르인의 물질의 시기는 우연히도 한반도에 물질이 등

13) 조철수,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2003, 134-135쪽.

14) 영생의 풀을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 풀은 가시덤불 같은 그 가시는 장미처럼 네 손을 찌를 것이다. 네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김선혜,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휴머니스트, 2005, 310~311쪽).

15) 그 사실은 서기전 2000년경에 우르 3왕조 시대의 교역지도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연안의 교역품으로 조개가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점에서 뒷받침된다(조철수,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2003, 16-18쪽).

장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수메르 신화 속의 물질 이야기가 패총과 비창을 근거로 제시된 제주 물질의 비정 년대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길가메시가 물속에서 다리에 묶었던 무게 돌을 끊고 올라오는 장면에서 비창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차고 들어갔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약 4~5천 년을 전후로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 해안과 중동 지역 이라크 남부 해안에서 물질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흔적을 밝혀주는 뜻밖의 거울로 비쳐진다.

인골 속 물질의 흔적과 문신

물질의 흔적은 패총에서 출토된 인골 속에서도 찾아진다. 남해안의 연대도·욕지도패총에서는 출토된 인골 분석을 통해 신석기시대에 잠수를 해서 전복과 소라를 채취한 사실이 발견되었다.[16] 통영의 두 유적지에서는 각종 조개와 전복 껍데기 등과 함께 22구(연대도 17구, 욕지도 5구)의 인골이 발굴되었다. 그 가운데 관측이 어려운 인골을 제외하고 모두 6구(남성 4, 여성 2구)의 머리뼈에서 잠수생활을 장기간 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외이도골종(外耳道骨腫)이 발견되었다.[17]

외이도골종은 신석기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바다 속을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했음을 알려주는 증거인 셈이다. 특히 통영 욕지도 적석유구 가운데 외이도골종이 있는 남성의 무덤에 돌 그물추 1점이 함께 묻혀있는 것으로 보아 어로와 물질을 함께 했던 사실을 짐작케 한다.[18]

물질에 관한 모습은 문헌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동양의 고전 가운데 『예기』에는 "동방의 나라를 이(夷)라 하는데, 머리를 풀고 문신(文身)을 했다."[19]는 기록이

16) 한영희·임학종, 〈〈연대도〉〉 I , (국립진주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8, 1993).
한영희·임학종, 〈〈욕지도〉〉, (국립진주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3, 1989).
17) 임학종, 〈신석기시대의 무덤〉〈〈한국신석기연구〉〉15호, 2008. 71~61쪽. 특히 연대도의 유적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7300~67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반도의 물질 기원 연대를 더 올리는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18) 한영희, 〈신석기시대의 생업과 사회〉〈〈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97. 525~526쪽.
임학종, 〈신석기시대의 무덤〉〈〈한국신석기연구〉〉 15, 한국신석기학회, 2008. 71~115쪽.
19) 東方曰夷, 被髮文身 有不火食者矣 南方曰蠻 雕題交趾 (〈〈禮記〉〉 王制 제5).

보인다. 몸에 문신을 하는 행위는 고대 한반도와 주변 나라의 물질 풍속이었던 것 같다. 중국의 『후한서』(25~219년)에는 마한 사람 중에 문신을 한 자가 확인된다.[20] 문신의 풍속은 마한 뿐 아니라 변한과 진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문신은 한반도의 주변 나라인 왜(倭)에서도 나타난다. 왜인들은 물고기와 전복을 잡는 것을 좋아하여 물이 깊고 얕은 것을 가리지 않고 물에 들어가 잡았다. 특히 왜의 바닷가 사람(水人)은 깊이 잠수하여 물고기와 조개 잡는 것을 좋아했는데, 문신을 그려 큰 물고기(大魚)와 물짐승(水禽)의 접근을 막는 것을 관행으로 삼았다.[21]

왜인들은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하였다. 이처럼 문신은 왜에서 크게 발달한 풍속이었다. 그래서인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에서 문신을 한 것을 지리적으로 왜와 가까워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22] 하지만 한반도 사람들이 왜의 영향을 받아 문신을 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문신이 물질을 위한 신변보호 의식으로 시작되고, 갈수록 바다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물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짐작된다.

물질에 앞서 위험을 막기 위한 문신 행위는 필수 의례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러자 삼한의 해안가 지역민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문신을 하였다. 깊은 바다에서의 물질이 성행하는 당시 분위기와 함께 남녀가 모두 물질에 참여하는 상황을 엿보게 한다.

이와 같이 신석기시대로부터 삼한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이미 함께 하는 물질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물질의 형태는 오늘날에 비해 원시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삼한과 왜에서 문신이 성행한 점은 그들과 교류했던 제주의 물질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신은 동아시아 선사와 고대사회에 한반도와 왜, 그리고 멀리 북쪽 시베리아 지방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물질의례였다. 문신이 고

---

20) 其男界近倭 亦有文身者 (〈〈後漢書〉〉 東夷傳, 韓).

21) 「好捕魚鰒 水無深淺 皆沈沒取之 (中略) 夏后少康之子封於會稽 斷髮文身以避蛟龍之海 今倭水人 好沈沒捕魚蛤 文身亦以厭大魚水禽 後稍以爲飾」 한편, 동이전 왜전에는 "문신은 남자는 어른 아니 가리지 않고 모두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한다. (중략) 중국 하나의 하후소강의 아들을 회계에 봉했는데, 머리를 깍고 문신하여 교룡의 해를 피한 적이 있다. 지금 왜의 물가에 사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몰고기와 조개 잡는 것을 좋아하는데, 몸에 문신하여 큰 물고기와 바다 짐승이 이를 싫어하게 하였고, 뒤에 점점 문신을 장식으로 삼게 되었다."

22) 其男子 時時有文身 男女近倭 亦文身 (〈〈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 弁韓, 辰韓).
三國志 魏書 30 東夷傳 韓

대인의 물질을 위한 친절한 수호자처럼 느껴진다.

영생과 욕망의 물질

물질은 삼국시대 이후에도 꾸준히 발달해 나간다. 갈수록 연안 바다에서의 물질보다 더 깊은 바다에서의 물질이 늘어났다. 당나라 진장기(678?~757)가 쓴 『본초습유(本草拾遺)』(741)에는 "신라의 해인(海人)은 허리에 새끼줄을 매고 잠수하여 깊은 바다에서 나는 대엽조(大葉藻)를 채취한다."[23]고 기록한다. 당시 물질하는 사람을 '해인(海人)'으로 부른 사실과 함께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 허리에 새끼줄을 매고 물질을 하는 모습이 흥미롭다. 마치 영생의 풀을 얻기 위해 바다 속을 잠수하는 길가메시를 연상케 한다.

신라에서는 소라, 전복과 같은 해산물 뿐 아니라 약재에 해당하는 해조류를 캐기 위한 물질도 발달하였다. 실제로 신라 앞바다에서만 나는 해초는 중국에 수출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라의 물질과 해초에 대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깊은 바다 속에서 얻는 대엽조와 같은 약재는 5월 이후에는 큰 물고기가 사람을 해치므로 채취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백상아리와 같은 식인상어의 피해를 말하는 것 같다.[24] 따라서 대엽조와 같은 약조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5월 전에 물질을 해야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 남부와 제주 지역에 물질이 성행한 탓으로, 바닷가 주민 가운데서는 물질에 능한 사람도 생겨났던 것 같다. 장보고(?~846) 휘하에 있던 정년(鄭年)의 경우, 바닷물 속으로 잠수하여 50리를 갈 정도였다고 한다.[25] 이 같은

23) 韓致奫, 〈〈海東歷史〉〉권 26, 物産志 1.

24) 해녀들은 바다에서 다양한 어종을 만난다. 곰생이(곰새기)라는 돌고래떼를 만나면 겁나서 "물알로 물알로"라고 외쳐 바닷물 알로 저리 떠나 달라고 호소하며, 물쐐기떼가 몰려 올때도 만찬가지로 외친다. '번적귀'라는 상어떼는 인명을 헤칠 수도 있으며, 새우 솔치 객주리 붕장도도 사람을 해롭하나. . 거북이 보이면 경건하게 대하고 혹시 바닷가로 오르면 탁배기(막걸리)를 대접하기도 한다. 거북은 요왕의 말제딸아기(용왕의 삼녀)로 보아서 자칫 박대하면 이내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김영돈, 〈해녀집단의 특수어휘에 관한 연구〉〈〈성곡논총〉〉21, 1998. 772~773쪽).

25) 鄭年者, 皆善鬪戰工用槍. 年復能沒海, 履其地五十里不噎, 角其勇健校勘 保皐不及也. 年以兄呼保皐, 保皐以齒, 年以藝, 常校勘不相下. 自其國皆來爲武寧軍小將(〈〈新唐書〉〉 東夷列傳, 新羅). 일명 정련(鄭連)이라

잠수의 능력은 아마도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던 해인(海人)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일로 짐작된다.

선사 이래 제주에서의 물질은 계속 이어져 왔다.[26] 다만, 헤이조쿄 유적의 목간에서 나온 745년(천평 17) 탐라복(耽羅鰒)의 기록과 905년(연희 5)에 율령 시행세칙인 연희식(延熹式)의 탐라복(耽羅鰒) 기록만이 물질의 존재를 분명히 말해준다.[27] 물질에 의한 탐라복 생산이 탐라의 국제무역 물품으로 크게 인기가 있던 것 같다. 이 밖에 1079년(문종 33)에는 탐라에 다녀온 고려의 사신이 큰 진주 2개를 왕에게 바친다.[28] 빛이 별같이 반짝여서 사람들이 '야명주(夜明珠)'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제주의 물질이 해산물, 해조류, 어류 뿐 아니라 진주와 같은 보석을 채취했음을 말해준다. 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주와 같은 보석을 캐는 물질이 발달한 상태였다. 한반도의 경우, 고려에 와서야 그 같은 물질의 증거가 드러난 셈이다.

갈수록 물질의 대상이 미역, 소라, 전복 등에서 약초, 진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먹거리를 위한 선사 시대의 물질이 고대를 거치며 인간의 영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질로 확대되어 나간 것이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동방으로 서복을 보낸 것도 일찍이 한반도 바다의 물질로 인해 갖게 된 꿈은 아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가며

지금까지 물질의 고고학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고고학은 유적과 유물을 찾아서 말없는 역사를 밝히는 분야다. 유적지 속에는 유물·유적과 함께 지층이 발견되는

고도 한다.

26) 이와 관련하여 탐라 이전 주호(洲胡)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창석, 〈회고와 전망〉〈〈제주도사연구〉〉창간호, 1991). 또한 5세기에 등장하는 섭라(涉羅)의 가(珂) 또한 그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는 고대사 연구자의 대부분(노태돈, 정상직수, 주보돈, 김락기, 장창은 등)이 신라로 해석한다. 다만, 이도학의 경우는 탐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호남고고학보〉〉58, 2018, 33~35쪽).

27) 高橋公明, 〈日本における済州島史についての研究動向（１６世紀以前）〉〈〈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歴史的前提に関する学際的研究〉〉, 2003. 2~3쪽.

28) 〈〈고려사〉〉 卷9, 世家 9, 文宗 33年 11월 8일(임신).

데, 각 시대의 지층 사이에는 불연속적인 단절이 존재한다. 이 글은 인간의 몸짓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관점으로 작성한 것이다. 물질의 고고학은 몸짓의 흔적 속에서 잊혀진 인간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시도이다.

무의식의 몸짓은 언어에 앞선다. 그 몸짓 가운데 가장 원초적 몸짓이 헤엄이고 자맥질이다. 그리고 물질이다. 헤엄과 무자맥질은 물론이고 물질이 인간만 아닌 동물들에게도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질이 원시의 몸짓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인간의 물질은 바다 속에서 먹이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을 오랜 관습으로 짜놓은 몸짓이다. 물질에는 이를 이루기 위한 관념과 법칙이 있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의미가 있다. 물질이란 '자연의 인간화' 과정인 셈이다. 그래서 물질은 문화를 이룬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갓난아이의 헤엄과 자맥질의 몸짓에서부터 패총, 신화, 문신, 외이도골종, 약초, 진주 등의 다양한 사례는 물질의 고고학을 밝히는 소중한 단서다.

그동안 물질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았다.[29] 다만 제주 해녀에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그것도 조선시대 이후 해녀 물질에 초점을 맞춰왔다.[30] 하지만, 물질의 역사는 훨씬 오래 전의 일이다. 각 시기의 물질 사이에는 불연속적인 단절이 있었다.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그렇다. 같은 시대라 해도, 지역마다 물질의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의식만 제기할 뿐이다. 물질의 고고학은 이제 시작이다.

29) 관련 연구성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
30)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역사민속학〉〉19, 2004.

「물질의 고고학」 토론문

허 남 춘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던 본능에 대해, “불행히도 이 능력은 생후 몇 달 내에 사라지고 만다. 나중에 아이가 다시 잠수 상태에서 헤엄을 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한다.”고 스스로 부정했다. 그래서 ‘바다에서 헤엄과 자맥질하는 해녀의 물질’과 본능을 연관시키려는 노력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까. 너무 오래 된 원형과 연관 지으려 하는 듯하다.

2. “소라나 전복은 물질의 최초 흔적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연안의 암초에서 채취했다가, 점차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갓물질’을 거쳐 배 타고 나가는 ‘뱃물질’로 변화되었을 것이다.”고 했다. 사슴뼈로 만든 빗창이 패총에서 발견된 것은 큰 수확이자 물질의 증거다. 소라나 전복을 물질의 흔적으로 본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탐라가 고구려에 바쳤다는 가(珂)도 물질의 흔적으로 보인다.(뒤의 주 26에 섭라(涉羅)를 신라 쪽과 탐라 쪽 사실로 나누어 추정한 바가 실려 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뱃물질’을 하였을 것이란 추정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보편적인 ‘뱃물질’은 연안 자원이 고갈된 19세기 후반의 일로 보인다.

3. 문신이 ‘보편적인 물질의례’라고 했고, 왜와 마한과 진한의 예를 들었다. 그런데 탐라에서는 문신의 역사가 보고되지 않고, 관습으로 남지도 않았다. 무슨 연유에서 그럴 것 같은가.

4. “인간의 물질은 바다 속에서 먹이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을 오랜 관습으로 짜 놓은 몸짓이다. 물질에는 이를 이루기 위한 관념과 법칙이 있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의미가 있다. 물질이란 ‘자연의 인간화’ 과정인 셈이다.”라 하면서 인간의 오랜 관습이었음을 밝혔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오랜 된 인간의 생존 방식이 내장되어 있고, 그것은 낚시와 화초 가꾸기와 같은 취미로 나타난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장비가 진화하면서 인간의 오랜 본능도 함께 꿈틀대어,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여성 다이버의 물질에 신비의 옷이 입혀지면 인어공주가 되는 것이 아닐까. 발표자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소개하면서, “약 4800년 전 기록인 이 신화에는 물질과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런데 탐라 신화 속에서는 그런 탐색을 하지 않으셔서 토론자가 찾아본다. 탐라 신화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용왕국 셋째 딸’은 저 깊은 바닷속을 출자처로 삼는다. 부술을 지녀 지상의 사람을 마음껏 부리는 그 능력의 저변에는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질의 능력과 연관될 수도 있겠다.

물질의 대상을 미역, 소라, 전복 등에서 약초, 진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적하셨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린다.

주제발표 5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이해와 활용

이 소 윤

(서울대학교 박사 수료)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이해와 활용

이 소 윤 (서울대학교 박사 수료)

〈목차〉

1.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2. 제주도 본풀이 관련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과 보완점
3.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활용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1.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본풀이’는 무당에 의하여 굿과 같은 의례에서 구송되는 것으로 주인공이 신이 되기까지의 내력을 담고 있어 신의 근본을 풀어낸다는 의미에서 ‘본풀이’라 불린다. 내용상 ‘이야기’이면서도 형식상 ‘노래’이므로 학계에서는 서사무가(徐事巫歌)로 지칭하기도 한다. 혹은 문자로 기록되어 전래된 문헌신화와 달리 무당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비신화로 명명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본풀

이가 유독 제주도에 풍부하게 전승되어 온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본풀이가 다른 지역의 서사무가보다 작품 수가 많고 그 비중이 더 크다는 조동일의 진단처럼[1]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본풀이와 비교해볼 때 본풀이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본풀이를 보전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2] 예컨대, 일반신본풀이는 큰굿에서 모시는 일반신에 관한 구비신화를 말한다. 당신본풀이는 각 마을의 당굿에서 모시는 당신에 관한 구비신화를 말한다. 조상신본풀이는 가문에서 모시는 조상신에 관한 구비신화를 말한다. 이러한 제주도 본풀이의 존재 양상은 한국을 넘어서도 매우 특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비서사시가 한곳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3]

특히 일반신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주도 큰굿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속의례이다. 큰굿에서는 주로 인간의 안전한 출산과 성장, 장수, 영생 등 인간 삶 전반에 걸친 기원과 농경, 목축, 어업 등 생업과 관련한 기원, 또 집이나 마을의 안전과 같은 공동체와 관련한 기원 등이 희구된다. 더불어 고대 무속제전에 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큰굿은 고대 무속제전에 대한 흔적을 어렴풋이나마 엿볼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4] 게다가 일정한 숙련 기간을 거친 후 이어지는 무당, 곧 심방의 계보는 제주도 본풀이의 전승 주체가 전문성을 갖춘 존재임을 알게 한다. 심방 가운데 마을 신당을 거점으로 삼는 심방을 "당맨심방"이라고 하는데 "당맨심방"은 특정한 마을 신당에 소속되어 마을 의례를 중점적으

1)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48면.
2) 홍태한에 따르면 한국의 무가권은 북한 지역 무가권, 동해안 경상도 지역 무가권, 전라 지역 무가권, 중서부(서울, 인천, 경기, 충청) 지역 무가권, 제주 지역 무가권으로 구분된다. 이중 제주 지역 무가권은 가장 특징적인 무가 자료를 상당량 보유한 지역으로 큰굿의 독자적인 구조로 인해 광포유형인 〈바리공주〉가 발견되지 않으며 또 다른 광포유형 〈당금애기〉 역시 여타 지역과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제주 지역 무가권은 한국 무가권 중 가장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온 것이다. 홍태한,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 양상」,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121, 130-131면.
3) 조동일, 앞의 책, 49면. 실제로 일반신본풀이로 볼 수 있는 작품은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멩감본풀이〉, 〈지장본풀이〉의 12개로 각각의 작품이 개개의 학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채록된 수를 합치면 각편의 수는 더 많다. 이는 70개 이상이 넘는 당신본풀이, 40개 이상이 넘는 조상신본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이수자, 무속신화,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5349, 2019. 10. 17. 접속.

로 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면 제주도 본풀이는 기실 의례인 '굿'과 그 의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심방', 그리고 실제로 '심방'에 의해 '굿'이 펼쳐지는 의례의 장소인 '신당',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무형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다.[5] 그러나 현재 제주도 본풀이 자체를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바라보는 인식은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1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를 비롯하여 제주도 무형문화재인 송당리 마을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 큰굿 등의 '굿'이나 송당본향당, 새미하로산당, 와흘본향당, 수산본향당, 월평다리굿당 등의 '신당', 그리고 제주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심방' 등은 제주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 본풀이는 그러한 문화재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협약 제2조 1항)"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대해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기술(협약 제2조 2항)"로 규정하고 있다.[6] 여기서 구전전통이 포함된다는 점을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1998년 구전과 무형문화유산을 분리하기보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말미암아 유네스코가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을 공식화하고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에 대한 규약을 채택했기 때문이다.[7]

기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가운데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괴로글리〉 서사시, 베네수엘라의 〈마포요〉, 키르기스스탄의 3부작 서사시(〈마나스〉, 〈세메테이〉, 〈세이테크〉), 아르메니아의 〈시스나 트레르〉 또는 〈사순치 다비트〉 등 무수히 많은

5) 좌혜경 · 강소전, 『제주의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7, 13면.

6) 유네스코와 유산, 무형문화유산이란,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무형문화유산소개/, 2019. 10. 17. 접속.

7) 임돈희, 로저 L. 자넬리, 박환영,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유산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502면.

구술 전통이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구술 전통이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것과 달리 제주도 본풀이는 무엇보다 무수히 많은 개별 작품을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에 방점을 둘 때, 제기되는 두 가지 물음은 현재 제주도 본풀이라는 무형문화유산 자원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장차 제주도 본풀이라는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물음에 대해 제주도 본풀이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을 검토하고 그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후자의 물음에 대해 무형문화유산 자원으로서 제주도 본풀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보는 것으로 답해보고자 한다.

전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살펴보는 것은 무형문화유산 자원의 보존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기술 혁명으로 인해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후자에서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화국가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작업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8] 다음 장에서는 먼저 제주도 본풀이 관련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그를 통한 보완점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제주도 본풀이 관련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과 보완점

아카이브(Archive)는 그리스어 ‘arche’에서 유래한 단어로, ‘시작’, ‘기원’, ‘통치권’ 말고도 ‘관공서’나 ‘관청’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카이브는 처음부터 문자, 서류, 관리, 관료주의 등과 관련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이러한 아카이브가 살아있는 기억보유자들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기억을 안전한 곳으로

8) 한희정 외,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한국비블리아학회, 2016, 108면.

옮겨서 고정시키는 문자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다.[9] 구술 전통은 애초에 그 특성상 무형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화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즉 구술 전통은 태생부터 아카이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이는 구비문학이라는 학문 분과 안에서 설화와 민요를 비롯한 다양한 구술 전통을 문자로 남기기 위해 행해졌던 무수한 채록과 전사 작업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본풀이 역시 일찍이 아카마쓰 지조, 아키바 다카시에 의해 처음 문자로 기록된 이후로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과의 학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록 및 전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에 의거하여 학자들이 수집한 본풀이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크게 백과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와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예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후자의 예로 한국구비문학대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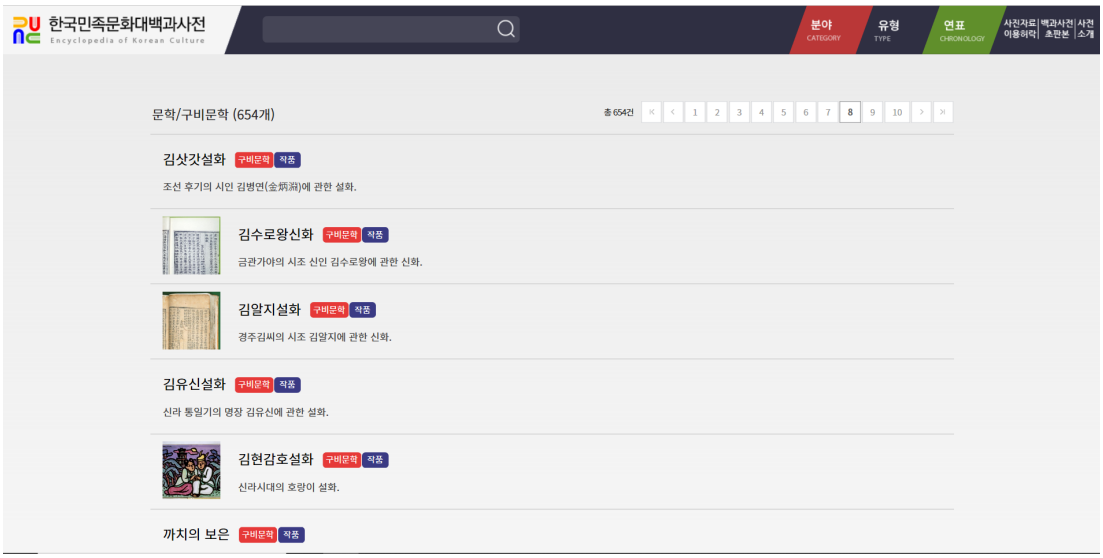
1) 백과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

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80년 이후 한국학 연구 장기 프로젝트의 소산으로 1996년에서 2001년 사이, 그리고 2017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증보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에 '분야/유형/연표'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중 본풀이 자료 검색에 용이한 카테고리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10] 그런데 '분야'는 다시 '경제 · 산업/과학/교육/문학/사회/생활/언론 · 출판/언어/역사/예술 · 체육/정치 · 법제/종교 · 철학/지리'로 나뉘고, 여기서 다시 '문학'이 '고전산문/고전시가/구비문학/한문학/현대문학'으로 나뉜다. 더 이상의 하위 분류는 없다. 물론 한국 문화를 집대성하는 대백

9)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 · 채연숙 역, 그린비, 2017, 471면.
10) '유형'은 '인물/지명/개념 · 용어/문화재/유물/단체/작품/문헌/사건/물품/제도/놀이/유적/의식 · 행사/동 · 식물'로 나뉜다.

과사전이라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기획의도를 고려할 때 상세한 하위 분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제주도 본풀이의 개별 작품 이름을 알고 있지 않는 한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통해 제주도 본풀이 자료의 전모를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②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199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동국여지승람』의 역사의식에 기초하여 국가수준의 문화편찬 사업을 염두에 두며 수행된 연구의 일환으로 일종의 디지털 향토지로서의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다.[11] 따라서 지역별로 향토문화전자대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서귀포시와 제주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속하면 왼쪽 상단의 디렉토리 분류에서 '표제어/분야/유형/시대/지역/집필자/참고문헌'이 나타나는데 이중 '분야'의 '지리/역사/성씨 · 인물/정치 · 경제 · 사회/종교/문화 · 교육/생활 · 민속/구비전승 · 언어 · 문학'에서 '구비전승' 항목을 통해 제주도 본풀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비하면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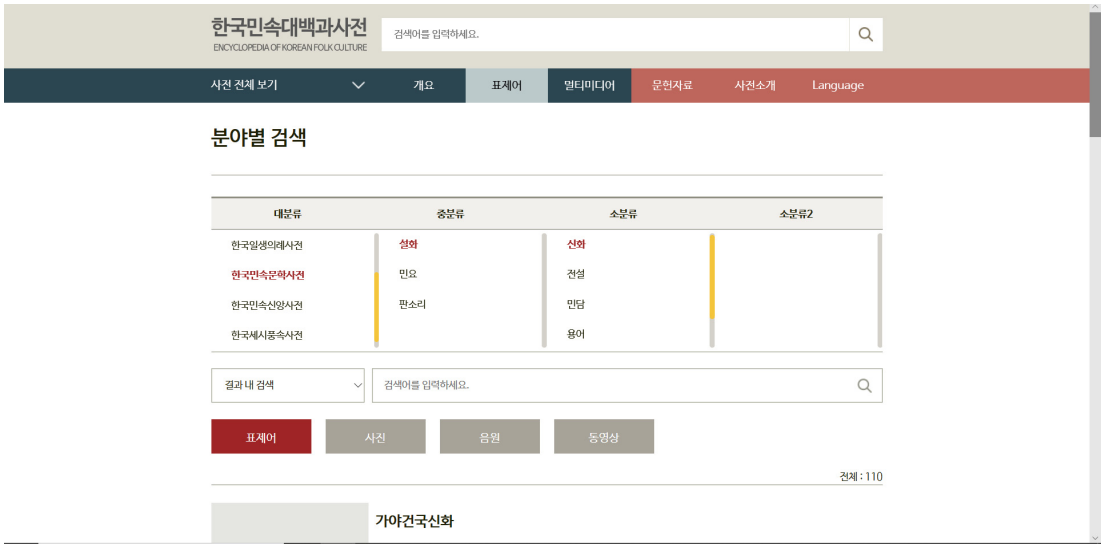
11) 김덕묵, 『민속기록학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민속원, 2016, 154-15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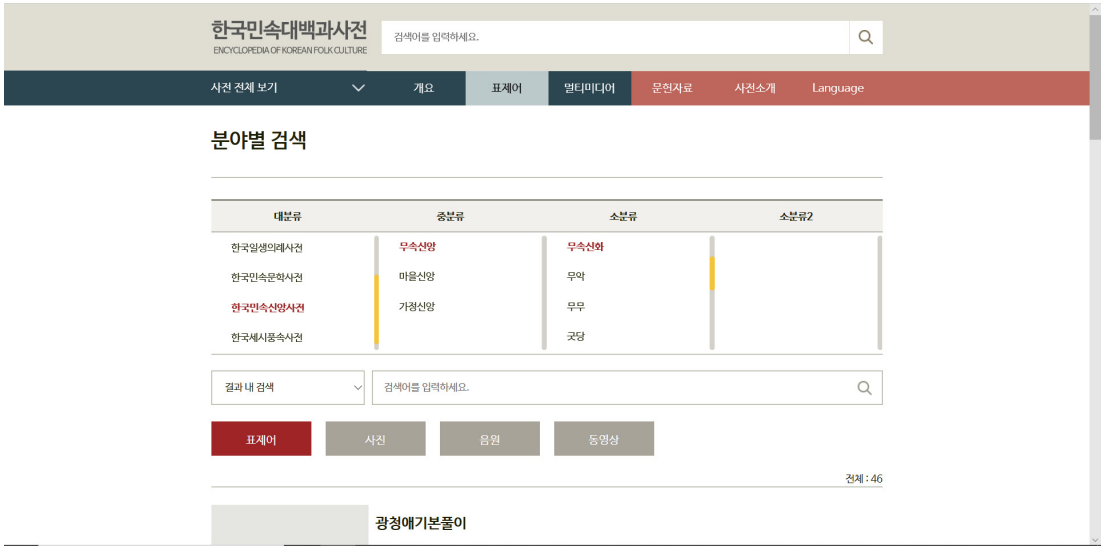
도 구비전승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나 역시 구비전승의 하위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주도 본풀이 자료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③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folkency.nfm.go.kr/kr/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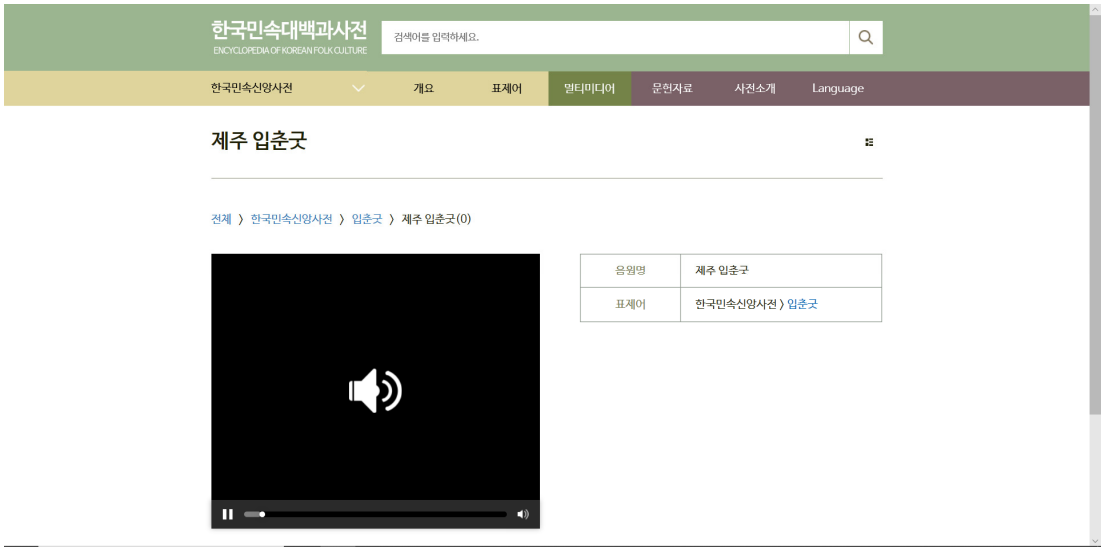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한국생업기술사전〉, 〈한국민속사회사전〉 등 8개의 사전을 통합한 전문백과사전 사이트이다. “사전학사에 표준 모델이 되는 사전”이라는 지향점에 걸맞게 여러 가지 방식의 검색 기능과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번역 기능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색 기능의 경우 ‘표제어 검색/분야별 검색/가나다 색인/집필진/지도로 보는 민속사전’을 제공하는데, 분야별 검색에서 제주도 본풀이 자료 검색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한국민속문학사전’과 ‘한국민속신앙사전’이 그것이다. 먼저 ‘한국민속문학사전’은 중분류인 ‘설화/민요/판소리’에서 다시 ‘설화’ 소분류인 ‘신화, 전설 민담, 용어, 자료’를 통해 ‘신화’에서 제주도 본풀이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민속신앙사전'은 중분류인 '무속신앙/마을신앙/가정신앙'에서 다시 '무속신앙' 소분류인 '무속신화/무악/무무/굿당/무복/무구/제물/무속문헌자료/무속인명/용어'를 통해 '무속신화'에서 제주도 본풀이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본풀이 자료가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별 검색이 미흡한 점은 다소 아쉽다. 지도로 보는 민속사전에서 '지역별'-'제주특별자치도'의 검색이 가능하지만 해당 검색에서는 24개의 자료만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상에서 위

치를 지정할 수 있는, 특정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당신본풀이에 한해서만 그 일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멀티미디어에서는 '사진/음원/동영상'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중에도 제주도 본풀이 자료가 몇몇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음원이나 동영상의 경우 가장 중요한 채록 정보가 생략되어 있으며 또한 전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문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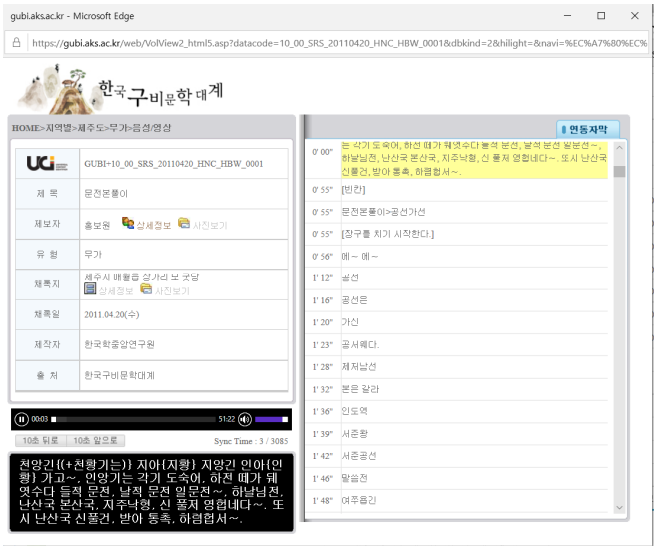


2)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

①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한국구비문학대계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출간한 『한국구비문학대계』 85권의 대부분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한 것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별', '제보자별', '유형분류별' 검색이 가능하다. '지역별' 검색은 다시 '설화/민요/무가/현대구전설화/근현대구전민요/무경/기타'로 분류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총 164편의 무가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제보자와 채록지, 채록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음원과 함께 싱크된 자막, 그리고 전사한 원문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다

만 이 역시 현재 모든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②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http://www.jst.re.kr/main.do)

제주도에서는 제주학이라는 지역학이 다른 지역의 지역학에 비해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12] 이로 인해 제주도에는 제주학과 관련한 아카이브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중 2014년 출범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아카이브로 2019년 7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49,980건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제주학 기초자료, 연구 성과, 문화자원 DB화'와 '제주학 관련 역사문헌, 민속, 구술, 영상·사진, 해외자료 DB화'를 목표로 삼는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형별 정보에서 '제주학 DB/고문헌/해외 문헌/고지도/사진/동영상/구술(음성)/신문기사/제주역사'의 카테고리를 통해 제주학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이중 '사진'과 '동영상'에서 제주도 무속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진'의 경우 '본풀이'로 검색하였을 시 221건의 결과가 나온다.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2019 송당본향당 마불림제나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의 제주무구전 사진 등이 출력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2) 김성수, 「지역 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탐라문화』 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8면.

이들 자료에 채록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동영상'도 마찬가지이다. '본풀이'로 검색하였을 시 246건의 결과가 나오는데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2004 이중춘 대역례 굿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각각의 본풀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이 등장할 뿐 구체적인 채록 정보와 전사 원문이 없다. 또한 '구술(음성)'의 '구비 전승' 항목에서는 주로 제주도 칠머리당 김윤수 심방의 본풀이 자료를 음원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 그 편수가 적을뿐더러 본풀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하고, 채록상황에 대한 정보와 음원을 전사한 원문이 없어서 자료 활용의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발견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존재하는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와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로는 지금까지 축적된 제주도 본풀이 자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형태의 제주도 본풀이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 요청된다. 물론 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다소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제주도 본풀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확립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와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바로 이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에 연결시키는 것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일종의 '번역'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초등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이 그 주 이용 대상이 된다면,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연구자가 그 주 이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 본풀이가 문화콘텐츠로서 각광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와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의 중간 단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원자료에서 드러나는 제주도 방언을 어느 정도 '번역'한 자료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경하에 따르면 고전 번역을 위한 크고 작은 기획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비문학 분야는 이러한 분위기에 다소 동떨어져 있다. 그는 굿판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무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뿐 아니라 번역을 통한 대중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요컨대 채록된 자료는 많지만 그것에 대한 주석본은 매우 적고, 기념비적인 주석본은 있지만 본격적인 번역서는 드물다"[13]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보고된 자료를 제대로 주석하고 번역하여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작업 또한 긴요하다"[14]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 OCN에서는 내년 방영을 목표로 제주 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판타지 퇴마물 드라마 〈아일랜드〉를 준비하고 있다. 웹툰과 영화로 연이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신과 함께〉를 넘어서 여전히 제주도 본풀이가 지닌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15]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에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main.do)을 연결시켜 창작소재로서 제주도 본풀이 자료에 대해 일원화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창작자가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간략한 정보와 번역된 줄거리, 방언 그대로의 원문 등에 자유자재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닷컴의 신화/전설 유형별 DB에서 〈세경본풀이〉를 비롯한 몇몇 제주

13) 이경하, 「서사무가 채록의 문제점과 번역의 가능성」, 『한국문화』 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98면.
14) 이경하, 위의 논문, 106면.
15) 김나라, OCN 2020년 라인업 발표 "총 11개 작품… '걸캅스' 드라마화", 마이데일리, http://naver.me/5Dk7D0A4, 2019. 11. 10. 접속.

도 본풀이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신본풀이에 국한된 것으로 제주도 본풀이의 풍부한 전승 양상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문화콘텐츠닷컴의 신화/전설 유형별 DB를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에 연계시킨다면 다른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확충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본풀이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백과사전이나 채록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원문 제공이 없는 원자료의 문제점 등 앞서 살펴본 디지털 아카이브에 나타난 부족한 점들이 앞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제주도 본풀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자료를 전반적으로 확충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제주도 본풀이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연령대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조사한 기존의 자료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개인이나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원문 등을 기존의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작업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본풀이'가 하나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공공재라는 관점이 수립되어야 가능할 터다.

또 〈바리공주〉의 경우 여러 이본의 원문이 문화콘텐츠 닷컴에 탑재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 제주도의 대표적 본풀이인 〈세경본풀이〉는 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의 동영상과 줄거리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채록 정보와 전사 원문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미 탑재되어 있는 자료들부터 채록 정보와 전사 원문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들은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일례로 영국의 British Library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소유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연구자까지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연구자를 위한 웹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연구자가 관련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 이를 참조할 때 제주도 본풀이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도 연구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16) 정연경, 최윤경,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아르케, 2017, 82-83면.

3.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활용 방안

메간 윈젯은 2008년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식정보 제공기관으로서 '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 개념을 창설한 바 있다.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합성어인 라키비움은 기존에 각각의 기관이 지니고 있었던 개별적 기능을 융합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지식정보 제공기관을 말한다. 라키비움은 출판물과 기록물, 유물 등 다양한 자원을 매체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수집, 정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중적 역사문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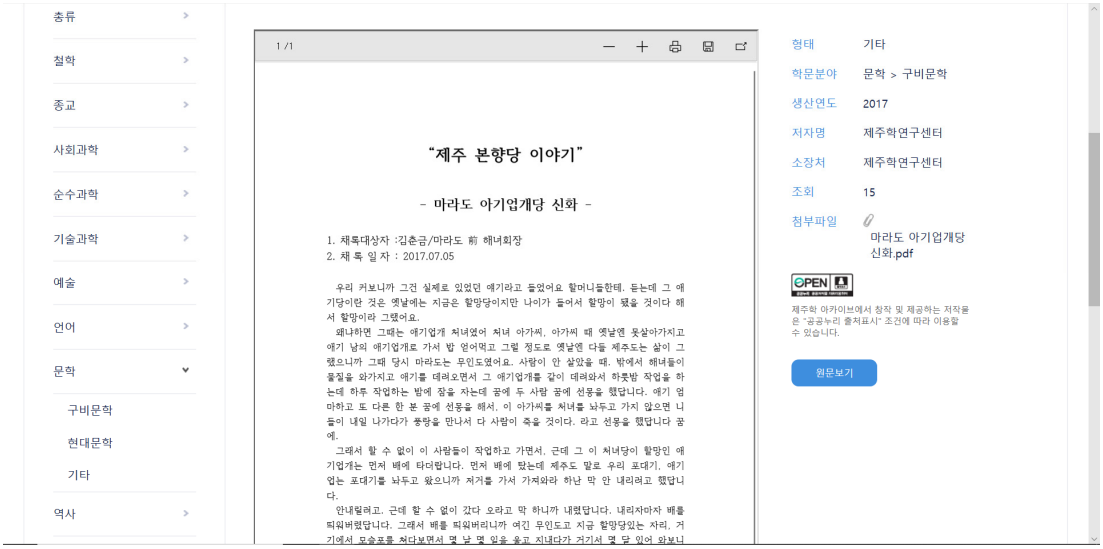
현재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라키비움과 가까운 형태를 꼽자면 단연 제주학연구센터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학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소유한 디지털 아카이브로 이를 통해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 기록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제주학연구센터의 다양한 자체 활동과 업적들은 제주학연구센터가 단순한 기록관에서 벗어나 라키비움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자양분을 이미 스스로 내재화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예컨대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 동안 『제주도 전설지의 특성 및 자원화』, 『제주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라는 제목으로 제주의 전설이나 신화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을 조사하여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설지는 마을이나 집안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실존 인물과 관련한 장소를 선정했고 신화지는 이야기의 현장인 당과 그에 관한 신화가 남아 있으며 신앙민과 의례가 존재하는 장소를 선택했다.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해서는 신화지에 관한 탐색이 주목할 만한데 제주시 칠머리당을 비롯하여 조천읍 신흥리 본향당, 서귀포시 서귀본향당, 성산읍 신천리 현씨일월당 등을 조사하고 해당 당신본풀이에 대한 내용을 구술채록하여 제주학아카이브에 DB화하고 있다.[18)] 이들 자료는 모두 채록대상자와 채록일자를 밝히고 있으며

17) 노명환 외,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HUiNE, 2017, 106-107면.
18) 좌혜경 · 강소전, 앞의 책, 1-3면.

전사한 원문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하여 '라키비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신화지에 관한 아카이빙을 책자로 발간하여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신화지에 대한 아카이빙 가운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전시함으로써 도서관 및 박물관으로서 역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19] 여기서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마을과 마을 신당, 그리고 당신본풀이를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신당 Day'나 '신화 Day' 등을 만들어 특정 날짜에 본풀이에 관심을 지닌 일반인들이 여러 군데의 마을 신당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 구연자가 들려주는 당신본풀이를 통해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이해하고, 끝으로는 당신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의 굿을 통해 제주도 본풀이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험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 본풀이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훼손, 소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19) 그리고 이는 일부 이미 실행되고 있기도 하다.

무형문화유산은 자료 수집 등의 채취단계, 고증과 복원을 위한 가공단계, 무형문화유산 속 시공간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표현하는 단계, 문화유산이 존재했던 시공간의 캐릭터를 움직여 콘텐츠화, 서비스화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다.[20]

특히『제주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를 참조하면 현재 의례와 신당, 본풀이가 남아 있는 지역이 많지 않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21] 신당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짐작대로 단골의 감소이지만 신당 일부는 개발사업을 이유로 파괴가 되기도 했다.[22]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주체가 되어 마을과 마을 신당, 당신본풀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한다면 이는 점차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이 되어 더 이상 리조트 부지 등을 이유로 제주도 본풀이가 구송되는 공간인 신당이 없어지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을과 마을 신당, 그리고 당신본풀이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그에 앞서 일종의 구술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크로노베리 지역(스웨덴 남부)에서는 구전 예술을 진흥하고 재활성화하는 '전설의 땅'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크로노베리 구술 네트워크는 '위기에 처한 이야기 구술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크로노베리 지역을 필두로 구술 전통의 부흥 조치', '이야기 구술 및 청취 공간 마련', '이야기 구술의 새로운 기능, 전승방법 모색', '새로운 구술 공간과 청중 개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시민, 이야기 구연자, 전문가들의 전국 차원 또는 지역 차원의 협력', '전체의 복지를 위해 이야기 구술 가치 보존'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크로노베리 지역 '전설의 땅'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의의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 보존의 모범사례로 지정되어 있다.[23]

20) 한희정, 앞의 논문, 103면.
21) 좌혜경 · 강소전, 앞의 책, 110면.
22) 송정희 · 최현,「공동자원 제주시 신당의 소유 유형에 따른 관리 상태」,『역사민속학』54,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312면.

크로노베리 지역의 '전설의 땅' 프로그램을 참조할 때 제주도 본풀이 역시 그에 대해 관심을 지닌 시민과 이야기 구연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술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이 요청된다. 만일 그러한 구술 네트워크가 조직된다면 해당 네트워크는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 본풀이의 부흥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제주도 본풀이의 새로운 구술 공간과 청중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예를 들어본다면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의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던 이 건물 1층에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사무실과 함께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관련한 전시관이 있다. 2층에는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교실이 열리기도 하는 등 주민들의 전통문화 향유공간으로 사용되는 공연장이 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에서는 영등손맞이를 비롯하여 영등송별제와 같은 축제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매 만들기와 연물악기 연주 등의 체험 교육도 제공하고 있었다.[24]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 가운데 정작 본풀이와 관련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주지하듯 〈영등본풀이〉는 실제 굿에서 구송되지는 않지만 심방들 사이에서는 영등신의 내력담이 다양한 버전으로 구전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

23) 인류무형문화유산, 크로노베리 지역(스웨덴 남부)의 구전 예술을 진흥하고 재활성화 하는 '전설의 땅' 프로그램,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62348&docId=5809020&categoryId=65560, 2019. 10. 22. 접속.

24) 2019년 6월 24일 제주도 답사차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을 방문하였었다. 아래 사진은 그때 촬영한 것이다.

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직접 접근하는 것 또한 어려울 여지가 있다. 이럴 때 제주학연구센터와 연결된 구술 네트워크, 곧 제주도 본풀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과 이야기 구연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술 네트워크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여 외눈박이섬과 관련한 영등신의 내력담이든 혹은 영등할망과 관련한 영등신의 내력담이든 제주도 본풀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한다면 이는 분명 제주도 본풀이를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제주도 본풀이를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제주도 본풀이 관련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하고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 활용책에 관해 서술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제주도 본풀이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을 제작하고 그 플랫폼에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를 연결시켜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서술한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닌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터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라키비움화와 구술 네트워크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라기보다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조망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에 가깝다. 마을과 마을 신당, 그리고 당신본풀이를 연계한 프로그램과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에서 〈영등본풀이〉의 여러 버전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극히 소략하다는 점에서 본고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논저

김덕묵, 『민속기록학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민속원, 2016.

김성수, 「지역 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탐라문화』 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노명환 외,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HUiNE, 2017.

송정희 · 최현, 「공동자원 제주시 신당의 소유 유형에 따른 관리 상태」, 『역사민속학』 54,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 · 채연숙 역, 그린비, 2017.

이경하, 「서사무가 채록의 문제점과 번역의 가능성」, 『한국문화』 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임돈희, 로저 L. 자넬리, 박환영,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유산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정연경, 최윤경,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아르케, 2017.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좌혜경 · 강소전, 『제주의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7.

한희정 외,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한국비블리아학회, 2016.

홍태한,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 양상」,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인터넷 자료

김나라, OCN 2020년 라인업 발표 "총 11개 작품… '걸캅스' 드라마화", 마이데일리, http://naver.me/5Dk7D0A4

유네스코와 유산, 무형문화유산이란,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무형문화유산소개/

이수자, 무속신화,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5349

인류무형문화유산, 크로노베리 지역(스웨덴 남부)의 구전 예술을 진흥하고 재활성화 하는 '전설의 땅' 프로그램,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62348&docId=5809020&categoryId=65560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 http://www.jst.re.kr/main.do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kr/main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주제발표 6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제안

허 용 호

(한예종 교수)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제안[1)]

허 용 호 (한예종 교수)

〈목차〉

1. 여는 말
2. 한 번의 시도와 실패
3. 진행 중인 연구와 하나의 제안
4. 맺는말

1. 여는 말

이 글은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그 활용을 위한 필자의 시도와 제안을 담은 것이다. 필자의 시도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었고, 한동안 필자의 연구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이다. 그것을 다시 꺼내어 보고, 그 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말해보려 한다. 이어서 필자는 하나의 제안을 하려 한다. 그 제안 역시 필자가 시도하다가 중단된 것이다. 전자의 시도가 일종의 실패담이라면, 후자의 시도는 현재

1) 이 글은 인용 및 각주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글입니다. 필자의 생각이나 제안을 풀어놓은 것이기에 일체의 인용을 금합니다.

에도 진행 중인 것이다. 다만 이러저러한 사정 탓으로 뒤로 미루었던 것을 다시 꺼내어 하나의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려 한다. 필자의 글은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맺는다. 앞서 논의한 구체적인 시도와 제안을 바탕으로 이후 제주도가 주도권을 잡고 수행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2. 한 번의 시도와 실패

필자는 2000년대 초반에 「신성 가족의 계보 추적 연구 - 제주도 '송당계 마을신'의 분포와 가계 연구」라는 연구를 진행했었다. 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주도 마을신앙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을 신격들을 단순 대조·비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보·계열화를 시도하여, 마을 신격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특정 지역별로 분포된 신격들의 계열과 계보를 살피고, 각 신격 계열 간의 연결을 통해 거대한 제주도 신격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송당계 신격의 계보 작성 또는 송당계 신성 가족 계보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주도 마을신앙 데이터베이스 활용 연구의 가능성은 크게 '마을 신격 이름을 바탕으로 한 유형 분류', '마을신앙 전승의 지역적 같음과 다름을 따져보기', '신격의 계보 작성' 등의 세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중 세 번째 방향을 지향하는 첫 단계로서 송당계 신격의 계보 작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연구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송당 2세대 신격들의 현지 신앙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송당계 신격들이 기술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 2세대 신격(아들)들이 좌정한 해당 지역의 신앙 양상을 추적하여, 실제 2세대 신격들이 신앙 대상으로 모셔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현지 신앙 양상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지면, '2세대 신격의 정체 파악'이 이어진다. 송당 2세대 신격들은 각각 해당 지역에

좌정하여 나름의 가계를 이루는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계열의 신격 계보와의 관계 추적'이다. 송당계가 아닌 다른 신격 유형과의 관계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송당계 신격의 분포도 및 가계도 완성'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송당계 신격의 가계도 및 분포도를 그려내는 것이다.

송당은 제주시 구좌읍에 속한 마을이다. 송당리 본향당의 당신들에 얽힌 내력담이 담긴 〈송당본향당본풀이〉나 마을 안팎에 전하는 구술 전승에 따르면, 웃손당에 좌정한 '백주또'와 알손당에 좌정하였다는 '소로소천국'이 낳은 자식들 또는 손자들이 제주도 여러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였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 당신앙의 원조로 일컬어지고 있다. 송당리에서 전하는 구술 전승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1세대인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의 근본과 이들 사이에 태어난 2세대 신격들의 정체, 그리고 3세대의 존재 양상 등이다. 이 주목 사항을 바탕으로 송당계 신격들의 존재 양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술자	①삼도동 김오생	②하도리 양기정	③곽지리 이상문	④세화리 고대중	⑤구엄리 김을봉	⑥하귀리 강종규	⑦삼도동 김오생2
1세대 (후손의 수)	웃손당 금백조 셋손당 세맹조 알손당 소로소천국	웃손당 금백조 셋손당 세맹조 알손당 소천국 ᄇᆞ름웃또	웃손당 백주할망 알손당 소천국	손당머리 백주님 알손당 소천국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맹조 알손당 소로소천국 멍동ᄆᆞ를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맹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첫째 아들	거멀(덕천) 문국성	거멀 문곡성 상오한집 문곡성	송곡성 (첩은 오백장군 딸, 요왕국 말젯딸 아기도 부인) 이후 문곡성으로 이름 바뀜	거멀 문국성	웃내끼 광오당	정이 웃내끼 광오당	거머 문곡성
둘째 아들	대정 광정당	성안 시내왓당 대천오	삼방산 삼방산신	대정 광정당	대정 검은질	대정 웃거믄질 광정당	대정 광정당
셋째 아들	웃내끼 (신풍하천)	대정 광정당	대정 광정당 ᄇᆞ름목 산신	정이 시선당	웃검은질 광정당		웃내기
넷째 아들	내왓당 광양당	정이 시선당 (정의, 성읍)	시내 ᄇᆞ름목 내왓당 산신	성안 내왓당	시내 내왓당		과영당 오오전 (이당의 신위가 오위임)
다섯째 아들	선앙당 ᄃᆞᆯ윗당	수산 하로하로산	짐녕 괴벗깃또 산신	갯머리 멍동소천국	과영당		열두시내왓당
여섯째 아들	궤로(한동)본산국	토산 대천오	거루 명당또 산신	ᄃᆞ리 교래앞	서낭당		서낭당 (표선성읍 서낭당)
일곱째 아들	삼문이 서당 오라서 과양당에 혼디 처무가 됨	짐녕 태ᄌᆞ님	조천면 ᄃᆞ리 송당산신	정이 토산	운지당		궤로 본산국

구술자	①삼도동 김오생	②하도리 양기정	③곽지리 이상문	④세화리 고대중	⑤구엄리 김을봉	⑥하귀리 강종규	⑦삼도동 김오생2
여덟째 아들	7과 같음	조천면 굇드르 (와흘리 고평동)	토산당 ᄇᆞ름목 산신	짐녕 괴노기	각시당		걸머리 큰도안전 (아라2동)
아홉째 아들	ᄃᆞ리(교래) 산신또	ᄃᆞ리			ᄀᆞ시락당 용예부인		ᄃᆞ리 본토지관 한짓님
열째 아들	궷드르(고평동) 산신또	웃내끼			차귀 허리공		
열한째 아들	와흘산신또	차귀 허릿공 (한경면 고산리)			두미 살레ᄆᆞ를		
열두째 아들	세미(회천)산신또	괴 본산국			버렝이		
열셋째 아들	도련	와흘 산신또			ᄌᆞ물캐도 영감또		
열넷째 아들	감을개(삼양)시월도병서	세미 산신또			대섭밭 영감또		
열다섯째 아들	알서늘(선흘)산신또	도련			귀덕 해모살		
열여섯째 아들	김녕궤눼기	감을개 시월도병서또					
열일곱째 아들	토산서편한집	알서늘 산신또					
열여덟째 아들	도들봉	도들봉 오름허리					
3세대			백주할망이 중과 관계하여 아들 여덟(일곱 혼동)과 소천국 사이에서 낳은 딸 여덟이 결합하여 손자들 78명을 낳고, 손자들이 각처 본향으로 배치됨.				

이 표를 보면 송당계 자손들은 적게는 2형제, 많게는 18형제가 나열되고 있다. ‘금백주’와 ‘소로소천국’의 아들들은 제주도 각지에 좌정하고 있다. 대체로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표선면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당계 신격들의 신앙 지역이 제주도 북동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위에서 정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송당 2세대 신격들의 현지 신앙 양상 확인’, ‘2세대 신격의 정체 파악’, ‘다른 계열의 신격 계보와의 관계 추적’, ‘송당계 신격의 분포도 및 가계도 완성’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를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인 ‘송당 2세대 신격들의 현지 신앙 양상 확인’은, 송당계 신격들이 나열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 2세대 신격(아들)들이 좌정한 해당 지역의 신앙 양상을 추적하여, 실제 2세대 신격들이 신앙 대상으로 모셔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물론 이 확인 작업은 앞의 ①에서 ⑦까지의 자료별로 이루어진다. 신앙 대상으로 모셔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2세대 신격의 정체 파악이라는 두 번째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2세대 신격의 정체 파악'은 송당 2세대 신격들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본다. 웃내끼 하천(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송당 본향당신인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의 아들이 좌정하고 있다.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의 아들이 웃내끼에 좌정하고 있음은 자료 ①, ②, ⑦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①과 ⑦에서는 '말젯아들'(세 번째 아들)로 ②에서는 열 번째 아들로 언급된다. 그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전승을 보면, 이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며 이름이 '개로육서또'라는 점이 밝혀진다. 동시에 그의 처가 '요왕국대왕 말잣딸'이며 첩은 '새금상따님아기'임도 확인된다.

한발 더 나아가 신풍리 인근 지역인 표선면 하천리의 전승을 겹쳐본다면, '개로육서또'는 'ᄇᆞᄅᆞ못도'라고도 불리며, 그 아들 삼 형제가 표선면 하천리 본향당, 세화리 본향당, 토산리 본향당에 좌정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개로육서또' 혹은 'ᄇᆞᄅᆞ못도'의 세 아들, 곧 송당 3세대 신격들 역시 좌정한 해당 지역에서 나름의 가계를 형성한다. 송당계 신성 가족의 한 가지를 구성하는 3세대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구좌읍 송당리에서 비롯된 셋째 아들의 가계가 위에서 보듯이, 성산읍 신풍리에서 일가를 이루고, 다시 표선면으로 확산하여 가면서 확장된 가계도를 만들어가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해신계열인 '요왕국대왕 말잣뚤'과 '요왕황제국 족은뚤아기', 일뤠당계열인 '신중또'와 '서당팟 일뤠중저', 그리고 외래신 계열의 '새금상뚜님아기' 등과 처첩 관계를 맺으면서 송당 출신 신성 가족의 외연을 확산시키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송당계 신격 유형이 아닌 다른 신격 유형과의 관계 실마리를 찾아낼 수도 있다. 다른 계열의 신격 계보와의 관계를 추적하는 작업은 이 연구 이후 진행될 '제주도 신격 분포도 및 계보도'를 만들어낼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실례를 들어본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본향당인 울레ᄆᆞ르하로산당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한라산계이면서 송당계이다. 이 신격은 창천 고창학 심방의 구송에 의하면, 한라산 기슭에서 솟아난 아홉 형제 중 첫째로 일

컬어진다. 그런데 성산읍 수산리 심방 조옥선이 구송한 본풀이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나타난다. '울레ᄆᆞ르하로산'은 중국에서 귀양 온 신으로, 송당 금백주와 혼인하였다가 별거를 하고, 용왕녀와 혼인하였다가 금백주와 다시 살다가 수산 본향당으로 옮겨 좌정했다고 되어있다. 이로 본다면, '올레ᄆᆞ로하로산'은 금백주의 두 번째 남편인 셈이다. 그리고 한라산계열의 신격들은 송당 계열의 신격 중 1세대에 해당하는 신격들로 위치 지워진다.

한편 앞의 '자료 ② 구좌읍 하도리 양기정 심방 구송 자료'에서 수산리 본향당신은 '수산 하로하로산'으로 일컬어지며, 송당 본향당신 금백주의 다섯째 아들로 나와 있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한라산계열의 신격들은 송당 계열의 신격 중 2세대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수산리 본향당신이 송당신 계열의 1세대급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2세대급에 해당하든지, 수산리 본향당신 본풀이는 계열 간의 관계를 푸는 데 실마리가 되는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송당계 신격과 관련된 전승 자료에 의하면, 송당계의 신은 '소로소천국'과 '백주또'를 정점으로써,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 손자 이른 여덟, 질소생 삼백예순다섯의 신격들이 존재한다. 전승 자료상으로 분명한 것은 아들 신격 열여덟 정도이고, 딸을 위시한 다른 신격들의 존재나 정체는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송당 출신 신성 가족의 계보를 정리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분포도 역시 그려보려 했다. 이 연구는 사전에 비교적 조사가 풍부하게 이루어진 제주도 무속 관련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가공 연구 혹은 활용 연구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명쾌하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장기간에 걸친 현지 조사와 현장조사의 필요성이다. 더구나 그 현지 조사와 현장조사는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기존에 조사된 자료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실패한 원인이 있다. 그것은 마을신앙 혹은 심방이 갖는 자기중심적 지향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마을신앙에서 바탕이 되는 우주관은 철저하게 자기 마을 중심적이다. 심방들이 구술하는 본풀이 역시 철저하게 그 심방이나 해당 마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마을과 겹쳐 읽기를 통한 체계화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지만, 그것

은 일종의 중앙집권적인 혹은 폭력적인 가공의 산물이다.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했기에 이 시도의 실패는 자명했다. 이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리하게 자료의 활용을 시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은 없는가? 마을신앙의 지향을 염두에 두면서 2차 가공적 연구를 할 방안은 없는가?

3. 진행 중인 연구와 하나의 제안

중앙집권적인 사유에 편향되어 마을신앙이 갖는 독자성과 고립성을 간과했던 필자는 또 다른 연구를 기획했다. 그 연구 기획은 바람신 관련 연구였다. 그 발상은 역시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 영등굿이라 일컬어지는 바람신 관련 신앙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 역시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2차 가공 연구이자 활용 연구의 일환이었다. 이 연구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의 문제의식을 진행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앞선 연구처럼 실패를 하고 접은 것이 아니라, 현재 중단이 된 기획이다. 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필자가 진행 중인 연구의 제목은 「한국 '바람신' 연구: 존재 양상과 분포의 특징을 중심으로」이다. 필자가 바람신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당연히 제주도 영등굿 때문이다. 동시에 앞서 수행했던 연구의 실패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한국의 신 혹은 신격을 살펴보면 무질서하고 복잡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혹했던 사람들이 나름의 정체성을 살린다고, 한국의 신화 혹은 신격에 주목하며 나름의 시도를 하거나 불평하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다 보면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해 버린다. 그리고는 왜 한국의 신 또는 신화는 이러한가? 하면서 문화적 저열함으로 몰고 가거나 혹은 연구자들의 게으름을 탓하며, 아직도 이런 작업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곤 한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전환한다. 그런데 이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원래 그리스 로마의 신들 역시 그리 질서 있고, 분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소설이다. 그 신들의 분화 역시 소설이다. 따라서 우리의 신화 혹은 신격의 질서화된 위계를 위해서는 소설 하나 쓰면 된다.

신들의 위계 혹은 신들을 기능을 질서화하려는 시도는 간헐적으로 있었다. 학계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고등종교처럼 신들을 질서화하려는 시도는 중앙집권적·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식의 지배적 발상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도 신들을 체계와 계통 계열화하려는 시도는 이어진다. 필자 역시 그러하다. 필자 역시 중앙집권적 독재자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 그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무질서한 대상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계통 계열화하여 어떤 원리 혹은 논리를 찾아내는 것은 결코 독재적이지 않다. 필자가 바람신 혹은 바람신 유형의 신격들을 살펴보려는 것도 그러한 의지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바람신'인가? 이러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먼저 선언하려는 조급함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 '바람신'하면 뭔가 멋있어 보인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보다 빨리 드러내려는 소산에서 기인한다. 더구나 그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도 크다. 또 본문에서 언급되겠지만 필자가 나고 자란 곳에서 해마다 한국 바람신의 대표인 영등신을 모시는 의례를 해왔고 지켜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격연구에서 인문지리적 혹은 사회 문화적 배경과의 연관성만을 살펴본 편향을 조금 벗어나 보려는 의도도 여기에 담겨있다. 신격 분포와 혹은 신격화와 자연지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문헌 자료와 구술 전승 자료 모두를 일별하여 바람과 관련된 신격을 포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표 신격 명칭	세부 명칭	출전	전승 형태	비고
풍백(風伯)	풍사(風師), 비렴(飛廉), 풍신(風神)	단군신화, 산해경 등	문헌 전승	
손(巽)	손이(巽二)	주역?		
풍운뇌우신(風雲雷雨神)		조선의 귀신	문헌 전승	서울, 제주에서 매년 제사를 지냈음
영호영동신(嶺湖靈童神)	영등(迎燈), (嶺登), (永同)	조선의 귀신	문헌 전승	영등신 계열
손돌	선돌이, 손돌맹이, 손돌공, 손사공, 손돌이, 손두레, 솔돌	조사보고서	문헌 전승(둥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구술 전승	전국적 전승. 특정 지역에서 널리 퍼지고 의례도 행해짐
영등	연등할머니, 연등마마, 크트머리 할매, 크트머리 손, 마지막 손, 막손, 영등할미, 이월할미,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하르방, 영등손	한국무속의 연구 조사보고서	문헌 전승, 구술 전승	신격이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기도 함. 전국에 퍼짐. 특정 지역에 특별한 전승 형태가 보임.
일문관바람운님		한국무속의 연구	문헌 전승, 구술전승	제주도 서귀본향당 본풀이
풍사신(風司神)		한국무속의 연구(불설풍신제석경)	문헌 전승	제석, 오방신장 등과 융합됨

위에서 거칠게 정리한 바람신 양상을 보면 손돌, 영등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믿음의 정도가 전국적 혹은 일정한 판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풍백' 관련 전승이나 '풍운뇌우신'[1]의 경우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의례 전승도 이미 끊어 진지 오래다. 반면에 영등이나 손돌의 경우 그 전승이 이어지고 있다. '영호영동신'[2]이나 '풍사신'[3]은 영등신과 연관된 의례에 관련되어 있다.[4] '일문관바람운님'의 경우 제주도 서귀 본향당에서 모셔지는 마을신격으로 '한라산 바람을 신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어 흥미로운 대상[5]이지만, 단일 마을에 한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있거나 특정 지역에서 나름의 판도를 구축하고 있는 바람신에 주목한다. 따라서 주된 관심은 손돌과 영등신 유형에 집중되게 될 것이다.[6]

손돌 관련 전승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7] 2000년 이후 전국의 세시풍속을 지역별로 대표 조사한 성과에 따르면 87곳에서 조사되어 있다.

1) 서울 남쪽 '靑坡驛洞亂杉間'에 단이 설치되었고 신좌는 남향이며 중춘과 중추 두 계절에 제사지냈다고 한다. 이 풍우뇌우신은 제주도에서도 매년 제사지내고 있다고 한다. 村山智順, 『조선의 귀신』, 동문선, 126면.

2) '영호영등신'은 迎燈, 嶺登, 永同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풍신으로서 2월에 제사지낸다고 되어 있다. 『조선의 귀신』, 141면.

3) 『佛說風神 帝釋經』에 언급되는 신격이다. 『불설풍신제석경』은 전남 순천의 무가(巫家)에 소장되어 있던 무경(巫經)으로 2월 연등할머니 제사 때 외우는 것이라고 한다. 赤松智城 ·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57면.

4) 불경에서도 바람신을 찾아볼 수가 있다. '주풍신(主風)神)'이 그것이다. 주풍신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제 6 선현행(善現行)에 해당'한다고 한다. 화엄경에서는 제 6 선현행 중 10 바라밀로서 열분의 바람신이 나온다. '무여광명주풍신한정섭', '보현용업주풍신', '풍격운당주풍신', '정광장엄주풍신', '역능갈수주풍신', '대성편후주풍신', '수초수계주풍신', '보행무애주풍신', '종종궁전주풍신', '대광보조주풍신'이 그것이다. 안태희 공저, 『화엄신장』, 불교통신교육원, 이화문화사, 1994.

5) 『한국무속의 연구』, 384면. 이에 대해서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바람신 유형이나 한 두 곳에만 나타나는 바람신에 대해서는 논의를 달리하여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바람신을 염두에 두며 동아시아 차원의 바람신 논의와 서구의 바람신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본고를 진행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7) 『구비문학대계』에도 수 편의 관련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지역	조사지역 (수)	관련 풍속 이름	비고
강원도(11)	정선, 횡성(3), 홍천(3), 철원(1), 영월, 춘천, 철원	**손돌맹위추위(6),** 손돌추위(1), 손돌추위(1), 손두레추위(1), 손돌이죽은날(1), 손돌날씨(1)	
경기도 (19)	옹진, 수원, 안산(2), 화성(2), 의왕(2), 안성, 양주, 부천, 하남, 고양(2), 광명, 김포, 부천, 가평, 경기	**손돌추위(11),** 손돌이추위(4),손돌날(2), 손돌이날(1), **손돌 진혼제(1)**	
충북 (13)	영동(3), 청원(3), 청주(4), 충주(2), 옥천(2)	**손돌맹이죽은날(10),** 손돌맹위추위(2), 손돌추위(2)	
충남 (19)	연기, 홍성, 예산(3), 천안(2), 부여(2), 공주(2), 보령, 아산(3), 금산(2), 당진, 청양	**손돌맹이죽은날(6), 손돌맹이추위(6),** 손돌이추위(3), 손돌추위(2), 손사공죽은날(1), 손돌맹이바람(1), 손돌바람(1)	
전북 (4)	익산(2), 전주, 진안	손돌맹이추위(2), 손돌추위(2)	
전남			조사 안 됨
경북 (17)	칠곡, 달성(2), 울릉(2), 영양(3), 영덕(1), 포항(2), 성주(1), 군위(1), 구미(3), 고령(1),	**뱃사공얼어죽은날(4),**손돌맹이추위(3), 뱃사공죽은날(1), 손돌뱅이추위, 손돌추위(2), 손돌이추위(2), 손사공죽은날, 손사공얼어죽은날(1), 손돌뱅이얼어죽은날,	
경남 (3)	양산(1), 함안(2)	손돌추위(2), 손사공얼어죽은날	

손돌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바람 유래담, 추위 유래담, 지명유래담, 의례기원담의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지역과 관련해서 전승되는 양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전국적으로 바람 유래담으로 전승되고 있다. 대략 음력 시월 이십일 혹은 시월 하순 경의 '시월 한풍(寒風)'(초겨울 북서풍)[8]을 환기시키는 유래담이다. 이는 추위 유래담도 마찬가지이다.[9]
- ○ 지명유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지역이 두드러진다. 이는 실제 손돌목이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점과 연관이 있다.
- ○ 손돌과 관련한 명칭이 지역적 특색을 보인다. 충청, 경북, 강원을 중심으로 '손돌맹이'라는 명칭이 우세하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 '손돌' 혹은 '선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경기도 강화와 김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례도 전승되고, '손돌공'이라는 이름으로 격상되어 불리기도 한다.
- ○ 전남, 경남 지역에는 관련된 전승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는 손돌 전승이

8) 손돌바람이 북서풍이라면, 영등바람은 남서풍이다.

9) '손돌풍' 또는 '손돌추위'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광성진 손돌목에는 매년 음력 시월 이십일에 관례적으로 북서풍이 휘몰아치는 돌풍이 불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온다. 이를 '손돌이 추위', '손돌풍'이라 부른다.

어떤 지역적 특징과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하게 한다.

○ 손돌 이야기 혹은 손돌 전설은 전형적인 원혼 이야기이다. 의례 역시 이 원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며, 손돌풍은 이 원혼이 품은 한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을 관장한다는 의미의 신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엄밀하게 볼 때 바람신 이라기보다는 원한을 바람으로 추위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듯싶다.

손돌 관련 전승이 주로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등 관련 전승은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한다. 현재에도 영등을 신격으로 모시며 전국적으로 의례가 행해지고 있으며 관련 구술 전승도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이 여러 문헌에 전하고 있다.[10] 그동안 현지 조사된 보고서를 참조하면 대략 200이 넘는 지역에서 영등 관련 전승과 의례가 행해지거나 행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도	분포지역(시군단위)	의례의 특징	비고
경기도	(서울)	개인적 가정의례	
강원도	고성, 양양, 강릉, 삼척, 동해, 횡성, 평창, 속초, 인제, 태백, 춘천, 영월, 강릉		
충청북도	영동, 청원, 옥천, 단양, 괴산, 충주, 제천		
충청남도	연기, 금산, 논산, 금산		
경상북도	김천, 구미, 문경, 경주, 경산, 영양, 포항, 군위, 청도, 예천, 울릉, 울진, 상주, 청도, 청송, 달성, 의성, 영주, 영덕, 영천, 봉화, 성주		
경상남도	사천, 거제, 양산, 마산, 밀양, 마산, 김해, 진주, 합천, 산청, 통영, 함양, 의령, 창녕, 하동, 함안, 남해, 기장, 울주, 창원, 진해, 고성, 거창,		
전라북도	남원, 임실, 장수, 전주, 무주, 진안, 순창		
전라남도	구례, 순천, 곡성,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제주도	서귀포,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마을 공동의례	

위의 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영등 관련 의례는 육지/제주도가 명백하게 변별된다. 이 변별은 영등 관련 신앙의 제 양상에 걸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대표적인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번암집』, 『봉성문여』.

	육지부	제주도
의례양상	개인적 가정의례	마을 공동의례
의례일시	2월 1일	2월 1일 - 2월 15일
의례형식	간단한 고사 비념	무당굿
관련전승	간략한 형태로 전승됨	본풀이 형태로 세밀하게 전승됨 굿과 이야기 전승이 잘 조화됨
신격체계	영등할머니, 딸, 며느리 정도	영등관련 부부, 딸과 며느리, 손자까지 언급됨. 위계에 따른 여러 영등신도 존재
신격 강림의 경로	하늘에서 내려옴(수직적 강림)	강남천자국에서 이동함(수평적 강림) 이동 경로에 따라 의례가 행해짐
분포양상	전국에 분포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미약) (중부이남 동남부 지역에 집중 분포)	제주도 전역 (이월 계절풍의 바람길을 따라 우도에서부터 제주 북동부 지역, 제주 북서부 지역 등에 분포)
비고	* 지리적 분포와 자연 지리적 속성과의 연관 추적 시도 가능	* 신격 위계화가 가능 * 바람길에 따른 지역별 의례 순서를 감안하여, 영등신 지리지가 가능

이상에서 정리한 것이 바람신 관련 필자의 연구이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후 필자는 '바람신과 자연지리 혹은 인문지리와의 관계(북서풍/남서풍)', '바람신 관련 전승과 의례의 분포 양상과 그 특징(문화지도화)', '손돌 전승의 전국적 분포와 문화권: 북서풍의 바람길과의 관계', '영등신의 전국적 분포와 문화권(제주/육지 동남부): 남서풍의 바람길과의 관계', '바람신격으로의 신격화 과정의 특징(희생의례 혹은 원혼의례적 성격)', '바람신 이야기 집성' 등의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영등굿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바람신 관련 연구를 확장해 본 것이 위에서 정리한 연구 기획이다. 이러한 기획은 제주도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논의에서 새로운 착상을 하게 한다. 그것은 제주도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는 연구의 기획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이 제주도의 독특함이나 특수함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방식이 수동적인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능동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기획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제주도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나라 전역을 조사해 보는 방식의 연구 기획이 있어야 할 때이다. 영등신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바람신의 존재 양상과 분포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것을 2차 가공해 보는 기획이 그 시작이었으면 한다.

4. 맺는말

제주의 무형유산, 특히 필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무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조사 성과가 있다. 초창기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자료 집적은 놀라울 정도이다. 후학들의 노력 역시 대단해서 이미 무속과 관련해서는 많은 자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가공하는가 문제이다. 그것은 활용의 문제일 수 있다. 그 활용의 시도로 필자는 신들의 계보화 작업을 시도했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계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단 실패했다. 각각의 마을이 혹은 심방이 고유의 우주관을 갖고 있으며, 각 마을이 철저한 자지 중심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단일한 체계로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혹 가능하다면 그것은 다소 폭력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아카이빙된 것을 활용할 때, 유념해야 할 대목이 여기에 있다.

무속의 속성을 감안하면서 2차적 가공 혹은 연구를 수행할 또 다른 방안은 없는가? 조사 역시 새로운 기획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러한 자문 속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바람신의 존재 양상과 분포에 대한 조사와 연구이다. 이 제안에서 주목할 것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내세우는 수동적 방식의 조사와 연구가 아니라,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능동적 방식의 조사와 연구수행이다. 영등신 혹은 영등굿에서 출발하여 전국의 바람신들의 존재 양상과 분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이 조사와 연구는 문헌 자료와 구술 자료 및 직접적인 현장 조사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덧붙여 제주 무속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자원화의 범주에 2차적 가공 · 연구 · 활용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해야 할 일이 많다. 제주도 본향당 신앙 전반에 대한 세밀한 조사, 큰굿의 의미와 가치의 확산, 제주도 차원의 영등굿 전수 조사 등이 그것이다. 특히나 자원화 기획에 걸맞는 섬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적지 않은 자료 구축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 필요한 항목은 빠져있거나 조사가 안된 경우가 있다. 보다 너른 시각에서 기획을 하고 이에 따른 섬세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이 조사들은 개인이 하기에는 벅찬 것들이다. 뜻한 바 있고, 생각을 공유하는

이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월 제주도 본향당굿 전수 조사, 이월 바람신 관련 의례 전수 조사, 한 마을의 일년 본향당 의례 조사, 특정 심방의 일 년 조사 등이 시급하다. 제주도 칠머리당영등굿에서 제주 지역 이월 영등신 관련 의례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확대 등재, 제주도 본향당굿 전체의 일괄 등재 등은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들이기도 하다.

〈허용호,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제안〉에 대한 토론문

김 형 근 (동아대)

발표자는 본인이 실패했던, 그리고 현재 구상적인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송당본향당신의 계보에 대한 체계화, 그리고 제주 영등신을 넘어서 전국 단위의 영등신 또는 신앙에 대한 비교연구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는데 그것은 곧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하는데 영혼 없는 자료의 쌓아놓음을 넘어서서, '테마'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같은 현장을 조사해도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중요한 제안이다. 아울러 '제주학연구센터'는 그 기관의 명칭이 그러하듯 결국은 '연구'를 기관의 정체성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 학술대회이니 만치 토론자는 발표자의 글을 시비하는 것이 아닌, 토론자 나름의 작은 아이디어를 보태고자 한다.

1. 아카이브 구축은 언제든 가능하나, 무형유산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료의 디지털화, 그리고 더 정밀한 아카이빙은 '자료'를 전제로 한다. 게다가 무형유산은 그 인멸의 속도가 빨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디지털 아카이빙할 것인가'의 방법론이 아니라, 가능한 현장조사를 통해

원천소스를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상

뭍에서는 무형유산의 현장자료들을 국립무형유산원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아카이빙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과 지역이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그 기관의 정체성이 정책과 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그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정체성이 연구이므로 외형상 더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못함은 그 조직 인원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명확하다. 즉, 무엇을 자료화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화 대상이 대단히 광범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이다.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제주학 교육사업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연구	제주학 역사편찬사업		
제주학 관련 연구지원 사업	제주어 연구사업		
제주학 총서 발간 및 지원사업	제주학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제주학 총서 번역 출판 지원사업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제주학대회			
연구지원사업	인문학 분야 연구	사회과학 분야 연구	자연과학 분야 연구
	제주문화사 연구	제주인 정체성 연구	제주 환경·기후·해양 연구
	제주해양문화 연구	제주 개발사 연구	제주 한라산 연구
	제주설화 연구	제주 이주민 연구	제주 지질 연구
	제주목축문화 연구	제주 가족·여성 연구	제주 수자원 연구
	제주마을조사 연구	제주 장수·복지 연구	제주 건축 및 도시 계획 연구
	제주생활사 연구	제주 산업사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사업

그런데 문제가 그것을 실현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재정 지원이 되는가이다. 결국 기관의 아카이빙은 뻐아프지만 '돈 만큼' 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10년이 지난다 해도 크게 발전적 아카이빙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자료의 숫자 번호만 늘어나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3. 원천소스의 확보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문화재관리국 시절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 자료들을 아카이빙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전혀 자료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아날로그 테잎은 디지털화하는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감수요원이 테잎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테잎 안의 내용을 대조하고 있다. 나중에 디지털화한 것을 분절하거나, 실제 웹기반에 업로딩할 때는 또다시 전공자와 작업자가 같이 앉아서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자료 조사자와 구축하는 인력이 동일할 때이다. (실제 구비문학대계 증보사업에서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아카이브구축을 하는 기관들은 많은데 얼마나 이 기관에서 '자료'를 아는 사람들이 앉아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또 다른 하나로, 옛날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 현재 '기증' 방식만을 생각한다. 이러니 참여자가 그리 많지 않게 된다. 게다가 연구자가 힘들여 조사하고 집적해놓은 자료를 기관이 당연하듯 '무상기증'을 바래서는 안된다.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박물관의 '유물구입비'처럼 '콘텐츠구입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4. 자료 사용의 확산

제주학연구센터까지 들어와서 자료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정말 완전 전문가들 뿐이다. 결국 지자체의 지원은 얼마나 많은 도민 다수의 혜택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예산 지원이 따른다. 따라서 완전 순수한 연구 목적의 자료 결집만 하면 늘 예산 지원의 뒷전에 밀리게 된다. 이미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4원칙 중 '시민을 향해 있는 제주학 지향'이라는 문구가 있듯 '진흥 / 확산의 노력'은 필요해보인다.

일반인들까지 그 독자를 확산하려면 일반인용 콘텐츠를 발행해야 한다. 정기적인 웹진(webzine)도 발행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offline 연계 전시 및 교양 강좌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또는 다음 연계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5. 연구를 도와주는 기관에서 하는 기관으로

앞서 발표자가 제안했던 '테마' 기획은 연구자 내지는 연구코디네이터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게다가 현장조사 자료 확보할 때도 연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제주학연구센터는 전체적으로 연구를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부 록

제4회 제주학연구센터 정책학술회의

제주도 본향당 답사

일시 : 2019년 11월 16일

제4회 제주학연구센터 정책학술회의
제주도 본향당 답사

일시 : 2019년 11월 16일

1. 신당의 가치와 보전

가. 아름다운 곳(경관 장소로서의 지정 가치)
나. 공간 미학 : 마을의 중심 또는 입지적 조건이 좋은 위치 등
다. 여성 의례 공간으로써 신앙의 공간
라. 신당이 지역민들에 의해 잘 보전되고 있고, 지속보전 가능성이 있음

2. 왜 여신당인가

가. 당을 할망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고 여신이 좌정해 있다고 인식

• 외래계신

- 온평리 본향 진동산당, 신산리 본향 범성굴왓 할망당, 내도동 알당(두리빌렛당), 김녕리 본향 사장빌레 큰당,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하도리 본향 삼싱불도할망당, 월정리 본향 서당머체 큰당 등

• 자생신

- 한수리 개당, 서귀동 자구릿물 관청할망, 한남리 본향 망동산 당밧당, 수산리 진안할망당, 동복리 본향 굴묵밧 할망당 등

나. 여신의 명칭이 수가 많고 남신에 비해 출자 등이 다양하고 우세

- 연동 본향 능당, 하원동 본향 뒷동산 비바리당, 온평리 본향 진동산당, 성읍리 안할망당, 의귀리 본향 넉시오름 널당 등

다. 여신의 신적 직능

• 농경신 : 생산, 물고, 호적, 장적(본향신의 역할)

-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금악리 또신모들 축일할망당, 금릉리소왕물 술일할망당 등

• 일뤠당계 산육치병신 : 산육, 치병(피부병, 경기 등)

- 오라동 본향 방애왓내왓당, 토산리 본향 웃토산한집당, 상예동 제멩이빌렛당, 서회천 본향 고는새남선밧당 등

• 토산계 사신(뱀) : 치병, 시집가기 전 처녀 수호 등

- 난산리 본향 걱대모루 일뤠당, 가시리 본향 구석물당, 대포동 코뜽이모루 알당, 의귀리 본향 넉시오름 널당 등

• 해신 : 어업관장(해상안전, 풍어 등)

- 한수리 본향 개당, 강정동 개당, 대포동 본향 코뜽이모루 웃당

• 조상신 : 입신, 송사, 운수 등

- 수산1리 진안할망당, 신천리 본향 안카름 현씨일월당 등

라. 남신들과의 갈등에서 여신의 역할

• 남신들을 내쫓으면서 별좌

- 상귀리 황다리궤당, 광령2리 이승굴할망당, 금악리 또신모들 축일할망당, 송당리 본향 웃손당 백주할망당, 금릉리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등

• 첩에 양보하면서 별좌

- 상·하가리 본향 오당빌레 할망당 등

• 쫓겨나면서 별좌

- 어음1리 본향 개나모들비메닛당, 강정동 개당, 평대(서동) 본향 수대깃당, 월정리 본향 서당머체 큰당 등

마. 여신 중심의 계보 형성

• 예래계

- 하예동 예래본향 열리하로산당, 신도3리 비지낭캐 웃당, 대평리 난드르 일뤠당, 감산리 도그샘이 일뤠당 등

• 금악계

- 금악리 또신머들 축일할망당, 금악리 오일하르방, 금성리 축일할망당, 명월리 본향 백

문이옥 하원당, 상명리 본향 느지리케인틈축일할망당, 금악리 아미당, 저지리 당멀허릿당 등

- 송당계

- 송당리 본향 웃손당 백주할망당, 도련1동 본향 당팟개당, 봉개동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 오라동 본향 방애왓내왓당 등

- 송씨할망계

- 어음1리 본향 개나모들비메닛당, 납읍리 본향 바구사니우영 돗당, 상하가리 본향 오당빌레 할망당, 구엄리 본향 모감빌레 송씨할망당 등

- 기타

- 신천리 본향 안카름 현씨일월당, 수산1리 진안할망당, 함덕리 존나니모루 고씨 할망당 등

3. 여신당의 존재 형태(좌정 유형)

가. 독좌(獨坐)형 : 독좌형, 부부별거형, 이당별거형 등

나. 동좌(同坐)형 : 다신동좌형, 부부동좌형 등



당　　명 : 신엄리 본향 당빌레왓 송씨할망당.
당 신 명 : 보름웃도 송씨부인, 보름알도 짐씨영감.
좌정형태 : 동당이좌형, 남(1), 여(1).
계　　보 : 일뤠당신 송씨할망.
직　　능 : 산육, 치병.
제일/제물 : 매 7일/ 메, 생선, 사과 등.
주　　소 : 애월읍 신엄리 2672-3번지.



당　　명 : 구엄리 본향 모감빌레 송씨할망당.
당 신 명 : 송씨부인 일뤠한집.
좌정형태 : 부부별좌형 남(1), 여(1).
계　　보 : 일뤠당계 송씨할망.
직　　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제일/제물 : 매 7일/ 메2기, 계란, 생선, 술, 과일, 떡.
주　　소 : 애월읍 구엄동 1길 30(구엄리 834-1번지).



당　　명 : 상귀리 본향 황다리궤당.
당 신 명 : 보름웃도 송씨부인, 보름알도 강씨영감.

좌정형태 : 부부별좌형, 동당이좌형 남(1), 여(1).
계　　보 : 산신계 육식신, 외래신계 송씨할망.
직　　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제일/제물 : 정월 초일뤠/ 강씨영감에게는 돼지고기를 올린다.
이 야 기 : 하르방이 돼지고기를 먹으니 할망이 구박했다. 못살아도 좋다고 밖에 가서 살라고 하르방을 내쫓았다.
주　　소 : 애월읍 상귀리 1508번지. 애월읍 상귀리 637번지.



당　　명 : 금악리 또신모들 축일할망당당신명 : 웃당밧 ᄯᅳ신모들 축일한집
좌정형태 : 이당별좌형 여(1)
계　　보 : 금악계 모신(母神)
직　　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이 야 기 : 육지에서 들어온 최지국의 아들과 호근ᄆᆞ를 정좌수 따님애기가 산중에서 만나 혼인을 하게 된다.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359번지




당　　명 : 금악리 아미당
당 신 명 : 아미할망
좌정형태 : 독좌형 여(1)
계　　보 : 금악계 축일신
직　　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이 야 기 : 금악본향 ᄯᅳ시모들 축일할망의 막내딸(넷째). 금악리 오일당(한라산신인 황서국서)과 술일당(정좌수 따님아기)이 부부사이에 막내딸 처녀로 죽어 처녀당으로 모셨다.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44-2 ~ 금악리 2547-1 (만뱅디묘역)




당　　명 : 상명리 본향 느지리케인틈 축일할망당
당 신 명 : 느지리 케인틈 축일한집
좌정형태 : 독좌형 여(1)
계　　보 : 금악계 축일신
직　　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제일/제물 : 축일/ 메1기,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음식.
이 야 기 : 금악축일계 둘째딸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898번지

MEMO